

국립국어원 2025-01-38

발간등록번호
11-1371028-100035-10

## 2025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연구 책임자  
정 승 철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2025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25년 3월 13일 ~ 2025년 11월 28일

2025년 11월 28일

연구 책임자: 정 승 철(서울대학교)

사업 수행 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정승철

공동 연구원 김수영, 신우봉, 이상신,  
임석규, 정인호

연구 보조원 고은향, 김고은, 김동은, 김민지,  
김영규, 김유겸, 김인규, 김주성,  
김한중, 박정순, 박주성, 배윤정,  
백은아, 안미화, 오청진, 윤예진,  
이용진, 이재섭, 이철희, 이현주,  
임홍연, 전진호, 정성경, 정지인,  
최준호, 허유진, 현혜림, 홍석우



<사업 수행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정승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김수영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상신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임석규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정인호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고은향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수료)
연구 보조원	김고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동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민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영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김유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인규 (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주성 (해군사관학교 인문학과 교수)
	김한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
	박정순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박주성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배운정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백은아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사)
	안미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수료)
	오청진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윤예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이용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이재섭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이철희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현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임홍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진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정성경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강사)
	정지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최준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허유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현혜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홍석우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조교)

## 2025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이 연구는 지역어 변이 조사를 통해 한국어에 관한 언어 다양성 보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세대별·성별 요소에 따라 분화된 지역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 및 정비하여 실제의 언어생활이나 언어 정보화에 활용 가능한 콘텐츠 및 각 지역의 언어문화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 가능한 언어 다양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의 결과물들이 연차적으로 축적된다면 한국어의 변화 추이 분석을 위한 언어 관측 자료 또는 표준어를 포함한 언어 다양성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작업 결과를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질문지와 조사·전사·정비 지침을 보완했다. 2024년 사업의 결과를 참조, 500개 내외의 어휘·표현 항목 및 2시간 조사 분량의 구술 발화 항목을 포함하는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2025)를 개발하였다. 특히, 어휘·표현 항목 가운데 100여 개 항목을 별도로 추려서 전통 지역어형의 사용도/인지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에 관한 조사·전사 지침 및 결과물 정비 지침을 정밀화하였다.

둘째, 세대별·성별 요인에 따른 언어 변이를 확인하고 그 특성을 서술하기 위해 실제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준비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전국의 9개 지점(부천, 홍천, 천안, 진천, 김해, 구미, 광양, 정읍, 서귀포 대정읍)을 선정하여 지점별로 3세대(20대, 50대, 70대 이상)의 남녀 제보자를 조사하였다. 그중 제주도는 세대별 각 1명(총 3명)을 조사하였다. 나아가 준비된 전사 및 정비 지침에 따라 조사 결과물에 대한 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2022년~2025년에 조사된 결과물에 대하여 지역별·세대별·성별 요인에 따라 분석했다. 그 결과, 70대 이상에서 전통적 방언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으며, 20대에서 몇몇 새로운 언어변화의 모습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넷째, 지역어 (보완) 조사(2004년~2020년) 결과물을 바탕으로 100장의 전국 방언 지도 및 해설을 작성하였다.

주요어: 지역어, 방언 지도, 언어 변이, 언어 다양성, 언어 변화, 표준어

<Abstract>

## **Language Variation Survey by Generation & Gender on Korean Dialects, in 2025**

This research aimed to secur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language diversity preservation policies for the Korean language through a Language Variation Survey. To this end, the research investigated regional dialect varieties differentiated by generation and gender, and the findings were used to establish various language content databases that can be utilized for real-world linguistic practices and language informatization, as well as language diversity databases that can serve as language and cultural archives for each region. If the results of these efforts are accumulated annually, they will be used as language observation data for analyzing the trend of changes in the Korean language or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language diversity policies including standard language. The specific outcomes of this study are outlined as follows.

First, to facilitate the execution of the Language Variation Survey by Generation & Gender on Korean dialects, the existing questionnaires, as well as guidelines for investigation, transcription, and result organization, were supplemented. Referring to the results of the 2024 Language Variation Survey, the Language Diversity Survey Questionnaire (2025) was developed, which includes around 500 vocabulary and expression-related items and approximately 2 hours' worth of oral utterance-related items. Notably, approximately 100 of these items were selected to examine the usage and recognition of traditional dialect forms. Additionally, to ensure the systematic execution of the survey and the organization of results, the guidelines for investigation, transcription, and result maintenance were refined.

Second, to identify regional language variation based on generational and gender factors and to describe its characteristics, the survey was carried out following the established procedures outlined in the survey plan. The survey was conducted across nine regions (Hongcheon, Bucheon, Gimhae, Gumi, Gwangyang, Jeongeup, Seogwipo, Cheonan and Jincheon), where male and female informants from three different generations (20s, 50s, and 70s+) were interviewed in each region. Jeju surveyed 1 informant from each generation (total 3 people). Furthermore, transcription and

refinement of the collected data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prepared guidelines.

Third,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in 2022-2025 were analyzed by regional, generational, and gender factors. As a result, it was mentioned that traditional dialect types were maintained to some extent in those over 70, and some new linguistic changes were observed in those in their 20s.

Fourth,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gional language (supplementary) survey (2004-2020), a 100-page national dialect map and commentary were created.

**Key Words:** Dialect, Dialect Map, Language Variation, Language Diversity, Language Change, Standard Language

# 차 례

## 제1장 사업 개요

- 1.1. 목적 ..... 2
- 1.2. 과업 범위 ..... 2
- 1.3. 수행 절차 ..... 3

## 제2장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지침서 정비

- 2.1. 조사 질문지 ..... 8
- 2.2. 조사·전사 지침 및 결과물 정비 지침 ..... 20

## 제3장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의 실제

- 3.1. 조사의 방법과 과정 ..... 24
- 3.2. 전사 및 표준어 대역 ..... 26
- 3.3. 조사 및 전사 자료 검토 ..... 28

## 제4장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의 결과 분석

- 4.1. 어휘·표현에 관한 분석 ..... 38
- 4.2. 사용도/인지도에 관한 분석 ..... 57
- 4.3. 종합 분석 ..... 69

# 차례

## 제5장 전국 방언 지도 제작

■ 방언 지도 및 해설 작성 목록 .....	76
• 고구마 .....	77
• 끝다 .....	79
• 염소 .....	82
• 왼손 .....	85
• 젓가락 .....	88
• 진눈깨비 .....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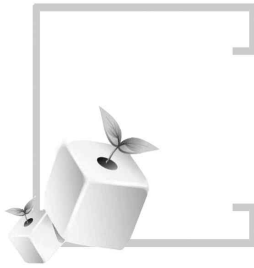
## 제6장 지역어 변이 조사의 의의 및 기대 효과

6.1. 사업 결과물 .....	94
6.2. 의의 및 기대 효과 .....	94

참고 문헌 .....	99
-------------	----

## 부록

[붙임 1] 지역어 변이 조사를 위한 조사 및 전사 지침 .....	100
[붙임 2] 전사 자료 정비 지침 .....	139
[붙임 3] 음성 분절화 작업 지침 .....	154



## 제 1 장

# 사업 개요



# 제1장 사업 개요

## 1.1. 목적

- (1) 세대별·성별 변인에 따른 지역어의 변이 양상을 조사·분석하여 지역어 소멸 및 표준어 확산, 신방언 형성 등 지역어의 변화 양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콘텐츠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어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각 지역어의 세대별·성별 변이를 조사·확인하고 해당 변이의 기초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어 변화 양상의 사실적 파악과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 변화 추이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적절한 언어정책 수립의 객관적 지표로 삼고자 한다.

## 1.2. 과업 범위

- (1)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지침서 정비: <2024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를 대상으로 교체 및 수정 항목 선별 후 질문지를 보완한다. 아울러 이들에 관한 조사·전사 및 결과물 정비 지침(<지역어 변이 조사를 위한 조사 및 전사 지침>, <전사 자료 정비 지침>, <음성 분절화 작업 지침>)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아 이를 수정, 정비한다.
- (2)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실시: 준비된 질문지와 조사 지침에 따라 도별 9개 지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총 51인의 제보자를 조사한다.
  - 1개 지점(서귀포시): 총 3인
    - 3세대(20대, 50대, 70대 이상), 세대별 각 1인
  - 그 외 8개 지점: 총 48인
    - 지점당 3세대(20대, 50대, 70대 이상), 세대별 남·여 각 1인
- (3) 조사 결과물 작성 및 정비: 준비된 전사 및 정비 지침에 따라 2025년에 조사한 결과물에 대해 정비 작업을 수행한다.

- (4) 전국 방언 지도(100장) 제작: 지역어 (보완) 조사(2004년~2020년)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전국 방언 지도 제작 및 해설 작성
- (5) 조사 결과의 분석·해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2022년~2025년에 조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각 지역어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언어문화 양상을 지역별·세대별·성별 변인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 1.3. 수행 절차

- (1)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지침서 정비: 3월~4월

▷ 절차: 국립국어원의 「2024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질문지 수정 ⇨ 「2024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의 조사·전사·정비 지침을 수정·보완 ⇨ 수정한 <2025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와 <조사·전사·정비 지침>에 대해 조사원들의 적정성 판단 ⇨ 최종 질문지 및 지침서 작성

- 지역어 변이 조사를 위한 조사자 워크숍: 3월 29일(토), 서울역 KTX회의실
  - 사업 개요 설명, 조사 및 전사, 결과물 정비 등에 대한 조사원 교육 및 의견 수렴

▷ 질문지 정비

- <2024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를 대상으로 하여 2024년의 조사 결과 분석을 반영해 보완

▷ 조사 및 전사 지침, 결과물 정비 지침 작성

- 「2024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에서 사용한 조사·전사(엘란 프로그램 사용)·정비 지침에 대한 수정 및 보완
- 각 방언권의 특징을 고려하여 도별 전사 지침 보완
- 구술발화 조사에서 특정 주제의 편중을 피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2)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실시: 5월~8월

▷ 실제 조사

- 조사 지점: 전국 9지점(전국 9개도 각 1지점)
  - 실제 조사 지역: 홍천(강원), 부천(경기), 김해(경남), 구미(경북), 광양(전남),

정읍(전북), 서귀포(제주), 천안(충남), 진천(충북)

▪ 조사 대상: 제보자 총 51인

- 48인: 8개 지점 3세대(20대, 50대, 70대 이상), 세대별 남·여 각 1인

- 3인: 제주도 1개 지점(서귀포시) 20대, 50대, 70대 이상 세대별 각 1인

▪ 조사 주체: 조사 경험이 풍부한 방언학 및 사회언어학, 음성학 전공 조사원

▪ 조사 내용: 500항목 내외의 어휘·표현 및 2시간 내외의 구술발화

▪ 조사 방법: 정해진 조사 지침에 따라 <2025년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 및 전문 음성 녹음기를 활용한 조사(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 체결)

▪ 결과 검토: 연구 경력이 오래된 지역방언·사회방언 전문가 연구원

▷ 조사 결과 정리를 위한 조사자 워크숍: 9월 6일(토), 서울역 KTX회의실

▪ 조사 및 전사, 결과물 정비 등 실제 작업에 대한 정보 교환

▪ 1인 2제보자 조사 연구원은 9월 이후에도 조사 작업을 수행함.

#### (4) 조사 결과물 작성 및 정비: 9월~11월

▷ 전사 지침에 따른 녹음 파일의 형태음소 전사 및 표준어 대역 작성

▷ 정비 지침에 따른 녹음 파일의 항목별(어휘·표현) 혹은 주제별(구술발화) 분절

▷ 연구보조원은 자신이 조사한 녹음 파일에 대해 주어진 지침에 따라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연구원은 권역별로 분담하여 이를 검토함.

▪ 음성 분절 작업: 어휘·표현 관련 지역어 음성 자료를 보편적인 웹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자료를 분절하고 다듬는 작업. 보편적 웹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 음성 파일에서 개별 표제어를 추출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함.

▪ 주제별 분절 작업: 구술발화 음성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의 구성과 내용별 분류를 통해 자료 제시를 체계화하는 작업. 표준어 대역, 오류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 등 자료 활용을 위한 제반 사항 검토 등을 포함함.

▪ 메타데이터 작성과 개인정보 비식별화 작업으로, 비속어, 혐오·차별 표현 등을 삭제함.

▪ 정해진 방식에 따라 2022~2024년 구술발화 조사 자료를 가공함.

#### (5) 전국 방언 지도(100장) 제작 및 해설 작성: 9월~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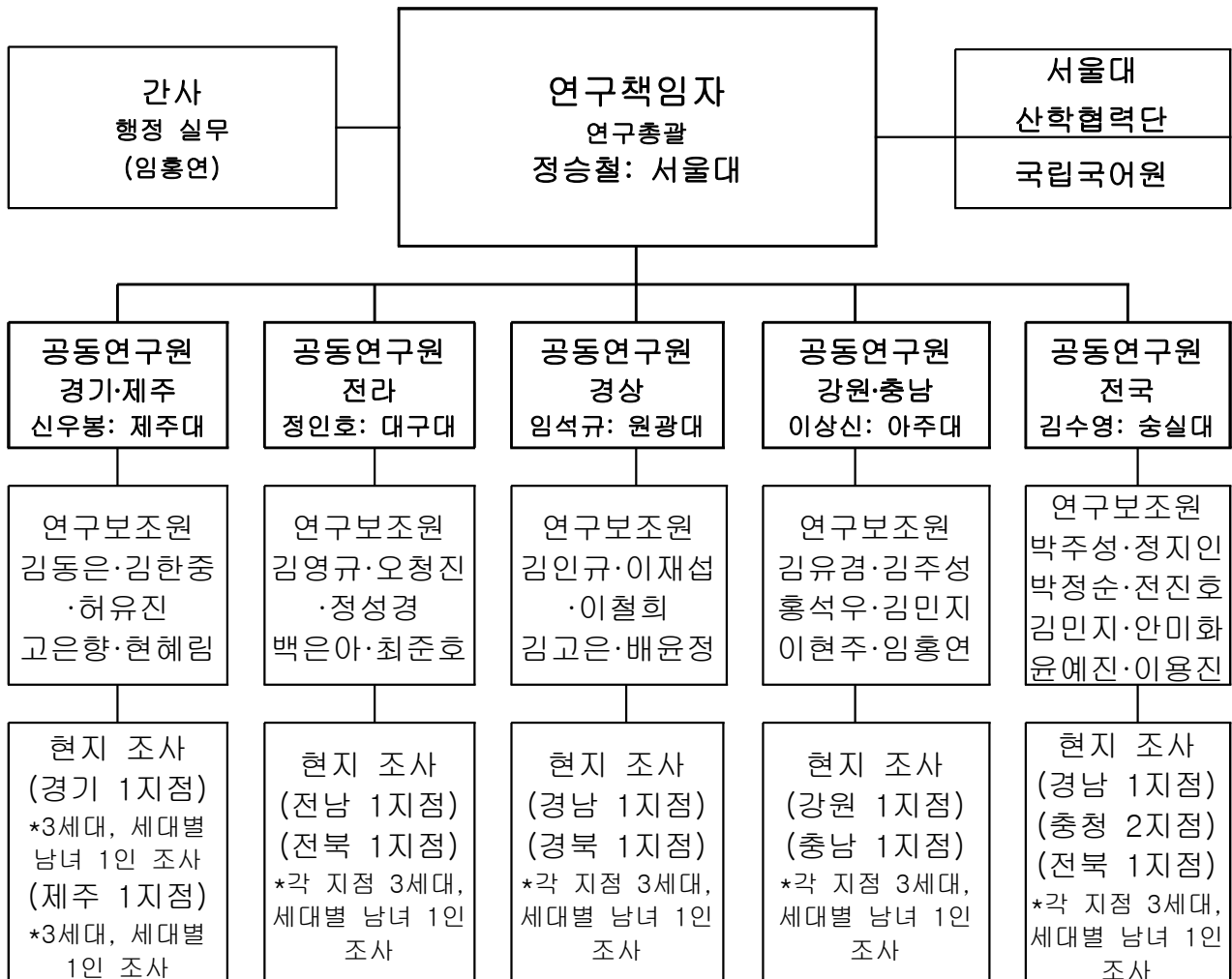
(6) 조사 결과의 분석·해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11월

▷ 2022년~2025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항목별 분석 및 이에 대한 종합적 해석 시도

▷ 제한된 자료에 기초하여 가능한 한도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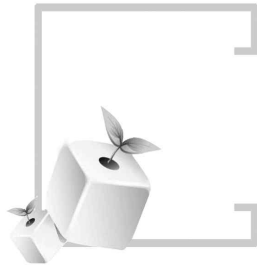
- 지역어 어휘·표현의 특징적인 세대별 변이 양상 분석
- 지역어 어휘·표현의 특징적인 성별 변이 양상 분석
- 지역어 사용도/인지도 조사에 대한 지역별·세대별·성별 분석 및 해석(시범적)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어 소멸, 표준어 확산, 신방언의 형성 등 지역어의 변화 양상 서술

2025년 지역어 변이 조사 수행도



※ 8개 지점 3세대(20대, 50대, 70대 이상), 세대별 남·여 각 1명  
1개 지점(서귀포시) 3세대, 세대별 각 1명





## 제 2 장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  
지침서 정비



## 제2장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지침서 정비

### 2.1. 조사 질문지

#### (1) 작성 목적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세대별·성별에 따른 지역어의 변이 양상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 (2) 거시적 구성

이 질문지는 서두, 구술발화 편, 어휘·표현 편으로 구성된다.

#### ① 서두

질문 및 전사를 위한 본 질문지 앞에 ‘지역·세대·성별 한국어 자원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제보자 조사표’, ‘조사 일정’, ‘일러두기’를 첨부하였다. 참조를 위해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아래 제시한다(‘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제보자 조사표’, ‘조사 일정’, ‘일러두기’는 첨부하는 질문지 및 조사·전사 지침 파일 참조).

-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전문)

#### 지역·세대·성별 한국어 자원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_\_\_\_\_(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 국립국어원(이하 “이용자”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저작물: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에 대한 발화 자료

별:  어문저작물

권리: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시권

※ 저작권 이용허락 대상 권리의 내용

1. 국립국어원 및 국립국어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수행자가 대상저작물을 일정한 형식으로 전자적 기록 매체에 담아 보존하는 일
2. 국립국어원 및 국립국어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수행자가 자모, 음절, 어휘, 어절, 구절, 문장 및 텍스트 단위의 국어 연구와 언어 정보 처리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 대상저작물을 복제·변형(목차·머리말·도표·그림·각주 등의 편집 및 삭제, 언어 단위별 분리, 언어적·비언어적 정보 부착 등)하는 일
3. 국립국어원 및 국립국어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수행자가 대상저작물 및 그 복제·변형물을 연구 및 기술 개발용으로 학계·연구기관·공공기관·산업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배포하는 일
4. 대상저작물 및 그 복제·변형물을 제공·배포받은 학계·연구기관·공공기관·산업체 등이 국어 연구와 한국 언어문화 보존 및 진흥, 언어 정보 처리 분야 응용 등을 위하여 대상저작물 및 그 복제·변형물을 분석·가공 및 처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 허락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4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권리자가 이용 허락을 중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이용 허락이 5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권리자가 이용 허락 중지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 내용에 따라 이용 허락을 중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이용 허락 내용이 유지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저작권재산권을 이용할 권리를 제3조의 기간 동안 비독점적으로 허락한다.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이용허락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에 제3자의 이용허락권,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제3조의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2조의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료는 설정하지 아니한다.

(3)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 조건에 의해서만 대상저작물 재이용을 허락할 것
2.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8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권리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인)      이용자 :  
성명      국립국어원장 (인)  
주소      서울 강서구 금남화로 154



② 구술발화

구술발화 질문지는 1. 조사 마을(동네)의 환경과 배경, 2. 일생 의례와 경험, 3. 생업 활동과 경제생활, 4. 의생활과 외모, 5. 식생활, 6. 거주생활, 7. 질병과 건강,

8. 세시 풍속과 여가 문화, 9. 언어 의식/태도 등 9개 부문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큰 주제 항목은 다시 다양한 세부 질문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 ③ 어휘·표현

어휘·표현 질문지는 직접 조사를 위한 것으로서 조사 항목은 명사류를 중심으로 하되 동사류 및 부사류를 일부 첨가하였다. 어휘 질문지는 ‘인간과 자연, 사회생활, 경제생활, 의생활, 식생활, 거주생활, 문화생활, 언어생활, 일상표현’과 같은 9개의 주제 항목으로 이루어지며, 각 주제 항목은 다시 다양한 소주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다수의 항목에 <그림> 정보를 제공해 조사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참고**로 표시된 부분에는 표제 항목에 대해 참고할 만한 상황을 제공해 조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조사 항목에는 ‘사용도/인지도’를 직접 조사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사용도/인지도 ① 사용 ② 이해 ③ 인지 ④ 무지

- 사용: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있다.
- 이해: 써본 적은 있지만 현재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는다.
- 인지: 써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은 있다.
- 무지: 써본 적도 없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 (3) 항목 번호

#### ① 항목 번호 부여 기준

질문지의 모든 조사 항목에는 고유 번호가 부여된다. 이 고유 번호는 음성 자료와 전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항목 번호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때 분야 번호, 분류 항목 번호, 표제 항목 번호는 모든 항목에 적용되는 필수적인 것이다. 여기서 ‘분야’란 구술발화, 어휘 표현의 두 분야를 가리키며, ‘분류 항목’은 주제 항목(또는 소주제 항목), 그리고 표제 항목은 질문 항목을 의미한다.

분야 - 분류 항목 - 표제 항목 - 주 항목

## ② 주 항목 번호

### ▪ 구술발화의 주 항목 번호

- 구술발화 조사 질문지의 주 항목 번호는 [보기]와 같이 만 단위(다섯 자리)로 한다.
- 분야 번호는 만 단위 자리의 1, 분류 항목(대주제 항목) 번호는 백 단위 자리, 표제 항목(질문 항목) 번호는 십 단위 이하 자리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분야(구술)	분류 항목(대주제 항목)	표제 항목(질문 항목)
10000	10101	10101

[보기]

10101 이 마을(동네)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 모른다면, 이 마을(동네)가 예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10510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먹을 때 주로 먹는 음식과 주로 가는 식당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외식은 주로 어떤 때 하십니까?

### ▪ 어휘 표현의 주 항목 번호

- 주 항목 번호는 [보기]와 같이 만 단위(다섯 자리)로 한다.
- 분야 번호는 만 단위 자리의 2, 분류 항목(소주제 항목) 번호는 천과 백 단위 자리, 표제 항목(질문 항목) 번호는 십 단위 이하 자리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분야(어휘)	분류 항목(소주제 항목)	표제 항목(질문 항목)
20000	21100	20101

[보기]

20101 가마(旋毛)

20102 새치

## (4) 질문 항목 내역

### 1) 수정 사항

- 원칙: 조사원들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 복잡함을 피하는 방향에서 수정함.

### ① 호흡이 긴 하나의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고 선택식 질문법을 보완함.

2025 질문지 22716 네 남편/너희 남편 시장에 갔는데 우연히 친구의 남편을 봤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u>누구를</u> 봤다고 말합니까? <b>참고</b> 너희, 너, 느, 니, 너그, 느그, 너네, 느네	2024 질문지 22716 네 남편/너희 남편 여자 친구들끼리 이야기 할 때 상대방의 남편이 요즈음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려면 ( <u>네 남편/너희 남편</u> )은 뭐하냐고 합니까?
--	--

② 두 문장으로 나누되 대화체로 수정함.

2025 질문지 21714 새알심 보통 찹쌀가루나 수수 가루로 만드는데요, 죽이나 국 따위에 넣어 먹는 사탕만 한 덩이를 <u>무엇</u> 이라고 합니까? <b>참고</b> 새알, 생알	2024 질문지 21714 새알심 보통 찹쌀가루나 수수 가루로 만들며, 죽이나 국 따위에 넣어 먹는 새알만한 덩이를 <u>무엇</u> 이라고 합니까? <b>참고</b> 새알, 생알
---	--

③ 가정적 상황에 따른 질문을 제외함. 20대(남)인 경우, 50대를 가정해 보고 또 여자임을 가정해 보고 호칭 지칭에 대해 대답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니 해당 세대인 경우만을 조사하기로 함. ‘할아버지’는 ‘결혼한 손자’를 가정하지 않음. 다만 70대, 50대 제보자께는 ‘어릴 때는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 보충조사를 함.

2025 질문지 20703 할아버지(호칭) 아버지의 아버지를 부를 때는 <u>어떻게</u> 부르니까?(젊었을 때는 <u>어떻게</u> 부르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u>어떻게</u> 부르니까?) <b>참고</b> 한아버	2024 질문지 20703 할아버지(호칭) 결혼한 손자가 아버지의 아버지를 부를 때는 <u>어떻게</u> 부르니까? <b>참고</b> 한아버
--	--

- ‘어휘·표현’ 부문: 총 531항목(지역특수어 27항목 포함) 중에 ‘사용도/인지도’ 조사 항목은 101항목임.
- ‘사용도/인지도’ 조사로 명시된 경우(101항목)에는 구사어, 이해어 및 미사용어를 조사하도록 함. 제2편 어휘 표현 질문지에서 **조사** [권역별 방언형](<~~권> 대표방언형 기재)로 표시된 부분에 101항목의 조사 지역 대표 방언형을 [부록]에서 참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용도/인지도’를 조사함.
- [부록] 어휘 표현 531개 표제어 중에 108개의 표제어에 대해 <그림> 정보를 연결하여 조사 시 참조하도록 함. 확보된 <그림> 총 108항목은 모두 저작권을 확보하여(2021년, 2022년 106개, 2023년에 2항목 ‘산딸기, 사마귀’의 저작권 확보) 그림 부록의 활용도를 높임.
- ‘구술발화’ 부문: 실제 조사 시 특정 주제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조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능한 한, 세부 질문 문항을 큰 질문 문항으로 묶어서 질문지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함. 조사 지점이 대도시여서 구술발화 속에 나타나는 제보자들의 생활 유형이 어느 정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약간의 차이라도 드러날 수 있도록 대도시 지역 속에서도 전통적 생활권을 고려하여 제보자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편이 유용할 듯함.

## 2) 총 항목

최종적으로 2025년의 질문지는 ‘구술발화’의 경우, 9개 부문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큰 주제 항목은 다시 다양한 세부 질문 항목으로 구성된다. ‘어휘·표현’은 9개 부문인데 인간과 자연(167개), 사회생활(75개), 경제생활(29개), 의생활(20개), 식생활(68개), 거주생활(55개), 문화생활(15개), 언어생활(20개), 일상표현(82개)로 총 항목 수는 일반 조사 항목으로 504개와 지역의 방언 분화를 확인할 수 있는 특수표현으로 각 방언권별 4~6개 항목씩 27개 항목이 개발되어 총 5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도 질문지에 포함된 일반 어휘 표현 504개 항목과 지역 특수표현 27개 항목의 부문별 세부 표제어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인간과 자연	167	표제어
1-1 인체 (얼굴과 머리/몸)	40	가마(旋毛), 새치, 흰자위, 검은자위, 눈두덩, 눈꺼풀, 귀청, 귀지, 귀이개, 엇듣다, 뺨, 수영, 구레나룻, 낫, 보조개, 입술, 부르트다, 휘파람, 혀, 침(唾), 뺨다, 콧구멍, 턱, 겨드랑, 팔짱 끼다, 오른손, 왼손, 굳은살, 새끼손가락, 뺨, 엉덩이, 굶다, 가부좌, 무릎, 복사뼈, 까치발, 고린내, 오금, 배꼽, 쓸개
1-2 질병과 생리	22	멍, 멍울, 비듬, 주근깨, 다래끼, 땀띠, 버짐, 트림, 딸꾹질, 사례(들리다/만나다/걸리다), 방귀, 쾨다, 재채기, 하품, 졸음, 잠꼬대, 기지개, (기지개를) 쾨다/하다/쓰다/퍼다, 저리다, 헛바늘, 감기, (오줌을) 누다/싸다
1-3 동물	43	새우, 거머리, 다슬기, 메기, 명태, 미꾸라지, 아가미, 지느러미, 창자, 벌레, 개미, 구더기, 매미, 모기, 벌, 파리, 쉬파리, 쉬슬다, 메뚜기, 바구미, 지렁이, 회충, 고양이, 돼지, 주둥이, 박쥐, 수컷, 수탉, 볏(鷄冠), 암컷, 암탉, 닭똥, 닭털, 모이, 노루, 여우, 갈치, 고기, 쇠고기, 강아지, 뱀, 누에, 번데기
1-4 식물	18	꽃, 잎, 억새, 갈대, 질경이, 진달래꽃, 해바라기, 숲, 숲, 침, 이끼, 부스러기, 옷, 딸기(산)_야생, 벼, 보리, 참외, 오디
1-5 자연, 시후, 날씨와 방향	44	바위, 돌(石), 모래, 묘, 산꼭대기, 낭떠러지, 거품, 가뭄, 가을, 겨울, 오늘, 내일, 모레, 글피, 그글피, 어제, 그저께, 그끄저께, 이튿날, 올해, 내년, 내후년, 작년, 재작년, 더위, 추위, 따뜻하다(溫), 우

		박, 진눈깨비, 고드름, 서리, 노을,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언제, 아직, 이제, 지금, 나중에, 먼저, 새벽, 회오리바람
--	--	--

2. 사회생활		75	표제어
2-1 육아	15	갓난아이, 포대기, 기저귀, 오줌, 뉘다(排便), 아우 타다, 쌍둥이, 어린아이, 사내아이, 계집아이, 구린내, 눅히다, 거짓말, (다리가) 가늘다/얇다, 야위다	
2-2 친족	40	아버지(호칭), 어머니(호칭), 할아버지(호칭), 할머니(호칭), 형(호칭), 아우(호칭), 누나(호칭), 누이(지칭), 오빠(지칭), 언니(지칭), 남편(지칭), 남편(호칭), 아내(지칭), 아내(호칭), 시아버지(호칭), 시어머니(호칭), 아범, 사위(호칭), 아주버니(호칭), 서방님(호칭), 도련님(호칭), 형님(호칭), 아가씨(호칭), 올케(호칭), 매형(호칭), 매제(호칭), 제부(호칭), 큰아버지, 삼촌(결혼 전 호칭), 작은아버지(결혼 후 호칭), 이모(호칭), 이모부(호칭), 장인(호칭), 장모(호칭), 처남(손위, 호칭), 처남댁(손위, 호칭), 처남(손아래, 호칭), 처남댁(손아래, 호칭), 처제(호칭), 동서(손위, 호칭)	
2-3 관계	8	아저씨(호칭), 아주머니(호칭), 여보(일반 호칭), 사장님/선생님(고객 호칭), 형(학교에서/직장에서), 음식점 장년 여성(호칭), 음식점 청년 여성(호칭), 음식점 청년 남성(호칭)	
2-4 인사(화행)	5	(친구를 만났을 때) 안녕, (음식점에서) 여기요/저기요, (친구와 헤어질 때) 안녕/잘 가/들어가, 다녀오겠습니다/다녀올게요/다녀올게, (집에서) 잘 먹겠습니다/잘 먹을게요/잘 먹을게	
2-5 높임	7	성함/함자, 편찮으시다/아프시다, 여쭙다, 잡수시다/자시다/드시다, 돌아가시다, 진지, 약주	

3. 경제생활		29	표제어
3-1 농경	14	품앗이, 텃밭, 거름, 쟁기, 호미, 방아, 절구-절굿공이, 이삭, 껍질, 추수하다, 흉년, 허수아비, 화로, 석쇠	
3-2 일반	6	거지, 구두쇠, 덩, 빚, 꾸다(借), (쌀을) 팔다	
3-3 단위	9	(나무) 그루, 서 되/세 되, (신발) 켄레, (김) 툇, (배추) 포기, (볼펜) 자루/개, 꾸러미, (술) 석/세(잔), (젓가락) 매/모/벌	

4. 의생활		20	표제어
4-1 의복	9	저고리, 무늬, 옷고름, 주머니, 허리띠, 누더기, 덧버선, 양말, 짚신	
4-2 바느질 외	11	가위, 형겅, 바늘, 골무, 매듭, 베개, 재봉틀, 다리미, 다림질, 방석, 비녀	

5. 식생활		68	표제어
5-1 주식과 부식	23	메/제삿밥, 더운밥/뜨신밥, 찬밥/식은밥, 밥알/밥풀/밥풀때기, 누룽지, 송늱, 국수, 칼국수, 수제비, 건더기, 고명, 가루, 식혜(食醴), 김(海苔), 시다, 고소하다, 메밀, 옛기름, 고춧가루, 달걀, 찌꺼기, 헝구다, (걸레로 방을) 훑치다/뒹다	

5-2 반찬과 별식	23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김장, 담그다, 깍두기, 무생채, 겉절이, 석박지, 양념, 콩나물, 장아찌, 새알심, 팔죽/동지죽, 술떡, 이바지, 소주, 전/부침개/지짐이, 소, 버무리다, 냄새, (한턱) 내다/쏘다
5-3 식기	4	그릇, (물건을) 떨어뜨리다, 시루, 뚜껑
5-4 곡물과 채소	18	감자, 고구마, 고추, 나물, 오이, 무, 배추, 부추, 상추, 도라지, 마늘, 시래기, 줄기, 옥수수, 조, 메주, 곰팡이, 매달다

<b>6. 거주생활</b>	<b>55</b>	<b>표제어</b>
6-1 마을	7	마을, 이웃, 우물, 가(邊), 샘(泉), 동 주민 센터, 대장간
6-2 가옥	16	도배, 아궁이, 구멍, 굴뚝, 그을음, 마루, 지붕, 장독대, 변소, 벽, 모서리, 거울, 서랍, 주방, 욕실, 넓다
6-3 생활용품	31	종이, 새끼(繩), 띠, 빗자루, 갈고리, 갈퀴, 도끼, 자루(柄), 작두, 솥돌, 맷돌, 바퀴, 성냥, 세숫대야, 소쿠리, 송곳, 뽕족하다, 참빗, 키(箕), 회초리, 슬리퍼, 구둣주걱, (담배를) 피우다/태우다, 뿔리다/뿔히다, (보일러를) 켜다/틀다/돌리다/때다, (에어컨을) 켜다/틀다/돌리다, 부지깥이, 사닥다리, 반질고리, 다듬잇돌, 팽과리
6-4 이동수단	1	자전거

<b>7. 문화생활</b>	<b>15</b>	<b>표제어</b>
7-1 놀이와 민속	15	(돈을) 잃다/꽂다, 가위바위보, 공기놀이, 자치기, 곤지곤지, 그네, 딱지치기, 목말, 소꿉놀이, 윷놀이, 도, 윷, 쥐불놀이, 귀신, 도깨비

<b>8. 언어생활</b>	<b>20</b>	<b>표제어</b>
8-1 외래어	16	키보드/자판, 배터리/빠떼리, 샐러드/사라다, 샤워/목욕, 키/열쇠, 텔레비전/테레비/티브이/티비, 플레시/후레시, 튀김/덴뿌라, 휴대 전화/휴대폰/핸드폰/폰/스마트폰, 내비게이션/내비, 슈퍼/마트, 탤런트, 팬, 패션, 원룸, 컴퓨터
8-2 선택표현	4	(이쪽으로) 다오/주라, 다르다/틀리다, 싸다/헐하다, 알았어/알겠어

<b>9. 일상표현</b>	<b>82</b>	<b>표제어</b>
9-1 담화, 화용, 언어	17	땡땡이치다, (멀치를) 우리다, ‘감사합니다’에 대한 응답, ‘미안합니다’에 대한 응답, (명절을) 쇠다/보내다, (발) 씻다/뒹다, (불만 표현) 음식이 너무 짠데요, (비확정적 표현) 그런 것 같아요, (사과 표현에 대한 응답) 아니에요, (칭찬 표현에 대한 응답) 감사합니다, (호의에 대한 거절) 괜찮아요, ‘마음씨가 참 좋습니다’에 대한 응답, 부탁에 대한 거절, 내 아내/우리 아내, 내 동생/우리 동생, 네 남편/너희 남편, 너희 집
9-2 문법	26	내-가, 저-가, 너-가, 너희, 무슨, 왜, 여기, 저기, 거기, 애, 재, 개, (-밖에) 너밖에, -듯이, (-겠-) 오겠다, (-고) 싶다, (-나/는가 보다) 추운가 보다, (부정)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부정)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으면서)보면서, 달히다, 열리다, 어떻게, -으려고, 가니?, (보조동사) 버리다

9-3 관용표현	6	개나 소나, 내버려 뒀,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여보세요(길 가는 사람을 부를 때), 죽마고우
9-4 필수음운	6	맑다, 밥하고, 작다, 효과, 살, 쌀
9-5 지역 특수표현(권역별)	27 (6개 권역)	<전라권>징하다, 권, 개미, 흑하다, 심간, <경상권>단디하다, 천지 빼까리다, 깨알받다, 까리하다, <충청권>그니, 짜다, 납들다, 해설 피, 심간, <강원권>개락이다, 춘천이여, 오짐싸개, 외(이+외), <제주권>갈웃, 가름돌다, 버루기, 우치다/우찌다, 밥주리/물자리/물젤/밤부리, <경기권>단허리로, 반대작하다, 가장귀, 가짓고자리

### (5) 그림

어휘 표현 531개 표제어 중에 108개의 항목에는 <그림> 정보를 제공하여 조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2021년 <그림>(저작권, 출판권 확보)의 210장 중에서 2022년도 질문지 항목에 해당하는 106개를 선별하고, 2023년에는 ‘산딸기, 사마귀<곤충-(강원)오짐싸개>’ 항목의 그림을 추가하여 총 108개로 된 부록을 마련하였다. 2025년에는 2023년까지 확보한 그림 108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6) 특징

2025년도 질문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술발화 질문지는 세대별, 지역별 언어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해 노년층 농촌 지역 거주자만이 아니라 청년층과 장년층, 그리고 도시 지역 거주자도 두루 응답할 수 있도록 주제와 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세대나 지역에 따라 응답이 어려울 수 있는 세부 질문은 대안 질문을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어휘 질문지의 각 항목은 주 항목으로 구성된다. 주 항목의 기저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원의 의도에 맞게 조사하도록 하고 별도의 부수 항목을 두지 않는다. 이때 **주의**에 ‘기저형 조사 필요’라고 표시한다. 다만 주 항목과 관련된 어휘를 함께 묻는 경우에도 별도의 주 항목으로 설정하여 조사한다.

셋째, 어형, 용법, 의미 등에서 차이가 예상되는 항목 뒤에는 **주의** 표시 뒤에 예상되는 차이 등을 예시하여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각 항목에 대한 질문은 대부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와 같은 명명식으로 이루어지지만, 항목에 따라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와 같이 선택식 질문 방식도 활용하였다. 선택 항목으로 명시된 것 외에 새로운 응답형은 조사자가 별도로 추가하여 기록할 수 있다.

다섯째, 질문은 그림이나 사진 또는 동작의 형용 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그림>은 조사 항목에 해당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제시하여 제보자가 이를 보고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괄호 안에 ‘모양을 형용하거나 시늉을 하면서’ 등과 같이 표시하여 그 항목의 개념이나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을 몸동작 등으로 보여주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조사에 필요한 그림이나 사진 등은 따로 제작하여 질문지와 한 벌이 되도록 하였다.

일곱째, 조사 항목에는 조사자가 해당 세대별 지역별 언어형을 조사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당 항목의 옛말을 **참고** 표시 뒤에 제시하였다.

여덟째, ‘사용도/인지도’ 조사는 유의미한 항목을 선별하여 조사하도록 했다. 전체 항목 중에 101개 항목의 경우 구사어와 이해어 또는 미사용어의 경우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였다.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항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했다. ‘사용도/인지도’ 조사가 유의미하다고 선정한 101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흰자위, 눈두덩, 귀청, 귀지, 귀이개, 구레나룻, 입술, 휘파람, 콧구멍, 겨드랑, 무릎, 복사뼈, 배꼽, 딸꾹질, 졸음, 기지개, 헛바늘, 미꾸라지, 벌레, 구더기, 매미, 모기, 벌, 파리, 쉬슬다, 메뚜기, 지렁이, 회충, 고양이, 모이, 노루, 여우, 갈치, 강아지, 뱀, 누에, 번데기, 억새, 벼, 오디, 바위, 모래, 가을, 겨울, 글피, 그저께, 그끄저께, 우박, 노을, 언제, 새벽, 회오리바람, 아우타다, 계집아이, 늑히다, 할머니(호칭), 형(호칭), 사위(호칭), 호미, 거지, 서 되/세 되, 꾸러미, 짚신, 가위, 다리미, 건더기, 메밀, 엇기름, 고춧가루, 달걀, 간장, 콩나물, 시루, 뚜껑, 오이, 무, 부추, 시래기, 가(邊), 아궁이, 구멍, 그을음, 마루, 장독대, 변소, 벽, 새끼(繩), 째리, 갈퀴, 키(箕), 부지깥이, 반진고리, 다듬잇돌, 팽과리, 자치기, 곤지곤지, 그네, 목말, 소꿉놀이, 쥐불놀이, 다르다/틀리다 (101개 항목)

‘사용도/인지도’ 조사를 위한 101항목의 경우, 조사 대상 지역의 대표 방언형을 정리하여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실제 현장 조사 시 조사원들이 지역 방언형을 참고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용도/인지도’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아홉째, 일상표현에서 지역의 방언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특수표현으로 방언권 별로 4~6개 항목씩 총 27개를 개발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 2.2. 조사·전사 지침 및 결과물 정비 지침

- 목적: 전형적인 지역어형의 조사 및 기저형을 반영한 전사 그리고 결과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자료의 체계적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 경과: 「2022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에서 작성한 조사·전사 지침 및 결과물 정비 지침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매년 여러 차례의 공동연구원 회의를 통해 해당 지침서를 검토하였다.

### (1) 조사 지침

기존 전통 방언에 대한 조사(제보자: 노인층) 사업과 달리,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토박이 화자의 언어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이므로 각 지역의 적절한 연령별 제보자(20대/50대/70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지침이 작성되었다. 기존의 조사 지침과 비교하여 현장 조사 방법(‘구술발화 조사 방법’ 포함)과 ‘사용도/인지도’의 판별 기준에 한하여 약간의 수정·보완이 있었다.

<참조> 구성: 어휘·표현 및 구술발화 조사 공통 지침, 어휘·표현 조사 지침, 구술발화 조사 지침, 녹음기 사용법 등

- 질문지를 활용한 직접 질문 방식의 현장 조사
    - 책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접하고 제보자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구사하지 못하는 항목은 해당 방언형이 없는 것으로 함.
    - ‘보일러를 켜다/틀다/돌리다/때다’와 같은 선택형 항목은 자주 쓰는 방언형을 조사함.
    - 방언형의 특기할 만한 의미적 특징은 ‘부가 정보’란에 밝혀 두도록 함. 특히 해당 방언형이 제보자만 사용하는 개인어일 수도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제보자 선정 기준
    - 토박이 조건: 연령별 제보자(20대/50대/70대) 모두 3대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해야 함. 다만 어머니는 가급적 동일 지역 출신이어야 하나, 동일 방언권도 허용함.
- <참조> 강원 영동/영서(2개 방언권), 경기(1개 방언권), 경남/경북(2개 방언권), 전남/전북(2개 방언권), 제주(1개 방언권), 충청(1개 방언권)
- 학력 조건: 70대(가급적 초등학교 졸업 이하), 50대(고등학교 졸업 이하), 20대(대학교 졸업 이하)

- 군대 경력은 고려하지 않으나, 다른 대방언권에서 대학교를 다닌 경우의 제외자는 제외함.
- 구술발화: 특정 주제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조사하기 위해 필수 조사항목(19개)을 설정함.
- 사용도/인지도: 해당 어형을 현재 쓰고 있는가, 써본 적이 있는가, 들어본 적이 있는가 등의 기준을 마련해 좀 더 명료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사용도/인지도’는 방언형에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표준어형은 조사하지 않음을 명시함.

(2) 전사 지침

「지역어 보완 조사 사업」에서는 거의 유사한 성격의 <전사 지침>(2018)과 <구술발화 작업 및 형태음소 전사 지침>(2019)이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2021년 언어 다양성 조사 사업」에서 이 두 지침을 통합하여 <언어 다양성 조사 표기 지침>(2021)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사 도구가 ‘트랜스크라이버’에서 ‘엘란’으로 변경되면서 전사 도구의 교체에 따른 미세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각 지역 조사원들이 해당 지역어를 정확히 효율적으로 전사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이성을 반영한 방언별 전사 지침을 따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속 수정·보완하여 이번 「2025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을 위한 <지역어 변이 조사 표기 지침>(2025)을 마련하였는바 수정·보완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어휘·표현 기저형 표기 지침

1. ‘엘란’ 작업 지침

(4) 발음 정보

**【붙임】** ‘9-4 필수 음운’의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발음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한다.

<Ⅱ> 구술발화 표기 지침

1. ‘엘란’ 작업 지침

**【참고2】** 구술발화 분절은 하나의 문장을 단위로 하여 분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㉞ 종결어미가 없는 경우에도 하나의 문장이 성립된다면 분절하도록 한다.

㉟ 하나의 문장이 연결어미에 의해 계속 이어진다면 적당한 선에서 분절하도록 한다.

㊱ 다른 문장과 함께 발화되는 ‘예, 아노’ 등의 감탄사는 따로 분절하지 않고 하나의 분절 단위로 합치기로 한다.

2. 표기 원칙

(5) 기타 이중모음 표기

**【붙임】** [ʃue, ʃʷue, ʃue, ʃʷue]는 각각 ‘쉬에, 썬에, 쉬에, 썬에’로 적는다.

예 [ʃuephram](휘파람) ⇒ 쉬에파람

(6) 모음의 대립이 상실된 경우

【붙임2】 표준어 ‘-은/는가 봐, -나 봐’의 ‘봐’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은/는가베, -나베’ 등과 같이 ‘에’로 적는다 (제24항에 의거하여 붙여 쓰에 유의).

(8) 한자어·외래어·숫자

⑤ 외래어는 소리대로 적는다. 특히 [쓰] 발음의 경우에 유의하도록 한다.

예 [원눔](원룸) ⇒ 원눔    ||    [월룸] ⇒ 월룸

[씨비쓰] ⇒ 씨비쓰(○)/씨비스(x)/서비스(x)

【예외】 외래어의 발음이 [ㄷ]인 경우에는 ‘ㅅ’으로 적는다.

예 [아읏](아웃) ⇒ 아읏

(13) 음의 탈락

④ 특별한 사정(소음, 녹음 상태 등) 때문에 발음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똑똑히 발음할 때의 소리를 적도록 한다.

(24) 문장 부호 사용

【예외2】 표준어의 ‘-는가 보다’에 대응하는 방언형 ‘-는가갑다/는가비다/는가베다, -는가벼/는가베/는가벼/는가어’ 등은 붙여 쓰고 ‘-는가 부다, -는가 바’ 등은 띄어 쓴다.

(25) 담화 표지

④ ‘헛기침, 웃음소리’ 등은 소리를 전사하지 말고 ‘(헛기침), (웃음), (채채기)’ 등으로 적되, 앞뒤로 띄어쓰기를 하고 문장부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아이고. (웃음) 근데 우리는 ...

### (3) 결과물 정비 지침

이번 「2025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에서 활용한 전사 및 정비 도구는 기존 「2022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과 동일하게 ‘엘란’이었다. 따라서 결과물 정비 지침에서 기본 원칙이 바뀐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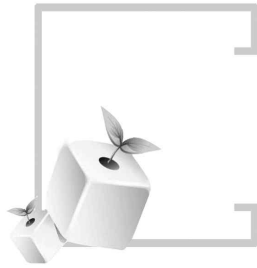
#### ▪ 구술발화 전사 자료 정비 지침

- 구술발화 입력은 「2021년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 사업」의 ‘엘란’ 작업 지침을 그대로 활용함.

#### ▪ 분절화 작업 지침

- 어휘·표현 항목별 음성 분절: 음성 분절 및 전사 도구로 ‘엘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절하는 방법을 활용함.

- 구술발화의 주제별 음성 분절: Goldwave, Praat, Cool Edit Pro 등 음성편집기를 활용하도록 함.



## 제 3 장

#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의 실제



## 제3장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의 실제

### 3.1. 조사의 방법과 과정

#### (1) 조사 방법

지역어 변이 조사는 지역은 물론 세대별·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를 관찰함을 목표로 하므로 70대 이상, 50대, 20대 그리고 세대별 남·여 제보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또 해당 지역에서 3대 이상 거주해 왔다는 조건을 가급적 충족한 사람을 제보자로 택하였다. 결국 이번 조사의 제보자는 ‘해당 지역에 3대 이상 거주한 70대 이상, 50대, 20대’로 한정되었다.

조사는 질문지를 미리 작성한 후 현지에 가서 제보자를 대면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질문지는 총 500여 항목(공통 항목 및 지역별 특수 항목 포함), 총 141쪽으로 구성되었다. 질문 및 전사를 위한 본 질문지 앞에 ‘지역·세대·성별 한국어 자원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제보자 조사표’를 첨부하였다.

조사 결과에 대한 전사는 엘란을 활용하여 형태음소적 원칙에 따라 수행하였다. 형태음소적 전사가 가능하도록 실제 조사에서 응답형의 기저형을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2) 조사 지역

조사 지역은 홍천(강원), 부천(경기), 김해(경남), 구미(경북), 광양(전남), 정읍(전북), 서귀포(제주), 천안(충남), 진천(충북)으로 정하였다. 지역의 역사성, 인구수, 방언 구획 등을 고려하면서도 2022년~2024년 지역어 변이 조사 지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 지점을 정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전년도 사업에서 제주시 내륙 지역인 ‘함덕’을 조사하였으므로 금년도에는 서귀포시의 해안 지역으로 ‘대정읍’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 (3) 조사 과정

5월에서 10월까지, 순차적인 조사 일정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4월에 조사 및 전사 지침을 숙지하고 아무리 늦어도 10월까지는 본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다만, 제보자의 일정이나 조사 지점의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을 일부 조정하기도 하였다.

연구보조원(조사원) 1명이 1~3명의 제보자를 조사하였으며, 지역별로 묶어 연구원들이 결과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연구진의 조사·전사 및 검토 담당 내역을 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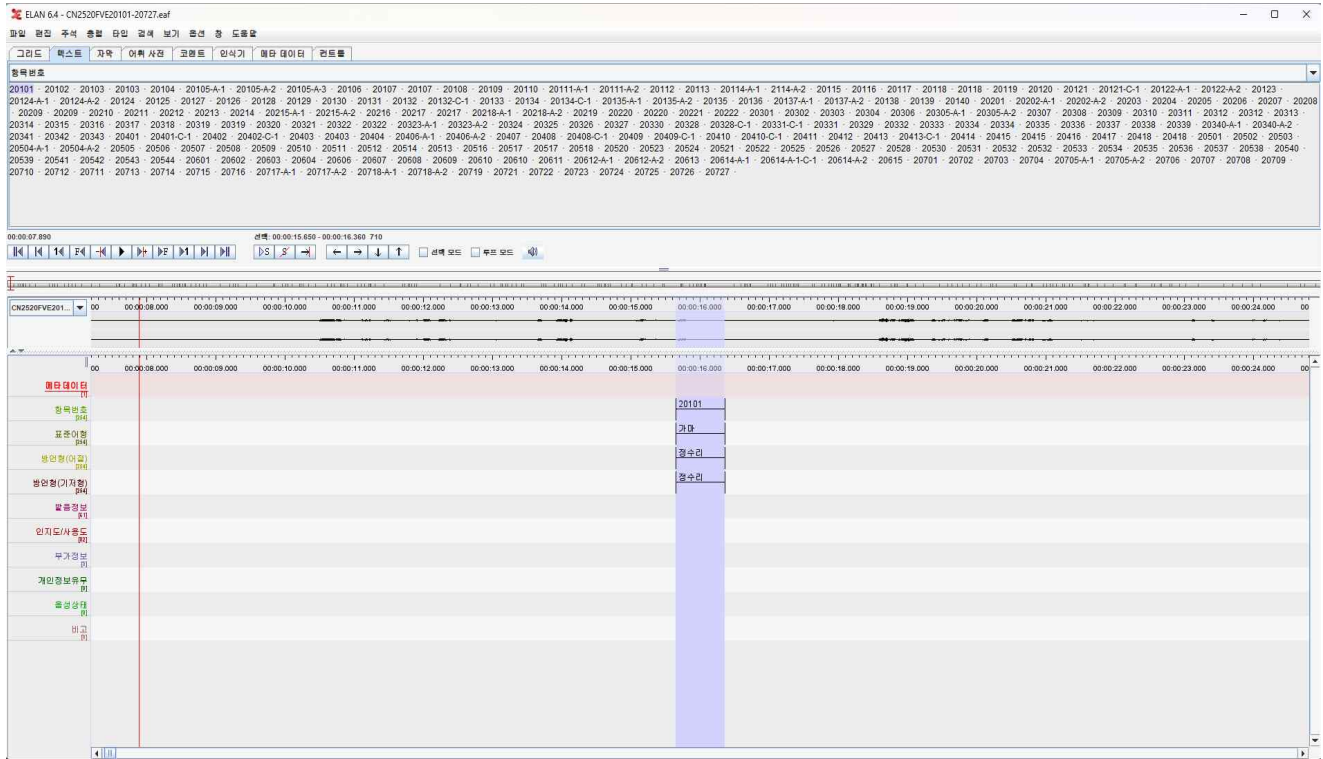
지역	세대	성별	조사원	제보자	검토자
강원도 홍천	20대	남	김유겸	○○○(97년생)	이상신
		여	김유겸	○○○(99년생)	
	50대	남	홍석우	○○○(73년생)	
		여	홍석우	○○○(76년생)	
	70대 이상	남	김유겸	○○○(55년생)	
		여	김주성	○○○(54년생)	
경기도 부천	20대	남	김한중	○○○(02년생)	신우봉
		여	김동은	○○○(01년생)	
	50대	남	허유진	○○○(67년생)	
		여	허유진	○○○(66년생)	
	70대 이상	남	김한중	○○○(43년생)	
		여	김동은	○○○(54년생)	
경상남도 김해	20대	남	배윤정	○○○(97년생)	임석규 김수영
		여	박주성	○○○(96년생)	
	50대	남	김고은	○○○(77년생)	
		여	김고은	○○○(76년생)	
	70대 이상	남	배윤정	○○○(54년생)	
		여	정지인	○○○(52년생)	
경상북도 구미	20대	남	이철희	○○○(03년생)	임석규
		여	김인규	○○○(04년생)	
	50대	남	이재섭	○○○(70년생)	
		여	이재섭	○○○(66년생)	
	70대 이상	남	이철희	○○○(47년생)	
		여	김인규	○○○(43년생)	
전라남도 광양	20대	남	정성경	○○○(01년생)	정인호
		여	김영규	○○○(01년생)	
	50대	남	오청진	○○○(67년생)	
		여	오청진	○○○(69년생)	
	70대 이상	남	정성경	○○○(50년생)	
		여	김영규	○○○(41년생)	
전라북도 정읍	20대	남	최준호	○○○(03년생)	정인호 김수영
		여	윤예진	○○○(01년생)	
	50대	남	백은아	○○○(70년생)	
		여	백은아	○○○(75년생)	
	70대 이상	남	최준호	○○○(48년생)	
		여	윤예진	○○○(58년생)	

제주도 서귀포	20대	남	고은향	○○○(02년생)	신우봉
		-	-	-	
	50대	남	현혜림	○○○(67년생)	
		-	-	-	
70대 이상	-	-	-		
	여	현혜림	○○○(43년생)		
충청남도 천안	20대	남	이현주	○○○(06년생)	이상신 김수영
		여	임홍연	○○○(03년생)	
	50대	남	김민지	○○○(73년생)	
		여	김민지	○○○(73년생)	
	70대 이상	남	이현주	○○○(56년생)	
		여	임홍연	○○○(54년생)	
충청북도 진천	20대	남	박주성	○○○(03년생)	김수영
		여	안미화	○○○(03년생)	
	50대	남	전진호	○○○(70년생)	
		여	전진호	○○○(66년생)	
	70대	남	이용진	○○○(48년생)	
		여	박정순	○○○(55년생)	

### 3.2. 전사 및 표준어 대역

구술발화 항목이든 어휘·표현 항목이든 조사의 결과를 형태음소적으로 전사하  
 되 전사 도구로 엘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어휘·표현 항목의 경우, 어절 단위  
 로 전사하되 해당 방언형의 기저형을 따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쉽  
 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로 재정리하였다. 구술발화의 경우, 전사와 함께  
 표준어 대역을 제공하였다. 이때, 해당 방언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표준어형  
 을 사용하여 직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엘란을 활용한 전사('충남 20대 여성'의 경우)



<그림 1> 엘란을 활용한 어휘·표현 전사

■ 결과 정리 엑셀 파일('충남 20대 여성'의 경우)

일련번호	항목 번호	표제어	방언형 (어절)	방언형 (기저형)	사용도/ 인지도
CN2520FVE20101	20101	가마	정수리	정수리	
CN2520FVE20102	20102	새치	새치	새치	
CN2520FVE20103	20103	흰자위	흰자	흰자	1
CN2520FVE20104	20104	검은자위	검은자	검은자	1
CN2520FVE20105-A-1	20105	눈두덩	눈꺼풀	눈꺼풀	1
CN2520FVE20105-A-2	20105	눈두덩	눈두덩이	눈두덩이	1
CN2520FVE20105-A-3	20105	눈두덩	눈텅이	눈텅이	1
CN2520FVE20106	20106	눈꺼풀	눈꺼풀	눈꺼풀	
CN2520FVE20107	20107	귀칭	귀칭	귀칭	1
CN2520FVE20108	20108	귀지	귀지	귀지	1
CN2520FVE20109	20109	귀이개	귀이개	귀이개	1
CN2520FVE20110	20110	엿듣다	엿듣는다	엿듣다	
CN2520FVE20111-A-1	20111	뺨	뺨	뺨	
CN2520FVE20111-A-2	20111	뺨	뺨	뺨	

## ■ 구술발화 전사 자료 정비 작업 파일(‘충남 70대 여성’의 경우)

번호	내용
2	10100
	조사자(형태음소전사)
3	네, 혹시 전에 살던 그 동네는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조사자(표준어대역)
4	네, 혹시 전에 살던 그 동네는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보자1(형태음소전사)
5	음, 그게 우리 할아버지가 광덕에 사시다가 나오실, 나오셔 가지구서는 온 동네가 인제 고젠데
	제보자(표준어대역)
6	음, 그게 우리 할아버지가 광덕에 사시다가 나오실, 나오셔 가지구서는 온 동네가 인제 고젠데
	제보자1(형태음소전사)
7	거기가 원래는 꽃제래유, 꽃, 꽃을 많이, 다시 인제 동네를 형성하면서
	제보자(표준어대역)
8	거기가 원래는 꽃제래유, 꽃, 꽃을 많이, 다시 인제 동네를 형성하면서
	제보자1(형태음소전사)
9	꽃을 많이 숨어 가지구 꽃제었는데 그게 줄구 줄어서 인제 고제가 됐다. 지금은 (웃음)
	제보자(표준어대역)
10	꽃을 많이 숨어 가지구 꽃제었는데 그게 줄구 줄어서 인제 고제가 됐다. 지금은 (웃음)
	조사자(형태음소전사)
11	아, 그래요?
	조사자(표준어대역)
12	아, 그래요?
	제보자1(형태음소전사)
13	음.
	제보자(표준어대역)
14	음.

<그림 2> 엘란을 활용한 구술 발화 전사

### 3.3. 조사 및 전사 자료 검토

참조를 위해, 지역별로 검토 사례의 일부를 제시하기로 한다.

#### ■ 경북 구미

20대, 50대, 70대 모두 6모음을 구사. ‘ㅡ’와 ‘ㅓ’, ‘캐’와 ‘ㅐ’가 합류된 전형적인 동남방언의 모습을 보여 준다. 다만 구미는 경북 서부 방언에 속하는 지역이기 에 끝에서 저조로 시작하는 어간이라면 두 번째 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기식군 (유리'라, 유리라'여, 유리라캐'여, 유리라카든'가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보자 별로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언어변화의 문제인지 제보자 문제인지 충분히 고찰될 필요가 있다.

- 1) 음성 정밀 조사에 신경을 쓰다 보면 더 중요한 간단한 전사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 2) 우선적으로 전사 지침을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 ① 장음 관련: 여어고→여고(여기고), 지이요→지요(지어요)

- ② 이중모음 관련: 계주→계주
- ③ ‘-어서’ 사용 환경 확대: 학생이었어서→학생이어서
- ④ 내이께→내이께

cf. ‘으니까’를 고려하여 ‘-으니께/응께’

- ⑤ (짐) 실고: 싫/고
- ⑥ 싶으다→시프다
- ⑦ 몇이 모애→몇이 모에(모이+어)
- ⑧ 있고애→있고예

cf, ‘-요’와 같은 중모음의 ‘에’ 계열로 전사

3) 표준어에 대한 숙지도 중요하다. 전사 시간을 줄이는 방법.

- ① 밑에 (있는) 동네(에)서 시집왔지.  
→ 밑의 동네서: 괄호를 최소로 쓰면 시간 절약. ‘동네서’도 표준어
- ② ‘거기’에 대응되는 ‘고기’도 표준어
- ③ ‘침에’도 표준어
- ④ ‘해야 되고’도 표준어이니 굳이 ‘해야 하고’로 바꿀 필요가 없다.
- ⑤ 나뿐이 없어요(서울 사투리)→나밖에 없어요
- ⑥ ‘여기’를 구어적으로 이르는 ‘여’도 표준어
- ⑦ ‘사내’: ‘사냐고 해’의 준말
- ⑧ 적 꾸러 → 부침개 부치러
- ⑨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마는(만은x)
- ⑩ 카대→카데: 그러더라 준말  
cf. ‘작데’ -작더라/작더군 ‘작대’ -작다고 해

- ⑪ 거예요→거예요  
cf. 거여요(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아래에서는 ‘-여요, -예요’)

4) 전사 지침 보완 건의

- 빠저: 빠저x

cf. ‘치고, 처니, 처’, ‘끓어저고, 끓어저이, 끓어저’ 참조

■ 경기 부천

1) 70대

- ① 모음 체계는 8~10개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기, 니’의 발음이 단모음과 이중모음 사이에서 변이적으로 실현됨.

- ② 장음이 존재하나, 70대 남성의 경우 불규칙하게 실현됨.
- ③ ‘니’ 발음은 70대 여성은 ‘ㄴ’로, 남성은 ‘ㄷ’로 실현하는 차이를 보임.
- ④ 고모음화(을:엿어요, 사춘들, 포두), ‘ㄷ’ 활용(몰르구, 달르쵸), 유기음화(유강년, 구카구), 자음군단순화([말따], [국따]) 등 전통적인 음운 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남.
- ⑤ ‘뻗 달, 뻗 번’ 등 ‘ㄷ>ㄱ’ 현상이 공통적으로 관찰됨.
- ⑥ 70대 여성에게서는 움라우트(맬긴다), 모음조화(맏엇어요) 현상도 나타남.

## 2) 50대

- ① 남녀 제보자 모두 ‘ㄱ’와 ‘ㄷ’를 변별하지 않으며, ‘기, 니’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함.
- ② 권역별 방언형 어휘에 대해 ‘무지’로 답한 비율이 높음. 특히 50대 여성은 농기구(21104 쟁기, 21105 호미, 22219 키, 22206 갈퀴 등) 관련 어휘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③ ‘20134 무릅(무릎), 20137 꼬랑내(고린내), 20211 방구(방귀), 21620 계란(달걀), 21507 미싱(재봉틀), 20517 그제(그저께)’ 등 표준어와 다른 어휘나 재구조화된 어형(슌, 슷, 칩, 빔 등)을 다수 사용함.
- ④ 50대 여성의 경우, 구술 발화에서 고모음화(알구 있구)가 나타나며, 보조사 ‘요’가 ‘여’로(좋아했구여) 실현되고, 유성음 사이 ‘ㅎ’ 탈락(이내서, 영와)이 확인됨.

## 3) 20대

- ① 남녀 제보자 모두 7모음 체계로, ‘ㄱ’와 ‘ㄷ’를 변별하지 않음.
- ② ‘기, 니’는 이중모음([wi], [wE])으로 실현하며, 장음이 부재함. ‘니’는 ‘니’로 발음함.
- ③ 고모음화는 ‘하구요, 해 가주구’ 등 일부 문법 요소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남.
- ④ 자음군단순화를 거의 실현하지 않고, 철자에 따른 발음([말따], [짹따], [얹따])을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 충북 진천

#### 1. 조사

-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원활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능숙하게 잘 진행되었음.
- 다만 제보자가 첫 질문에서 방언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간혹 힌트를 너무 빨리 주거나 방언형을 먼저 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그런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빈칸으로 두고 넘어간 후에, 조사를 다 끝내고 다시 조사하는 것을 권장함.

2. 전사

- 전사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 전사가 잘 진행된 것으로 보임.
- 조사자의 말과 겹치는 부분이 포함되어 분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조사 시에는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번 질문하고 응답하는 노력을 들이게 되는데, 노력이 아깝지 않도록 전사 시에도 자연스러운 발화를 골라 분절할 필요가 있음.

3. 제보자 및 지역어형의 특징

1) 70대(남성)와 50대(남성)에 비해 20대(여성) 제보자가 지역어형 대신 표준어형을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지역어형에 대한 ‘사용도/인지도’ 조사에서도 3(인지), 4(무지)로 응답함.

- ① 20109 귀이개: [70대] 귀비개, 귀개 [50대] 귀후비개 [20대] 귀이개(귀후비개·귀개 인지도3)
- ② 20135 복숭아뼈; [70대] 복상씨 [50대] 복상뼈, 복상씨 [20대] 복숭아뼈(복상뼈 인지도3, 복상씨 인지도4)
- ③ 20209 딸꼭질: [70대] 깔뛰기 [50대] 딸꼭질, 피기 [20대] 딸꼭질(피기 인지도4)
- ④ 20212 (방귀를) 꾸다: [70대] 꾸다 [50대] 꾸다 [20대] 꾸다, 끼다
- ⑤ 20418 오디: [70대] 오디, 오돌개 [50대] 오디, 오돌개 [20대] 오디(오돌개 인지도4)

2) 20대(여성) 제보자가 표준어형 대신 다른 지역어형(주로 경상도)이나 외래어형(주로 영어)을 사용하는 경향도 확인됨.

- ① 20303 다슬기: [70대] 다슬기, 올갱이 [50대] 다슬기, 올갱이 [20대] 고동
- ② 20901 (친구를 만났을 때) 안녕: [70대] 밥 먹었느냐 [50대] \* [20대] 하이
- ③ 21203 덤: [70대] 덤 [50대] 덤 [20대] 써비쓰, 사은품  
cf. 일본어 외래어형은 70대에게서 나타남.

21510 방석: [70대] 자부동 [50대] 방석 [20대] 방석

3) 시간 계열어에서 20대(여성) 제보자는 다른 두 제보자에 비해 빈칸이 많음.

- [70대] 그끄저께 - 그저께 - 어제 - 오늘 - 내일 - 모레 - 글떼 - 그글떼
- [50대] 그끄저께 - 전전날·그저께 - 어제 - 오늘 - 내일 - 내일모레 - 글피·글떼 - 그글피
- [20대] \* - 엇그제, 그저께 - 어제 - 오늘 - 내일 - 내일모레 - \* - \*

■ 충남 천안

1. 조사

- 충분한 경험을 쌓은 조사자가 과정을 진행하여, 매우 능숙하고 효율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마이크 등에 익숙하지 않은 70대 제보자의 경우에는 마이크에 무언가가 닿는 소리가 자주 나서 소음이 녹음된 경우가 간혹 있음. 주로 질문하고 대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우가 많아서 방언형을 확인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2. 전사

- 전사를 잘할 수 있게 조사가 진행되어 전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기저형 설정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유기음(‘숲~습, 앞~압’), 중자음(‘숯~술’) 등을 잘 조사했음. 아울러 어간말 자음군(‘굽-, 앓-’)의 자음군 단순화 양상도 파악해 두려고 애쓴 것으로 보임.

3. 제보자 및 지역어형의 특징

- 1) 20대 제보자의 경우: 거의 표준어에 가까움. 따라서 ‘권역별 방언형’의 ‘사용도/인지도’가 거의 ④ ‘무지’임. ‘가부좌’(20133)의 경우, ‘아빠다리’라 하여 새로운 형태를 매우 자연스럽게 쓰고 있음. 반면에 ‘바구미’와 같은 전통적 단어는 거의 모름. ‘무릅, 압’과 같이 평음형을 씀. ‘(닭)벼슬’을 ‘벼’라 하여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굽--+다’를 [굴따]라 함.
- 2) 70대 제보자의 경우: 상대적이기는 하나, 20대에 비해 전통적인 단어를 매우 잘 기억하고 계실 뿐 아니라 과거에 들었던 말도 잘 기억하고 계심. 위의 20대가 ‘아빠다리’라 한 것을 ‘양반다리’라 하여 대비됨. ‘무릅, 압’과 같이 평음형을 쓴다든지 ‘굽--+다’를 [굴따]라 하는 것은 20대와 동일함.

■ 제주 서귀포(대정읍 신평리)

1) 70대

- ① 70대 이상 여성 발화자는 아래아(·) 발음, 복사현상, 어두경음화 등의 전통적인 음성 특징이 나타남.
- ② 대정읍의 지역적 특성(군사 시설 도입 등 초기 근대화)으로 표준어와의 접촉이 일찍 이루어져, 노년층 어휘도 전반적으로 표준화된 경향을 보임.
- ③ ‘나는 잘 안 써, 할망이 쓰는 어휘’라는 구술에서 보이듯, 일부 제주어 어휘는 ‘사용’보다 ‘이해’ 범주로 남아 있음.(예: 20113 녹대쉬엄(구레나룻), 20119 세

(혀), 20120 춤(침), 20121 바끄다(빨다), 20124 저깅이(겨드랑이), 20126 노단손(오른손), 20135 귀마리짱(복사빠), 20329 고달(벧), 20405 베체기(질경이), 20509 ㄱ슬(가을), 21602 곤현밥(더운밥), 21618 골(엿기름), 21620 독새기(달걀))

## 2) 50대

- ① 제주어가 완전히 소실되지 않고 수용·이해 중심의 형태로 일부 유지되고 있음.
- ② 아래아(·) 발음은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ㄱ]로 발음하는 등 표준어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③ 표준어 경향이 강하지만, 생활 환경의 요인으로 ‘20107 귀창(귀청), 21609 조베기(수제비), 21620 독새기(달걀)’ 등 일부 어휘에서 제주어 경향이 유지됨.(단, 70대와 달리 ‘입술, 혀, 침, 빨다 등 대부분은 표준어형을 사용)

## 3) 20대

- ① 전반적으로 표준어와 가까운 음운 및 어휘 체계를 보이고 있음
- ② ‘·’를 포함한 대부분의 어휘를 ‘ㅏ, ㅑ’로 대체하고 있음
- ③ 20대 제보자가 지역어형을 사용하는 어휘(사용)는 20122 콧구멍(콧구녕), 20312 구더기(구데기), 20323 고양이(고녕이), 21105 호미(골깅이) 정도이며, 아는 어휘(인지)는 20124 겨드랑(저깅이), 20139 배꼽(베또롱), 20310 벌레(버랭이), 20316 파리(프리) 등으로 나타남

## ○ 항목별 분석

### 1) 20133 가부좌: 신방언 형성 관련

- 이전 조사에서 ‘가부좌’는 표준어형이 전 세대에 걸쳐 극히 드물게 나타났음.
- 20대를 중심으로 ‘아빠다리’라는 신방언이 확인되었으며, 50대 일부에서도 사용되는 등 세대별 분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었음.
- 2025년 조사에서는 ‘아빠다리’가 50대에서도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지, 또는 20대 내에서 ‘양반다리, 책상다리’ 등 다른 어형을 완전히 대체하며 세력을 굳혔는지 그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 20318 쉬슬다 / 22230 다듬잇돌: 어휘의 사어화 추적

- 이전 조사에서 두 항목 모두 20대 제보자에게서 ‘모름(무지)’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이는 해당 어휘가 가리키는 대상(혹은 개념)이 현대 일상과 멀어지면서 어휘 자체가 세대 단절과 함께 소멸하는 사어화의 전형적인 과정을 보여줌.

- 2025년 조사에도 이러한 사어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다듬잇돌’은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빨래판, 빨랫돌’이라는 신방언이 사용되는 사례를 함께 관찰할 필요가 있음.

### 3) 20303 다슬기

- 2021년-2024년 조사 결과 분석에서 ‘다슬기’는 각 지역의 방언형이 50대까지 유지되고 20대에서 그 세력을 잃어 몇 개의 방언형만 남게 되는 특징을 보임. 예를 들어 경남의 경우 70대와 50대에서 ‘고디/고동’류의 다양한 방언형들이 확인되지만 20대에서는 ‘다슬기, 고동’만 조사되었으며 20대에 남아 있는 방언형은 대체로 ‘고동, 다슬기, 올갱이’인 것으로 확인됨.

이번 조사의 충북 진천 20대 제보자도 ‘올갱이’로 응답한 70대나 50대 제보자와 달리, 경상도 방언형인 ‘고동’으로 응답함. 각 지역의 20대가 이 항목에 대하여 어떤 지역의 방언형으로 응답하는지 살펴본다면 이를 통해 방언 간 영향 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됨.

### 4) 20320 바구미: 전통적 단어의 소실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된 자료를 참고할 때 ‘바구미’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분석됨. 이런 경향이 2025년의 조사에서 더욱 심화될지 확인하고자 함.
- ‘바구미’에 대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7건의 조사 결과 중 ‘바구미’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쌀벌레’형: 30건(16.0%)

② 무응답: 46건(24.6%)

위 둘을 합하면 40%에 이룸. 이런 전통 단어에 대한 무지는 심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올해 조사에서 그 경향을 다시 확인하고자 함. 부차적으로 제주의 ‘남쇄, 남새, 남쉬’에 대한 조사 결과도 같은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5) 20541 나중예: 국어사적 조망의 필요성

- 전체 187개 조사형을 대상으로 할 때, 표준어형과 다른 지역어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다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었음.

- 비음 첨가 관련: ① ‘ㄴ’ 첨가형: 난중예, ② ‘ㅇ’ 첨가형: 낭중예, 냉중예

- 첫 음절 모음의 차이: 내중예, 냉중예

- 반모음화 관련: 내제, 나제, 난제

- 기타: ① n>y: 야중예(충남), ② 비음탈락: 나주예(경북), ③ 불명: 나케(전남), 나코(전남), 낭중께(전북) ④ 제주: 이땅, 이따그네

- 비음 첨가 중 ‘ㄴ’은 ‘ㄷ’ 앞이라는 환경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나 ‘ㅇ’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함. 첫 음절의 모음은 ‘ㅏ’가 많지만 ‘ㅓ’로 된 것도 국어사적 설명이 필요함. 반모음화의 경우, 체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나제’ 등은 ‘나중에>나주에>나췌’와 같은 반모음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됨. ‘n>y’도 국어사적으로 잘 정리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나중에’와는 형태상 무관하지만 특기할 지역어형으로, 제주의 ‘이땅, 이따그네’도 주목할 만함. ‘이따’와 관련되어 있을 듯하나 확실하지 않음.

- 이번 2025년의 조사 결과도 잘 확인하여 새로운 지역어형이 있는지, 기존의 지역어형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표준어화의 경향이 이 경우에도 심화되고 있는지 아울러 확인할 필요가 있음.

6) 22605 다르다/틀리다: 세대별 분화 추적

- 이전 조사에서 ‘틀리다’의 전국적 확산과 ‘달르다’ 등 전통방언형의 축소라는 이중적 변화가 나타남.

- 70대는 ‘틀리다’의 사용 빈도가, 20대는 표준형 ‘다르다’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서 세대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2025년 조사에도 이 세대별 분화가 지속 혹은 심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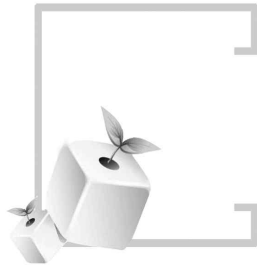
- 아울러 70대 조사에서 ‘틀부다’, ‘달부다’ 형의 사어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7) 22714 내 아내/우리 아내

- 이전 조사에서 ‘우리’보다는 ‘내’쪽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 50대의 변화가 주목할 만함.

- 50대는 물론 70대에서 ‘내 와이프’, ‘내 아내’의 등장도 확대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제 4 장

#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의 결과 분석



## 제4장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의 결과 분석

언어 조사는 크게 질적 조사와 양적 조사로 나뉜다. 질적 조사는 대체로 사례 조사를 통해 언어 변화 또는 변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요소의 영향에 따라 해당 사회에 어떤 변화나 변이들이 출현하는지를 사례별로 추적해 보는 조사를 이른다.

이러한 질적 조사는 해당 사회의 언어 변화나 변이를 직접 발견하고 그것들을 출현하게 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러하기에 이 조사는 언어 현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된다. 나아가 그러한 질적 조사의 결과로서 발굴된 언어 변화나 변이가 사회적으로 의의를 지니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 통계에 의한 양적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은 질적 조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위해 2025년 조사에서는 지역 요소(9개), 세대 요소(3개), 성별 요소(2개)에 따라 각각 제보자를 달리 구하여 전체 51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이번 사업의 결과만을 바탕으로 분석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양적으로 충분치 않으므로 여기서는 이번 2025년도 조사(51제보자)의 결과뿐만 아니라 2021년도(30명), 2022년도(54명), 2023년도(54명) 및 2024년도(49명) 조사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사례별로 분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 해당 결과의 사회적 의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사회적으로 의의 있다고 판단되는 한도 안에서 시험적으로 사용도/인지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본다.

하지만 이번 작업에서 비록 2021년에서 2025년까지의 조사(총 238제보자) 결과를 모두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아직은 양적으로 충분한 사례를 조사하고 그러한 사례들을 기초로 분석 작업을 수행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번 분석 결과도 일단은 부분적·잠정적 사례 조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후에 각 요소(지역, 세대, 성)를 고려한 더 많은 제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이번 사업의 결과를 확인·보완할 필요가 있다.

### 4.1. 어휘·표현에 관한 분석

이번 조사 사업의 어휘·표현 조사 결과물에 대하여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를

항목 번호순으로 나열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0110 엿듣다

‘엿듣다’는 총 221건 조사되었는데, 이 항목에서는 주목할 만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없으나 국어사적으로 의미 있는 몇 형태가 보인다.

■ 어미 ‘-아/어’의 개입: 표준어 ‘엿듣다’가 ‘엿(<엿, 窺)-’과 ‘듣(聞)-’의 어간 합성어(어간, ‘V+V’만으로 형성된 합성어)인 데 반해 제주지역어형(70대) ‘엿아듣다(남, 2022년), 엿아듣다(여, 2023년), 웃아듣다(여, 2021년)’는 ‘엿-’과 어미 ‘-아’의 결합형에 ‘듣-’이 결합한 합성어(V-아+V)이다. 현대국어 표준어의 ‘엿보다’의 중세국어형으로 ‘엿보다’와 함께 ‘여셔보다’가 있었던 것과 같이 ‘엿듣다’의 중세국어형으로 ‘여셔듣다’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두시언해』(8:3)의 ‘여셔드르리라(他人狙)’는 구였을 것으로 추정됨), 이 중세국어 ‘여셔듣다’에 대응되는 것이 위의 제주지역어형 셋일 것이다.

■ ‘..(yΛ)’의 흔적: 제주지역어형 ‘웃아듣다’에서 기원적인 이중모음 ‘..(yΛ)’와 동사 ‘웃(<웃)다’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경남 70대, 남, 2022년>의 ‘얏듣다’에서도 그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고모음화: <충남(대전) 70대, 여, 2021년>의 ‘이웃듣다’는 아마도 ‘엿듣다’의 첫음절이 장음인 것과 관련하여 ‘ㄴ>ㄹ’ 고모음화에 의해 형성된 지역어형일 것이다. 여러 지역에서 ‘어른’이 ‘으른’으로, ‘더럽다’가 ‘드럽다’로, ‘없다’가 ‘웁다’로 나타나는 것과 동계의 현상이다.

### 20112 수염

‘수염’은 총 223건 조사되었는데, 다른 항목과 같이 이 항목의 경우에도 표준어와의 동일성 경향이 확인된다. ‘수염’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163건으로 73.1%에 이른다. 이를 세대별로 나눠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표준어형(‘수염’) 사용 경향
  - 20대: 95.9%(71/74)
  - 50대: 32.9%(25/76)
  - 70대: 50.9%(37/73)

여기서 특이한 점은 50대보다 70대가 더 표준어 사용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수염’이 한자어인 것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명확한 이유를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수염’형을 제외한 ‘수염’의 지역어형은 크게 다음 넷으로 나뉜다.

- ‘섬’: 충남, 충남(대전)
- ‘셈’형(셈, 세미, 새미, 샘지, 셈지, 셈지): 경북, 경남
- ‘시엄’형(시엄, 시엄): 경북, 경남
- ‘쉬엄’형(쉬엄, 쉬엄): 전북, 전남, 제주

재미있는 것은 위의 지역어형이 모두 50대의 것이라는 점인데, 앞에서 50대가 70대보다 지역어형을 더 많이 쓰는 점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119 혀

‘혀’는 총 204건 조사되었는데, 이 중 표준어 ‘혀’와 ‘혓바닥’만 있는 경우는 140건으로서(표준어형과 지역어형이 함께 응답된 경우에는 지역어형이 쓰이는 것으로 간주함) 68.6%에 달한다. 이 140건 중 20대가 70건, 즉 절반이고 나머지 70건 중 45건은 50대, 25건은 70대에서 보인다. 세대별 표준어 사용 경향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참고로 20대에서 표준어형을 쓰지 않는 경우는 ‘세’(제주, 2021년)의 경우가 유일하다.

- 표준어형(‘혀, 혓바닥’) 사용 경향
  - 20대: 98.6%(70/71)
  - 50대: 64.3%(45/70)
  - 70대: 39.7%(25/63)

140건 중 남성이 75건이고 여성이 65건으로 성별 차이는 없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2021년과 2025년 사이에, 50대의 경우, 6건에서 9건으로, 70대의 경우 4건에서 6건으로 표준어형의 사용이 늘기는 했으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서, 세, 켜, 셋바닥, 셋바닥, 셋바닥’ 등의 구개음화형을 쓰는 경우는 56건에 이르고, ‘혜, 세, 세’ 등 ‘ㄱ>ㄱ’ 변화와 관련된 경우도 56건에 이른다. 특이한 형태로 ‘셋바닥’(충남 대전 70대 여, 2021년, 강원 70대 여, 2024년), 그리고 ‘ㄱ>

개>ㅣ’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 싯바닥’(경북 70대 남, 2025년)이 출현한다.

### 20133 가부좌

‘가부좌’가 “한쪽 발을 반대쪽 넓적다리 위에 놓고 다른 한쪽 발을 반대쪽 넓적다리 위에 놓고 앉는 자세”를 뜻함에 반해 ‘양반다리(=책상다리)’는 “한쪽 다리를 오그리고 다른 쪽 다리는 그 위에 포개어 엮고 앉은 자세”를 뜻하여 두 단어의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없지만 일상에서는 동의어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조사에서도 표준어형인 이 셋이 단독으로 혹은 둘 이상이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총 198건의 조사에서 이 셋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된 경우가 134건(67.7%)이다. 본 항목에서는 신방언의 출현이 주목되는데 다음 두 가지 경우가 그렇다.

- 아빠다리: 총 50건의 출현을 보인다. 이는 다른 형태와의 중복 출현을 포함한 건수인데, ‘아빠다리’ 단독으로는 33건의 출현을 보인다. 세대별로 보면, 20대가 43건이어서 86%를 차지하고 있고 50대가 6건 12%, 70대가 1건 2%를 차지하고 있다. 20대만의 경우에는 총 65건 중 43건 66.2%를 차지하고 있다.
- 나비다리(경남 20대 여, 2023년): 단지 한 건만 보이나 형태적 유사성, 성평등 의식, 유아어성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많이 들을 수 있을 형태로 기대된다.

‘행감(행감, 전남 50대 이상), 팽뎡이(경남·경북 50대 이상), 올방개(올방구, 올방지, 강원 50대 이상)’ 등의 지역어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두 16건에 그칠 뿐이나 70대(10건)에 집중되어 있어 소멸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 20320 바구미

‘바구미’는 전통적 단어의 소실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바구미’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총 230건의 조사 결과 중 ‘바구미’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총 154건, 67%에 달한다(‘무응답’에는 다른 이유도 없지 않을 것임).

- ‘바구미’ 외(복수 응답 포함): 60건(26.1%)

- 무응답: 94건(40.9%)

‘바구미’ 외 형태로는 ‘남쉬, 남새’(제주)가 포함되어 있다. 이 둘은 제주의 전통적인 지역어형일 것이므로 제외하는 편이 바람직하겠지만 ‘바구미’의 관점에서 포함하였다. 특히 소수에 불과하므로 통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쌀벌레’라는 단독 응답(41건)이 있어 직관적으로 이해와 발화가 가능한 쪽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구미’와 같은 전통 단어에 대한 무지는 심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번 조사에서 그 경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쌀벌레’의 세대 분포(20대: 26건, 50대: 13건, 70대: 2건)가 참조된다.

20대의 경우 총 76건 중 무응답이 35건이기 때문에 위의 26건은 41건 중 26건으로 63.4%에 이른다. 50대의 경우 총 79건 중 무응답이 12건이기 때문에 위의 13건은 67건 중 13건으로 19.4%에 불과하다. 전통지역형의 급속한 소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구미’는 이형태가 많다. ‘바귀미, 바기미, 바거미, 바그미, 바괴미, 바개미, 바게미, 바구니, 바감지, 빠구미, 물바구니, 쌀바구니, 쌀바구미, 팻바구미, 벼물바구미’. 부차적이지만, 앞에서 말한 제주의 ‘남새, 남쉬’는 ‘바구미’와의 이질성이 크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0401 꽃, 20409 숯, 20413 옷

《한국방언자료집》에 따르면 ‘꽃’, ‘숯’, ‘옷’과 같이 ‘ㅈ’을 말음으로 갖는 명사들은 강원·경상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 방언에서는 ‘ㅈ’ 말음 또는 ‘ㅌ’ 말음으로 실현되고 충남·전라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 방언에서는 ‘ㅅ’ 말음으로 실현되는 경향이 강하다. 70대, 50대, 20대의 조사 결과를 이와 비교하여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70대

- 꽃: ‘ㅅ’ 말음 즉 ‘꽃’이 우세한 지역은 경기·전라·제주이고, 강원·충청에서는 ‘꽃’과 ‘꽃’이 비슷한 세력을 보이며 공존하고 있다. 경상은 ‘꽃’이 우세하고 ‘꼰’으로 실현되는 지역도 각각 2군데씩 확인된다.

- 숯: 강원·경기·전라·제주·충남에서 ‘숯’이 우세하다. 경남에서는 ‘숯’이 우세하고(4개 지역), 경북에서는 ‘수깅’이 우세하다(5개 지역). 충북에서는 ‘숯’과 ‘숯’이 비슷한 세력을 보인다.

• 옷: ‘ㅅ’ 발음 즉 ‘옷’이 우세한 곳은 강원·경기·전라·제주·충청이며 경상에서는 ‘읏’이 우세하고 경북에서는 ‘읏’ 또한 조사되었다(1개 지역).

→ ‘ㅅ’ 발음으로 실현되는 예가 경기·전라·충남·제주에 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방언자료집》에서보다 ‘ㅅ’ 발음의 분포가 더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 ■ 50대

• 꽃: ‘ㅅ’ 발음 즉 ‘꽃’이 우세한 곳은 경기·전라·충남·제주로 이 지역의 전통적인 지역방언형을 실현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고장’(1개 지역) 또한 보인다.

• 숯: 경기·경북·전남에서 ‘ㅅ’ 발음이 우세하고 그 외에는 ‘숯’과 ‘읏’이 공존하거나 ‘숯’이 더 우세하다. 또한 강원(1개 지역), 경북(1개 지역), 전남(2개 지역), 전북(1개 지역)에서 ‘숯’도 나타난다.

• 옷: 강원·경북·전라·제주·충청에서 ‘ㅅ’ 발음 즉 ‘옷’이 우세하며 경남에서는 ‘읏’이 우세하고 경기에서는 ‘읏’과 ‘옷’이 공존한다. 또한 ‘ㅌ’ 발음인 ‘읏’은 강원·경남·경북에서도 확인되었다.

→ 이러한 50대의 조사 결과는 70대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한편 《한국방언자료집》이나 70대의 조사 결과에서는 경상 방언의 특징으로 여겨졌던 ‘ㅌ’ 발음으로의 실현이 강원·전라 등에서도 일부나마 확인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 ■ 20대

• 숯: ‘숯’과 ‘읏’이 공존하는 지역은 경남·충청이며, 경북 2개 지역과 전북 1개 지역에서는 ‘ㅌ’ 발음인 ‘숯’으로도 조사되었다.

• 옷: ‘읏’과 ‘옷’이 공존하는 지역은 경기·경상·제주였다.

→ 전국의 20대는 본래의 지역 방언의 특징과 관계없이, 대체로 ‘ㅌ’ 발음으로 조사되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ㅌ’ 발음으로 갖는 ‘꽃’, ‘숯’, ‘읏’은 20대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대체로 ‘ㅌ’ 발음으로 실현하는 양상이 강하고, 50대와 70대의 경우에는 본래의 전통 지역방언형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서부 방언을 중심으로 ‘ㅅ’ 발음으로의 실현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50대·70대에서는 제주방언의 ‘고장(꽃)’, 경북·경남의 ‘수깅(숯)’ 또한 조사되었는데 전통방언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20대·50대에서는 ‘ㅌ’ 발음으로의 실현이 경상 방언뿐 아니라 강원·전라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20415 벼

‘벼’의 방언형은 크게 ‘벼’계(벼, 베)와 ‘나락’(나락, 나록)계로 나뉜다. 세대별로 나누어 70대, 50대, 20대의 조사 결과를 각각 살펴보겠다.

### ■ 70대

‘벼’로 조사된 지역은 14개(경기 5, 충남 2, 충북 2, 강원 5)이며 ‘베’로 조사된 지역은 4개(강원 2, 충북 1, 충남 1), ‘벼’와 ‘베’가 모두 조사된 지역은 8개(경기 3, 충북 1, 충남 2, 강원 2)로 확인되었다. 즉 ‘벼’계의 방언형들은 주로 경기·충청·강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방언에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락’의 방언형에는 ‘나락, 나록’이 있는데 ‘나락’으로 조사된 지역은 13개(경남 2, 경북 2, 전남 7, 전북 2), ‘나록’으로 조사된 지역은 제주(3개 지역)로 주로 남부방언에 분포한다. ‘나락’과 ‘벼/베’가 함께 조사된 지역은 20개(경남 6, 경북 3, 전남 2, 전북 4, 충남 3, 충북 2)인데 역시 충남 이하의 남부방언에서 주로 확인된다.

### ■ 50대

‘벼’로 조사된 지역은 22개(강원 6, 경기 6, 전남 2, 전북 1, 제주 1, 충남 3, 충북 3)이고 ‘벼, 베’가 함께 조사된 지역은 6개(충북 1, 충남 2, 경기 2, 강원 1)이다. 중부방언을 중심으로 ‘벼’계 방언형들이 확인된다는 점은 동일하나 전남·전북 등 남부방언의 경우에도 일부 ‘벼’계 방언형이 조사된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베’만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지역은 없었으며 모두 ‘벼’와 ‘베’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나락’의 경우 10개 지역(경북 1, 전북 4, 전남 4, 경남 1)에서 조사되었으며 ‘나록’은 제주 1개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나락’과 ‘벼’계 방언형들이 함께 조사된 지역은 12개 지역(경북 3, 경남 3, 전남 2, 전북 1, 제주 1, 충북 1, 충남 1)으로, 남부 방언 중심인 것은 70대와 동일하다.

### ■ 20대

‘벼’로 조사된 지역은 56개(강원 9, 경기 6, 경남 4, 경북 3, 전남 8, 전북 7, 제주 3, 충남 9, 충북 7)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벼, 베’가 함께 조사된 지역은 5개(경기 2, 충남 1, 충북 2)이다. ‘나락’만이 조사된 지역은 없으며 ‘벼’와 ‘나락’이 함께 조사된 지역은 7개로 경북 3, 경남 3, 전남 1개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70대의 경우, ‘벼’계 방언형이 실현되는 지역의 비율은 41.9%(62개 중 26개), ‘나락’계 방언형이 실현되는 지역의 비율은 25.8%(62개 중 16개), 두 방언형이 공존하는 지역의 비율은 32.3%(62개 중 20개)로 나타났다. ‘벼’계 방언형의 실현 비율이 더 높으나 중부방언을 중심으로 분포한다는 점, ‘나락’계 방언형은 남부 방언에서 주로 확인된다는 것은 전통적인 방언 분포와도 일치한다.

50대의 경우 ‘벼’계 방언형 실현 비율은 54.9%(51개 중 28개), ‘나락’계 방언형 실현 비율은 21.6%(51개 중 11개), 두 방언형이 공존하는 비율은 23.5%(51개 중 12개)로 나타났다. 이처럼 ‘벼’로 실현되는 지역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남부방언에서도 ‘벼’가 조사되었다는 점은 중부방언형인 ‘벼’계 방언형이 남부방언에까지 침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벼’계 방언형의 침투는 20대에 가면 더 확산되어, ‘벼’계 방언형 실현 비율이 89.7%(68개 중 61개)로 매우 높으며, ‘벼’와 ‘나락’이 공존하는 지역의 비율이 10.3%(68개 중 7개)에 그쳐, ‘나락’의 사용이 급속도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0514 글피

‘글피’의 방언형에는 크게 세 가지 계열 즉 ‘글피’계(글피, 글페 등), ‘고페’계(고페, 구페, 꾸페 등), ‘모레’계(그모레, 저모레, 내모레 등)가 있다. 세대별로 나누어 70대, 50대, 20대의 조사 결과를 각각 살펴보겠다.

### ■ 70대

- ‘글피’계(글피, 글페)가 조사된 지역은 총 50개로(강원 8, 경기 8, 경남 1, 경북 1, 전북 6, 전남 4, 제주 6, 충남 9, 충북 7) 경상도를 제외한 전역에서 확인된다.

- ‘고페’계(고페, 꾸페)는 전남 3개 지역, 전북 1개 지역에서 조사되었다.

- ‘모레’계 방언형에는 ‘그모레, 내모레, 저모레’ 등이 있는데,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12개 지역(경남 4, 경북 8)에서 확인되었다.

- ‘글피, 저모레’가 함께 조사된 지역은 경북 1군데, ‘글피, 내모레’가 함께 조사된 지역은 경남 1군데이며, ‘모레’와 ‘고페’가 결합되어 형성된 방언형인 ‘모레고페’는 경남 2개 지역에서 조사되었다.

→ 경상도에서 ‘모레’계 방언형들이, 전라도에서 ‘고페’계 방언형들이 나타나는 점과 경남의 일부 지역에서 ‘모레고페’가 확인되는 점이 전통적인 방언 특징과 유사하다.

## ■ 50대

- ‘글피’계 방언형이 전국 52개 지역에서 보이는데(강원 8, 경기 9, 경남 3, 전남 5, 전북 7, 제주 5, 충남 9, 충북 6), 경북을 제외한 전역에서 확인된다.
  - ‘고폐’계 방언형(고폐, 구폐)은 ‘고폐’가 전남 1지역, ‘구폐’가 전북 1지역에서 보인다.
  - ‘모레’계 방언형(그모레, 저모레, 내모레)은 7개 지역(경북 5, 경남 2)에서 조사되었다.
  - ‘글피, 고폐’가 함께 조사된 지역은 전남 2개 지역, ‘글피, 내모레’가 함께 조사된 지역은 경남 1개 지역, ‘글피, 저모레’가 함께 조사된 지역은 경북 1개 지역이었으며, 70대에서 보인 ‘모레구폐’는 경남 1개 지역에서 ‘고폐, 모레고폐, 저모레’가 함께 조사되었다.
- ‘글피’계 방언형에 비하여 ‘모레’, ‘고폐’계 방언형의 세력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각각 경상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확인되는 것은 70대와 유사하다.

## ■ 20대

- ‘글피’계 방언형(글피, 글폐)은 총 32개 지역(강원 7, 경기 8, 경북 2, 전남 1, 전북 3, 제주 3, 충남 5, 충북 3)에서 확인되었다.
  - ‘고폐’계 방언형은 전남 1개 지역에서만 확인되었다.
  - ‘모레’계 방언형은 13개 지역에서 나타났는데 70대, 50대에서 보였던 ‘저모레, 그모레’와 같은 방언형은 확인되지 않았고 ‘내모레, 널모레, 내일모레’만이 경남 6, 경북 3, 전남 1, 충남 2, 충북 1개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모레’로 응답한 경우도 전북 1개 지역에서 조사되었다.
  - ‘글피, 내모리’가 함께 나타난 지역은 경남 1개 지역, ‘내일모레/널모레, 글피/글폐’가 함께 나타난 지역은 5개 지역(전북 1, 전남 1, 충북 1, 경북 2)이다.
- 지역적 특징 즉 ‘고폐’계 방언형은 전라도, ‘모레’계 방언형은 경상도에서 확인된다는 특징은 70대, 50대와 유사하나, ‘고폐’ 또는 ‘모레’계의 방언형들의 종류와 수가 70대, 50대와 비교하여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20902 여기요/저기요

다음은 ‘음식점의 ‘장년 여성’에 대한 2024년도의 분석결과이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요’와 ‘저기요’의 세대별 쓰임이다. 70대 이상은 ‘여기요’가 15%(8/53), ‘저기요’가 6%(3/53)이고 50대는 ‘여기요’가 15%(13/86), ‘저기요’가

14%(12/86)이고 20대는 ‘여기요’가 5%(4/81), ‘저기요’가 22%(18/81)다. 두 어형을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는 50대를 기점으로 70대 이상은 ‘여기요’를 그리고 20대는 ‘저기요’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음식점의 ‘장년 여성’에 대한 호칭어가 ‘여기요’에서 ‘저기요’로 바뀌어 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준다.

이를 바탕으로 ‘여기요/저기요’만으로 대답하게 유도한 이 항목에 대한 통계량을 아래에 제시한다.

세대	성별	호칭	count
20	남	저기요	30
20	남	여기요	10
20	남	사장님	5
20	남	이모	1
20	여	저기요	26
20	여	여기요	12
20	여	사장님	3
20	여	이모	1
20	여	저희요	1
50	남	여기요	29
50	남	저기요	8
50	남	사장님	3
50	남	야	1
50	남	예	1
50	여	여기요	31
50	여	저기요	16
50	여	사장님	3
50	여	여	1
50	여	여기예	1
50	여	이모	1
50	여	저	1
70	남	여기요	25
70	남	사장님	4
70	남	저기요	4
70	남	어이	2
70	남	계세요	1
70	남	여보세요	1
70	여	여기요	21
70	여	사장님	3
70	여	여보세요	3
70	여	예	2

70	여	저기요	2
70	여	아줌마	1
70	여	여부세요	1
70	여	와보소	1
70	여	이거 봐요	1

20대는 ‘여기요’와 ‘저기요’의 비율이 ‘10:30(남성)’, ‘12:26(여성)’으로 나타나서 다른 연령층과 대비된다. 50대는 ‘29:8(남성)’, ‘31:16(여성)’ 70대는 ‘25:4(남성)’, ‘21:2(여성)’과 같이 ‘저기요’보다는 ‘여기요’가 선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50대는 여성층에서의 ‘저기요’ 발화 비율이 남성층의 두 배라는 점이 흥미롭다. ‘저기요’의 실현 비율을 높이는 단초가 된 집단일 수도 있다. 다만 ‘저기요’를 여성어로 볼 수 있을지는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보다는 ‘저기/저’가 직접 호출하는 데에 따른 배려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 21102 텃밭

‘빳’과 마찬가지로 ‘텃밭’도 어간 말음 ‘ㅅ’으로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항목이다. 20대에서는 ‘텃밭(27회)’이 ‘텃밭(39회)’에 비해 열세이며, 그 열세는 특히 20대 남성층에서 두드러진다. 심지어 20대에서는 ‘정원(1회)’과 ‘화단(1회)’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50대에서는 마찰음화 빈도(50회)가 정점에 이르고 70대는 50대처럼 압도적이지는 않다. 그러므로 ‘밭>빳>빳’으로의 마찰음화는 50대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20대, 특히 여성층에서는 교육의 영향으로 ‘밭’으로 실현되는 빈도(15회 cf. 남: 12회)가 50대(10회 cf. 남: 11회)에 비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 21111 흥년

‘ㄱ’구개음화 어형(짐, 짐치)과는 달리 ‘ㅎ’구개음화 어형은 20대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항목 ‘형/성’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흥년’을 20대에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20대: 0회, 50대: 7회). 다만 70대 여성 제보자에게서 전통방언형 ‘흥년’(17회 cf. 남: 9회)이 좀 더 잘 드러난다는 점도 언급할 만하다.

## 21204 빳

15세기의 어형 ‘빳’을 고려할 때 ‘뵤’, ‘뵤’ 등과는 다른 변화를 보이는 것이 특이하다. ‘빳’의 방언형의 경우 20대 남성층에서는 빳(16회), 빳(15회), 빳(13회) 세

어형의 빈도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20대 여성층에서는 표준어 ‘빛’으로 발화하는 제보자가 많고 상대적으로 ‘빚’으로 발화하는 제보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20대 여성들의 표준어 지향과도 관계되는 듯하다.

50대 남성층에서는 ‘빚’으로의 발화가 압도적이라 할 만하다. ‘빚:빚:빚’이 ‘33:8:5’로 나타난다. 50대 여성은 ‘39:8:3’으로 확인된다. 50대 여성에게서 ‘빚’이 1회 출현하는데 이것은 50대 여성이 50대 남성에 비해 전통방언형을 보다 잘 간직할 수 있다는 것과 관계된다. 일반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70대 남성의 경우는 ‘빚:빚:빚’이 ‘23:10:2’, 70대 여성의 경우는 ‘35:8:2’의 비율을 보인다. 70대 여성에게서는 ‘빚(4회)’, ‘빚(4회)’이 8회 등장하고 남성에게서도 ‘빚(2회)’이 2회 등장하는데 이는 20대와 큰 차이를 보인다.

## 21501 가위

‘가위’는 여러 가지 음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단어이다. 《鷄林類事》의 ‘剪刀曰割子蓋(\*즈개)’, 15세기의 ‘즈애>즈새’는 현대 방언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0대에서는 표준어형 ‘가위’가 74회, 50대에서는 67회 나타나고 있는데 횟수로만 따지면 큰 차이가 없다. 빈도로 따지면 20대는 81%(74/91회), 50대는 54%(67/125회), 70대는 30%(35회/115회)로 확인된다. 다만 50대와 70대에서 ‘가위’의 실현 빈도가 낮은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는데 그 균형을 맞추는 방언형으로 ‘가이’를 들 수 있다. 50대에서는 이 ‘가이’가 12회 확인되고, 70대에서는 27회 확인된다. 이들은 20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가이’를 ‘가위’에 포함하여 실현 빈도를 보이면 81%(20대), 50대(63%), 70대(54%)로 확인된다.

경북에서는 20대 연령층에서도 ‘가시개’가 확인된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이니 방언형도 보전이 쉬워지는 것으로 보인다. 50대 이상에서 ‘가시개~까시개류’는 경북에서 주로 실현되고 일부는 전남에서도 확인된다. 24년 조사에서는 70대 전북 화자에게서도 ‘가시개’가 확인된 바 있다.

특별한 점은 전 세대에 걸쳐 ‘가위’로의 실현 빈도가 높으나 유독 70대 여성층에서는 ‘가이’의 빈도가 ‘가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일찌감치 ‘가새’류보다는 ‘가위’류로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반모음 w가 탈락한 형태로 발화했음을 알 수 있다.

젊은층에서도 이전 시기의 방언형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옛기름’, ‘부지깽이’류와는 표준어 확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 본다. 이는 ‘나물

(21904)'의 방언형 '너물', '노물'이 20대에서도 확인된다는 점, '다리미(21508)'의 방언형, '대리미', '다리비', '대리비'가 20대에서 확인되는 점과 관련 있어 보인다. 즉 이런 단어들은 일상생활에서 회자되는 단어로 보이기 때문이다. 20대에서 전통방언형이 0% 확인되는 '흉년' 유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수의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큰 빈도로 활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1506 베개

15세기의 '벼개'를 고려할 때 70대 남성의 '베개:벼개'의 비율이 15:17로 나타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반대 방향의 변화는 '멤소>뎡소'에서 확인되는데 이런 역방향의 변화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베개>벼개'의 역변화는 상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20대에서 '베개'는 82%(65회/79회)를 차지하고 있다. 세대가 내려올수록 '베개'의 비율이 높아지나 20대에서도 '베개', '비개'가 각각 11회, 3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무'처럼 일상에서의 회자되는 횟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통방언형의 보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 21614 김, 21704 김치

20대에서는 '김' 외에 다른 방언형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짐'이 1회(98.7%) 나타날 뿐이다. ㄱ 구개음화형은 20대에서는 1회, 50대에서는 6회/88회, 70대에서는 7회/83회 나타난다. 50대 이상에서조차 10% 미만의 빈도를 보인다.

'ㄱ'구개음화 현상의 실현 빈도를 '김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50대 남성은 3회/42회, 50대 여성은 4회/45, 70대 남성은 5회/41회, 70대 여성은 7회/41회 발화한다.

'김'보다는 다소 높은 10%를 웃도는 빈도를 보인다. 'ㄱ'구개음화 어형은 젊은 층에게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21906 무

'무'는 20대에서부터 전통적 방언형이 확인된다. 15세기 어형 '무수/뭉이라'를 고려하면 무시, 무수, 무꾸 등의 방언형을 설명할 수 있다.

20대에서도 '무시', '무수'는 각각 9회, 5회 실현되고 있다. 표준어형과 대립되면서 그래도 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50대에 이르면 '무시', '무수', '무꾸'계가 '무'의 빈도를 넘어선다. 70대에서는 그 빈도가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20대에서 표준어 ‘무’ 실현은 79%이다(63/80회). 80퍼센트 이하로 떨어진 것은 전통방언형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단어는 흔치 않다. 20대에서 ‘배개’는 82%(65/79회)의 빈도를 보인다. ‘가위’는 81퍼센트, ‘김’과 ‘김치’가 95%를 상회하는 것과는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그 구개음화형은 20대에게 익숙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 20806 음식점 장년 여성(호칭)

20대는 ‘이모’, ‘여기요/저기요’에 비해 ‘사장님(35회)’이라 부르는 것을 선호하고 50대는 ‘이모’, ‘여기요/저기요’라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 다만 50대는 성별에서 차이를 보인다. 50대 남성은 ‘이모’와 ‘여기/저기’ 계열을 비슷한 빈도로 발화하고(15:14), 50대 여성은 ‘여기’ 계열을 선호한다(10:17). 20대가 선호하는 ‘사장님’은 50대에서는 13회 정도에 머문다. 70대 여성층에서는 ‘이모’와 ‘여기요’, ‘사장님’의 비율이 ‘10:7:4’로 나타나고 70대 남성층에서는 이들보다 ‘아줌마/아주머니(7회)’를 선호한다.

#### 20807 음식점 청년 여성(호칭)

20대에서는 ‘저기요’를 가장 선호하고 ‘사장님’이 그다음으로 확인된다. 이는 제보자들이 상대를 장년층과 청년층으로 구분하는 방식인데 장년층에게는 ‘사장님’이라 부르는 것이 편하고 비슷한 또래 종업원에게는 ‘저기요’라 부르는 것이 편한 듯하다. 50대 남성층에서는 ‘아가씨’가 ‘여기요’에 앞서는 것으로 확인된다(17:9). 다만 여성층에서는 ‘아가씨’가 열세다(7:13). 하지만 70대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아가씨’가 압도적이다.

#### 20808 음식점 청년 남성(호칭)

20대 남성은 ‘사장님’과 ‘저기요/여기요’를 비슷한 빈도로 사용하지만(15:18) 여성은 ‘저기요/여기요’가 ‘사장님’을 압도한다(24:9). 70대에서는 ‘총각’의 발화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삼촌은 70대 여성만이 사용한다. 50대에서는 ‘여기요/저기요’가 ‘총각/학생/삼촌’과 비슷한 빈도로 실현된다.

#### 21006 진지

20대도 ‘진지’, ‘성함’ 정도의 높임말은 잘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70대 여성의 경우 ‘진지:식사’의 비율이 ‘19:3’인바 이에 비해 50대 여성은 ‘20:4’, 20대 여성은 ‘16:8’의 비율을 보이는 것이 특이하다. 반면 남성에게서는 20대나 70대, 50대에서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각 세대는 공히 15:6 정도의 비율이 확인된다. 다만 조사 시 첫 번째 응답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야 할 듯하다.

‘돌아가시다’는 20대에서는 ‘여의다’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빈도가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지만 70대에는 ‘여의다’가 2회 나타나고, 20대에는 5회, 50대에는 6회 나타난다. ‘돌아가시다~여의다’처럼 수의성을 보이지 않고 단독으로 ‘여의다’만 발화하는 것으로 보고된 지역이 충청도라는 점이 특징이다.

## 22114 주방

표준어에서 ‘주방’은 ‘부엌’과 유의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021년부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주방’과 ‘부엌’이 지역별로, 혹은 세대별로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방’ 또는 ‘부엌’ 중에 어느 한 어형만을 사용하기도 하고 두 어형이 쌍형어로서 공존하기도 한다. 물론 ‘부엌’의 어간말 자음 ‘ㄱ’은 ‘ㄱ’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더 잦다. 한편 경상 지역에서는 ‘정지’가 ‘주방/부엌’과 더불어 쌍형어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올해 조사의 사용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주방’의 사용 지역이 가장 넓은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하다.

- 부엌: 경기(50대 남), 충북(50대 여), 전남(20·50·70대 여),  
경남(20대 여, 70대 남)
- 주방/부엌: 충북(70대 남), 충남(50대 남), 경북(20·50대 여), 경남(50대)
- 주방/부엌/정지: 경북(50대 남), 경남(70대 여)
- 주방: 나머지

## 22409 목말

표준어형 ‘목말(=남의 어깨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는 일)’이 거의 70대 충청도 화자 정도에서만 발견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목마(=나무로 말의 모양을 깎아 만든 물건)’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그 외 지역어형으로 ‘무등’을 사용하는 지역(경기·강원·충청·전라)과 ‘혹말(경상), 무동, 동대(경북), 정기고개(제주)’등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나뉜다.

## 22508 튀김/덴뿌라

‘덴뿌라’는 ‘튀김’과 유의어를 형성하고 있는 비표준어로서 일본어 기원의 단어이다. 이 ‘덴뿌라’가 대부분 ‘덴뿌라’라는 방언형으로 실현되는데 이때 ‘덴뿌라’는 ‘튀김’과 쌍형어로 공존하고 있다. 물론 ‘튀김’은 반모음이 탈락한 ‘티김’으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덴뿌라’의 쓰임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향이 2023년부터의 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일본어 기원의 단어를 배격하려는 사회적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다만 ‘덴뿌라’의 사용은 지역별로, 개인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2023년부터의 ‘튀김’과 ‘덴뿌라’가 쌍형어로 공존하고 있는 지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023년: 경기(20·70대 여), 전남(70대 여), 경북(20·50·70대 남)
- 2024년: 강원(50대 여), 충남(20대 남)
- 2025년: 경기(70대 여), 강원(70대 남), 전남(70대 남),  
          경북(20대 남, 50대 남·여, 70대 여), 경남(50대 남, 70대 여)

## 22601 (이쪽으로) 다오/주라

표준어의 ‘달다’는 해라체 명령법 활용형이 ‘다오’인 불완전 동사이다. 이 ‘다오’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이와 어원을 함께하는 어형들뿐만 아니라 ‘주다’의 활용형들도 쓰이고 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주다’ 활용형의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처럼 불완전 동사의 사용을 줄이는 변화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주다’의 명령법 활용형이 사용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즉 해라체 명령법의 활용형으로 ‘-어라’가 결합된 ‘쥐라’보다는 ‘-으라’가 결합된 ‘주라’의 쓰임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쥐라’가 쓰이는 지역도 있으며 해체 어미 ‘-어’가 결합하여 형성된 ‘쥐’의 사용도 꽤 활발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쥐라, 쥐’는 이중모음 ‘거’가 ‘고’로 축약되는 변화를 거쳐 ‘조라, 조’로 실현되기도 한다. 올해 조사된 방언형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달다’계
  - ① 다오: 경기(70대 여), 충남(70대 남·여)
  - ② 도: 경북(20·50·70대 여, 50대 여), 경남(20대 남, 50대 여)
  - ③ 도고/도가: 경북(50대 남, 70대 여), 경남(70대 여)

④ 도라: 전남(70대 여)

■ ‘주다’계

① 쥐라/조라: 경기(50대 남), 전남(50대 남), 경북(50대 남)

② 쥐/조: 강원(20대·50대 여, 20대·70대 남), 충남(50대), 경북(20대·50대·70대 여), 경남(50대 남)

③ 주라: 경기(20대·50대·70대 여, 70대 남), 강원(70대 여), 충남(20대, 70대 여), 전북(50대), 전남(20대, 50대 여, 70대 남), 경북(20대·50대·70대 남), 경남(70대)

## 22706 (밭) 씻다/뒹다

‘물로 밭의 때나 더러운 것을 없게 하다’의 의미를 가진 방언형은 크게 ‘씻다’와 ‘뒹다’로 실현된다. ‘씻다’ 또는 ‘뒹다’가 각각 단독형으로 쓰일 수도 있고 ‘씻다/뒹다’의 쌍형어로서 공존할 수도 있다. 이때 ‘씻다’는 지역에 따라 ‘씻다/씻끄다, 씻다/씻치다’로 실현될 수도 있고 ‘뒹다’는 ‘뒹다’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헹구다’가 쓰이기도 한다는 점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헹구다’는 ‘씻다’와 쌍형어로 공존한다. 한편 2021년부터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미세하게나마 ‘뒹다’의 쓰임이 줄고 ‘씻다’의 쓰임이 늘어나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올해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뒹다: 강원(50대 여), 충북(20대·50대 남), 충남(70대 여)

■ 씻다/뒹다: 경기(20대 여), 강원(70대 남), 충북(20대 여), 경북(20대·50대 여, 경북 50대 남)

■ 씻다/헹구다: 충남(20대 남), 경남(20대 남)

■ 씻다: 그 외

## 22717 너희 집

‘말하는 이가 자기와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가리키는 대상이 듣는 이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인 ‘너희’가 ‘집’이라는 명사에 선행하여 쓰일 때 실현되는 방언형은 다양한 편인데 크게는 ‘너희’계, ‘너네’계, ‘니’계로 나눌 수 있겠다. 먼저, ‘너희’는 ‘ㅎ’이 탈락하여 형성된 ‘너’가 실현될 수도 있고 ‘ㅎ’이 ‘ㄱ’으로 변화한 ‘느그’의 실현 지역도 좁지는 않다. 그리고 ‘너네’는 ‘너’에 접미사 ‘-네’가 결합한 파생어일진대 선행 요소가 ‘니’인 ‘니네’가 쓰이기도 한다. 아마도 전국적으로 ‘너희’계보다는 이 ‘너네’계의 쓰임이 활발

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끝으로 ‘니’는 ‘네’가 ‘네>니’의 변화를 겪은 형태인데 유독 경남 지역의 20대에서만 활발히 실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올해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너희’계

① 너희: 경기(20대 여, 70대 남), 충남(20대·70대 여, 50대 남), 전북(50대 남), 전남(70대 남), 경북(20대·50대 여, 70대 남)

② 너: 경북(50대 남, 70대 여)

③ 느그: 전남(70대 여), 경북(20대·50대·70대 여, 50대 남), 경남(50대)

■ ‘너네’계: ① 너네: 경기(20대 여, 50대·70대 여), 강원(전체), 충북(20대, 50대 여), 충남(20대 남), 전북(50대 여), 전남(20대, 50대 남), 경북(20대 남)

② 니네: 경기(50대 남), 충남(50대), 전남(50대 여)

■ 니: 경남(20대) ㉠ 2024년: 경남(20대), 2023년: 경남(20대 남)

### 22803 너-가

이 항목에 대한 방언형들은 두 가지 면에서 흥미를 끈다. 먼저, ‘22802 저-가’ 항목과는 달리 ‘네>니’의 고모음화가 적용된 ‘니가’가 지역,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매우 활발한 실현 양상을 보인다. 이는 아무래도 ‘내가’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2024년 조사에서는 ‘내가’의 사용을 전북(70대 남)과 충남(70대 남)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내가’의 사용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너가’의 쓰임도 꽤 활발한 편인데 2021년부터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는 하나의 변화 경향으로 자리잡은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전국적으로 20대에서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2024년 조사에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너가’가 실현되는 양상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런데 ‘나, 저’와 달리 왜 ‘너’만 ‘너가’로 실현되는 경향이 강한지, 이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 50대: 경기(여), 강원(남), 충북(여), 전남(여)

■ 20대: 경기(전체), 강원(전체), 충북(전체), 전남(전체), 경북(남)

### 22814 -듯이

표준어형이 전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평정했음을 보여 주는 항목이다. 다만 전라도에서도 70대 화자들만 지역어형 ‘-드끼/드키, -디끼, -데끼’를 사용하고 있

다. 대전 지역에서 보고된 ‘-데끼’의 사례(70대 여)를 참조하면 이전 시기에는 일부 충남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어형이 더 널리 쓰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드물지만 20대와 50대도 이 지역어형을 사용하는 전남 지역은 이 어형에 관한 한 중심 지역이라 할 만하다.

- 드끼: 전북 70대 여
- 디끼: 전남 70대 여
- 드키: 전북(남원) 70대 여
- 데끼: 전남(무안) 20대 여, 전남 50대·70대, 전북 70대 남, 대전 70대 여

### 22902 내버려 뒤

‘내버려 뒤, 나뒤’(강원, 경기, 충청), ‘내빼리 도, 내빼/내비 도, 나또/나도’(경상), ‘냅 뒤/도’(전남), ‘냅/내비 뒤’(전북, 충북), ‘내불라’(제주)에서처럼 어느 정도 지역적 분화를 보여 준다. 흥미로운 것은 20대를 중심으로 ‘냅/내비 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남 방언형이 신방언으로 채택되어 중부 지역으로 확산된 결과라 하겠다.

- 냇 뒤: 강원 20대 남, 경기 20대 남, 50대, 경남 20대 남, 경북 20대 남, 50대 여, 전남 20대, 50대, 70대 남, 전북 20대 여, 50대, 제주 20대 남, 50대, 충남 20대, 70대, 충북 20대, 50대 남, 70대 남
- 내비 뒤: 강원 70대 남, 경기 20대, 경남 20대, 전남 70대 여, 전북 20대 여, 70대 남, 충남 20대, 충북 20대, 50대 남, 70대 남
- 냇 도: 경남 20대 여, 50대 남, 경북 20대, 70대 남, 전남 20대 여, 50대, 충남(대전) 50대 여
- 내비 도: 경남 20대 남, 경북 50대 남, 전남 20대 남, 70대 여, 충북 50대 남

### 23004 효과

‘효과’(85회)와 ‘효파’(131회)의 비교를 통해 후자가 훨씬 더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성별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지역적으로 전라도의 경우가 특이하다. ‘효과’(33회)와 ‘효파’(15회)의 순위가 역전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단어는 교육에 따른 의식적 발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여서 수적 통계가 실재를 반영하고 있는지 아직은 확신하기 어렵다.

## 4.2. 사용도/인지도에 관한 분석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누적된 조사 자료(총 238명)를 바탕으로 사회적 의의를 갖는 주요 어휘 항목에 대해 양적 분석을 시도한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다수의 항목에 <그림> 정보를 제공하여 응답자의 직관적인 이해를 도왔으며, 별도의 기호로 표시된 항목에는 해당 어휘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 맥락을 제시하여 조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조사 항목에 대한 화자의 반응은 ‘사용도/인지도’의 4단계 척도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이는 해당 어형을 알고 있는지, 혹은 현재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지 등을 판별하기 위한 것으로, ① 사용(현재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함), ② 이해(써본 적은 있지만 현재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음), ③ 인지(써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은 있음), ④ 무지(써본 적도 없고 처음 들어봄)로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지역어의 실질적인 전승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방언형에 한정하여 진행하였으며, 표준어형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조사 과정을 거쳐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 및 전제는 다음과 같다.

① 코딩 기준: 어휘 사용 양상에 대한 통계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무응답(빈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실제 발화에서 사용되는 어형만을 대상으로 코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표준어 사용(1): 표준어형(복수 표준어 포함)을 응답하고 실제 사용한다고 답한 경우
- 지역어 사용(2): 지역어형을 응답하고 실제 사용한다고 답한 경우
- 혼용(3): 한 화자가 표준어형과 지역어형을 모두 사용한다고 답한 경우
- 모름/비사용(0): 해당 어휘를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

② 통계적 검증: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여 범주형 데이터(사용 양상) 간의 분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였음<sup>1)</sup>.

- ‘세대’와 ‘성별’이라는 변수를 결합하여 6개의 집단(20·50·70대 × 남·여)으로

---

1) 통상적으로 카이제곱 검정은 각 셀의 기대 빈도가 5 이상일 때 검정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본 데이터의 일부 항목(소멸 어휘 등)에서 나타난 극히 낮은 관측 빈도(0~4명)는 표본의 편향이나 오류가 아니라, 세대 간 단절과 급격한 어휘 소멸이라는 언어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집단 간 분포 차이가 대부분 매우 높은 통계적 유의성( $p < .001$ )을 보이고 있으므로, 분석 결과의 사회언어학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범주화하고, 해당 집단 구분에 따른 어휘 사용 양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였음.

### ③ 분석의 전제

- 본 분석은 어휘의 ‘이해(점수 2)’를 분석 변수에서 배제하고, 화자의 일상적 발화에서 나타나는 ‘사용(점수 1)’만을 핵심 변수로 설정하였음.
- 이는 기존 분석과 달리, 특정 어휘가 단순히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 현대 화자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구’로 기능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
- 아울러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해(점수 2)’를 포함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요 항목의 세대별 변화 경향성이 본 분석 결과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 모델의 신뢰도를 확보하였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여 세대별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분석된 대다수의 어휘에서 세대 간 언어 분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p < 0.05$ ) 나타났으나, 일부 어휘군에서는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 없이 전 세대에 걸쳐 표준어형이 압도적으로 사용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이는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의 형태가 다르거나(분화), 어휘의 사회적 사용 기반이 약화되는(비사용) 현상과 더불어, 특정 어휘에서는 세대와 무관하게 표준어로의 수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 1) 세대 간 언어 분화 양상

이 그룹은 세대 간 단절 없이 전 세대에 걸쳐 어휘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나, 지칭하는 어형이 세대에 따라 ‘표준어형’과 ‘지역어형’으로 뚜렷하게 양분(분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어휘의 소멸보다는 표준어로의 형태 교체가 활발히 일어나는 단계이다.

### (1) 과도기적 분화 단계(20대 vs. 50대 vs. 70대)

20대는 표준어, 70대는 지역어를 주로 사용하는 가운데, 50대가 두 언어 형식을 혼용하거나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는 어휘들이다. 특히 50대에서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사용하는 ‘혼용(3)’ 비율이 높게 나타나, 두 언어 규범이 공존하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 20105 눈두덩

(카이제곱 통계량  $\chi^2(15)=41.64$ ,  $p<0.001$ )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혼용(3)	모름(0)
20	남	12	6	1	9
	여	17	3	3	4
50	남	7	14	2	5
	여	21	8	0	6
70	남	5	18	2	6
	여	9	17	4	2

‘눈두덩’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 $\chi^2(15)=41.64$ ,  $p<0.001$ ), 세대별 사용 양상의 차이가 뚜렷하다. 20대는 응답자의 52.7%가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어휘 자체를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사용(0) 응답 또한 23.6%에 달해 젊은 층에서의 어휘력 약화 현상이 관찰된다. 반면 70대는 지역어 사용 인원(35명)이 표준어 사용 인원(14명)의 두 배를 상회하며 지역어의 강고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50대는 표준어(44.4%)와 지역어(34.9%) 사용이 공존하며, 70대의 지역어 중심에서 20대의 표준어 중심으로 이행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기할 점은 표준어형 내에서의 분화이다. 표준어 화자군 내에서 20대는 복수 표준어인 ‘눈두덩이’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반면, 70대는 조사 항목인 ‘눈두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전통적 표준어형(눈두덩)이 노년층에 잔존해 있는 가운데, 젊은 층에서는 현실 발화가 반영된 복수 표준어형(눈두덩이)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0107 귀청

(카이제곱 통계량  $\chi^2(15)=63.11$ ,  $p<0.001$ )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혼용(3)	모름(0)
20	남	23	3	0	6
	여	22	3	1	6
50	남	17	15	0	4
	여	13	14	3	7
70	남	11	20	3	2
	여	6	24	5	1

‘귀청’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 $\chi^2(15)=63.11$ ,  $p<0.001$ ), 세대별 사용 양상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대는 표준어 사용 비율이 69.8%로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표제어인 ‘귀청’ 외에 ‘고막’을 사용하는 응답을 표준어 범주에 포함함에 따라 젊은 층의 실질적인 언어 사용 실태가 반영된 결과이다. 반면 70대

는 지역어 사용(61.1%)이 압도적이며, 50대는 표준어(41.1%)와 지역어(39.7%) 사용 비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세대 변화의 중심에 위치함을 보여 준다.

### 20415 벼

(카이제곱 통계량  $\chi^2(15)=77.76, p<0.001$ )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혼용(3)	모름(0)
20	남	29	0	1	4
	여	26	1	3	3
50	남	11	11	11	3
	여	13	7	11	5
70	남	7	13	15	2
	여	8	17	11	1

‘벼’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 $\chi^2(15)=77.76, p<0.001$ ), 세대별 사용 양상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대는 표준어 사용(80% 상회)이 지배적인 반면, 70대는 ‘나랏’ 등의 지역어 사용 및 혼용 비율이 높다. 특히 50대와 70대 모두에서 혼용 비율이 30%를 상회하여 농경 생활과 밀접한 세대일수록 두 가지 어휘 형태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1409 짚신

(카이제곱 통계량  $\chi^2(15)=26.41, p=0.034$ )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혼용(3)	모름(0)
20	남	23	9	0	2
	여	24	7	0	3
50	남	14	14	1	2
	여	15	17	1	3
70	남	10	24	1	1
	여	11	18	1	2

‘짚신’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 $\chi^2(15)=26.41, p=0.034$ ), 세대별로 선호하는 어휘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20대는 69.1%가 표준어를 사용하고, 50대부터는 표준어(43.3%)보다 지역어(46.3%) 사용 비율이 소폭 앞서기 시작한다. 특히 70대에서는 지역어 사용이 61.8%에 달해, 전통 생활용품을 지칭하는 어휘일수록 노년층의 지역 정서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1501 가위

(카이제곱 통계량  $\chi^2(15)=80.46, p<0.001$ )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혼용(3)	모름(0)
20	남	28	1	2	2
	여	24	1	3	3
50	남	12	6	12	5
	여	14	7	11	5
70	남	10	17	9	0
	여	6	19	9	1

‘가위’ 항목 분석 결과( $\chi^2(15)=77.20, p<0.001$ ), 세대별 언어 교체 양상이 뚜렷하다. 20대는 표준어 사용(79.7%)이 압도적이거나, 70대는 ‘가새’ 등의 지역어 사용(50.0%)이 표준어 사용(22.2%)의 두 배를 넘는다. 50대는 표준어(37.0%), 지역어(17.8%), 혼용(31.5%)이 고르게 분포하여 세대 간 언어 변화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 21908 부추

(카이제곱 통계량  $\chi^2(15)=31.06, p<0.001$ )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혼용(3)	모름(0)
20	남	18	4	7	4
	여	22	3	5	2
50	남	12	11	10	3
	여	15	9	12	2
70	남	8	19	7	1
	여	7	19	11	0

‘부추’ 항목의 분석 결과( $\chi^2(15)=31.06, p<0.001$ )는 50대의 ‘이중 언어’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 준다. 20대는 표준어(61.5%), 70대는 지역어(52.8%)가 우세한 가운데, 50대는 한 화자가 표준어와 지역어를 모두 사용하는 혼용(3) 비율이 29.7%로 조사 어휘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년층 화자들이 ‘부추’(표준어)와 ‘정구지, 줄’(지역어)을 대화 상대나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2) 표준어 편입 단계(20대·50대 vs. 70대)

50대가 20대와 유사하게 높은 표준어 사용 빈도를 보여 표준어권으로 편입됐으나, 70대 노년층에서만 독자적인 지역어 세력이 강력하게 유지되는 어휘들이다.

## 20103 흰자위

(카이제곱 통계량  $\chi^2(15)=68.85, p<0.001$ )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혼용(3)	모름(0)
20	남	24	2	1	4
	여	20	3	1	3
50	남	22	3	1	4
	여	23	6	0	5
70	남	7	21	2	4
	여	7	24	1	2

‘흰자위’ 항목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chi^2(15)=68.85, p<0.001$ ), 세대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20대(75.9%)와 50대(70.3%)는 표준어 사용률이 70%를 상회하며 높은 정착률을 보였으나, 70대는 여전히 지역어 사용 비율이 66.2%에 달해 노년층에서는 표준어 침투가 미미함을 확인하였다. 표준어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준어를 사용하는 20대 화자군은 ‘흰자위’보다 ‘흰자’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70대는 ‘흰자위’와 지역어형인 ‘흰창, 흰동자’가 혼재되어 나타나, 젊은 층에서는 구어성이 강한 ‘흰자’로 단일화되고 있는 반면 노년층에게는 여전히 지역어형이 우세하여 세대 간 언어 직관의 차이를 보여 준다.

## 20124 겨드랑

(카이제곱 통계량  $\chi^2(15)=73.01, p<0.001$ )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혼용(3)	모름(0)
20	남	24	0	2	2
	여	25	0	0	5
50	남	22	4	2	4
	여	25	0	2	7
70	남	13	13	1	4
	여	10	20	2	2

‘겨드랑’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 $\chi^2(15)=73.01, p<0.001$ ), 20대와 50대는 표준어 사용률이 각각 84.5%, 71.2%로 매우 높게 나타나 표준어 사용이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70대에서는 양상이 다르다. 70대의 표준어 사용 비율은 35.4%에 그친 반면, 지역어 사용 비율은 50.8%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이는 표준어 확산이 노년층까지는 완전히 미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표준어형 내부를 들여다보면, 20대와 50대는 ‘겨드랑’보다 ‘겨드랑이’를 거의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겨드랑이’라는 표준어형이 젊은 층과 중년층을 중심으로 표준어로서 확고히 자리 잡았으나, 노년층에게는 여전히 ‘저드랑, 자드랑’ 등의 지역어형이 더 익숙한 의사소통 도구임을 알 수 있다.

## 20135 복사뼈

(카이제곱 통계량  $\chi^2(15)=94.65, p<0.001$ )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혼용(3)	모름(0)
20	남	29	0	0	3
	여	24	0	1	5
50	남	19	10	2	4
	여	21	9	3	0
70	남	7	21	5	2
	여	5	26	2	0

‘복사뼈’ 항목 분석 결과( $\chi^2(15)=94.65, p<0.001$ ), 20대와 50대는 표준어 사용 비율이 높아 কে를 같이하는 반면, 70대는 여전히 지역어 사용 비율이 69.1%로 압도적으로 높아 세대 간 분화가 뚜렷하다. 이는 20대가 거의 전적으로 표준어로 수렴된 것과 달리, 70대는 지역어형을 고수하고 있어 세대 간 언어 동질성보다는 급격한 표준어 대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기할 점은 표준어형의 선택 양상이다. 표준어 사용 화자군 내에서 20대와 50대는 ‘복사뼈’보다 ‘복숭아뼈’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70대는 ‘복상뼈, 복숭씨’ 등의 지역어형을 주로 사용하여, 지칭하는 대상은 같으나 사용하는 어형은 세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됨을 보여 준다.

## 20306 미꾸라지

(카이제곱 통계량  $\chi^2(15)=41.56, p<0.001$ )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혼용(3)	모름(0)
20	남	29	1	1	2
	여	28	0	2	5
50	남	23	4	6	2
	여	28	3	3	2
70	남	17	7	10	1
	여	17	11	7	2

‘미꾸라지’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 $\chi^2(15)=41.56, p<0.001$ ), 20대와 50대에서는 표준어 사용률이 각각 83.8%, 71.8%로 확고하다. 그러나 70대는 표준어 사용률이 47.2%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대신 ‘미꾸리, 미끼’ 등의 지역어형 사용(25.0%)과 표준어와의 혼용(23.6%)을 합한 비율이 약 50%에 달한다. 이는 노년층 화자들에게 있어 ‘미꾸라지’는 표준어와 지역어형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어휘인 반면, 젊은 세대에게는 표준어로 완전히 단일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 22102 아궁이

(카이제곱 통계량  $\chi^2(15)=92.73$ ,  $p<0.001$ )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혼용(3)	모름(0)
20	남	29	0	0	1
	여	26	0	1	5
50	남	23	2	3	6
	여	29	3	1	2
70	남	12	7	12	3
	여	9	17	8	2

‘아궁이’ 항목 분석 결과( $\chi^2(15)=92.73$ ,  $p<0.001$ ), 20대(88.7%)와 50대(75.4%)는 표준어 사용이 지배적이다. 반면 70대는 지역어 사용(34.3%)과 혼용(28.6%)을 합한 비율이 60%를 상회하여, 표준어(30.0%)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아궁이’가 실제 생활어로서 기능하는 노년층에서만 다양한 지역어형이 보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 세대 간 단절 및 비사용 어휘

이 그룹은 표준어와 지역어의 대립을 넘어, 20대 젊은 층에서 해당 어휘 자체를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비사용’ 비율이 급증하여 세대 간 언어 전승의 단절이 관찰되는 경우이다. 이는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해 지칭 대상이 사라지거나, 기능이 유사한 다른 사물(대체어)로 인식되면서 전통적 어휘의 사용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0606 아우타다

(카이제곱 통계량  $\chi^2(15)=44.40$ ,  $p<0.001$ )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혼용(3)	모름(0)
20	남	0	0	0	4
	여	0	0	0	3
50	남	0	3	0	8
	여	4	12	1	6
70	남	3	16	0	3
	여	1	27	0	3

‘아우타다’ 항목은 세대 간 단절이 가장 극명한 사례로,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결과( $\chi^2(15)=44.40$ ,  $p<0.001$ )를 보였다. 응답한 소수의 20대조차 전원 비사용으로 답하여 사실상 비사용 단계에 진입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70대는 지역어 사용(81.1%)이 매우 높아, 과거와 현재의 언어 환경이 완전히 단절되었음

을 보여 준다.

### 21803 시루

(카이제곱 통계량  $\chi^2(15)=97.09, p<0.001$ )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혼용(3)	모름(0)
20	남	9	2	0	7
	여	8	0	0	10
50	남	26	4	1	0
	여	32	4	0	0
70	남	23	3	8	1
	여	25	10	2	0

‘시루’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 $\chi^2(15)=97.09, p<0.001$ ), 식생활 변화에 따른 어휘 인식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50대와 70대는 대다수가 이 어휘를 사용(표준어 혹은 지역어)하지만, 20대는 약 47%가 모름/비사용(0)으로 응답했다. 떡을 찌는 도구가 일상에서 멀어지며 젊은 세대에게는 일상적 사용 빈도가 낮아져 낯선 어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2203 따리

(카이제곱 통계량  $\chi^2(15)=54.04, p<0.001$ )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혼용(3)	모름(0)
20	남	10	3	0	5
	여	6	1	2	5
50	남	3	14	1	6
	여	5	19	1	8
70	남	4	29	0	2
	여	6	26	0	2

‘따리’ 항목 역시 20대의 비사용률(31.2%)이 높게 나타났다( $\chi^2(15)=54.04, p<0.001$ ). 특징적인 것은 70대의 지역어 사용률(약 79%)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따리’가 현대 생활에서 보기 힘든 물건이 됨에 따라 노년층에게서만 ‘또아리, 따리’ 등의 지역어형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는 어휘임을 시사한다.

### 22230 다듬잇돌

(카이제곱 통계량  $\chi^2(15)=51.38, p<0.001$ )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혼용(3)	모름(0)
20	남	0	0	0	3

	여	1	1	1	5
50	남	10	9	1	5
	여	10	8	2	6
70	남	8	20	0	2
	여	2	23	1	1

‘다듬잇돌’ 항목 분석 결과( $\chi^2(15)=51.38, p<0.001$ ), 20대에서는 비사용률이 72.7%에 달해 전통적 의미의 어휘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70대에서는 지역어 사용(60.6%)이 표준어를 압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생활 양식의 현대화로 인해 해당 도구가 사라지면서, 어휘 또한 노년층의 기억 속에만 지역어로 머물게 된 현상을 보여 준다.

### 22404 자치기

(카이제곱 통계량  $\chi^2(15)=61.72, p<0.001$ )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혼용(3)	모름(0)
20	남	10	0	0	9
	여	4	0	0	7
50	남	27	3	2	1
	여	33	0	0	3
70	남	24	5	3	1
	여	22	6	1	3

‘자치기’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 $\chi^2(15)=61.72, p<0.001$ ), 세대별 인식 차이가 극명하다. 50대 이상에서는 표준어 혹은 지역어로 활발히 쓰이나, 20대의 과반수(53.3%)가 해당 어휘를 사용하지 않거나 모르는 것(비사용)으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 문화의 변화로 인해 해당 놀이 문화의 쇠퇴와 함께 어휘의 사용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한다.

### 3) 표준어 수렴 양상

앞선 사례들이 동일한 대상을 두고 세대 간 선호하는 어형이 갈리는 양상을 보여준 것과 달리, 이 그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대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거나( $p>0.05$ ), 차이가 있더라도 미미하여 실질적으로는 전 연령층에서 표준어형이 압도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들이다. 이는 특정 어휘에 한해 세대 간 언어적 이질감이 사라지고 표준어로의 수렴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 20509 우박

(카이제곱 통계량  $\chi^2(15)=18.66, p=0.229$ )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혼용(3)	모름(0)
20	남	32	0	0	0
	여	30	0	0	0
50	남	31	1	0	0
	여	32	0	0	0
70	남	28	1	1	0
	여	23	2	2	0

‘우박’ 항목은 p-value가 0.22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세대 간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20대와 50대는 물론 70대 노년층에서도 표준어 사용률이 90%를 상회하여, 세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표준어형인 ‘우박’이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 준다.

이와 유사하게 ‘매미(p=0.452), 모기(p=0.115), 가을(p=0.312)’ 등도 통계적으로 세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표준어형의 사용이 전 세대에 걸쳐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입술, 고양이’를 비롯하여 ‘강아지, 간장’ 등도 통계적으로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거나 실질적으로는 표준어형의 사용 비중이 월등히 높은 사례이다.

- 입술(20117): 70대 노년층을 포함한 전 세대에서 80% 이상의 높은 표준어 사용률을 보이며 세대 간 차이가 거의 없다.
- 고양이(20332): 70대에서 ‘괭이’ 등의 지역어형이 간혹 쓰이나, 전 세대에서 ‘고양이’가 가장 일반적인 어형으로 자리 잡았다.
- 강아지(20340): p-value(0.044)가 0.05 미만이나, 전 세대의 표준어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 간장(21701): 70대에서 ‘지렁, 장물’ 등의 지역어형이 일부 잔존하나, 70대의 표준어 사용률(59.4%)이 지역어를 앞서며 표준어형이 우위를 점하였다.

다수의 기초 어휘에서 세대 간 형태 분화가 나타나는 것과 달리, 일상적 사용 빈도가 높은 이들 핵심 어휘는 전 세대가 표준어형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 4) 인지도·사용도 분석 소결

본 절에서는 지난 5년간(2021년-2025년) 누적된 238명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00개 어휘의 사용 양상을 종합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한국 사회의 언어 세

대교체는 50대를 기점으로 표준어 수렴 현상이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 간 언어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의 이동이다. 과거에는 언어 차이가 주로 ‘표준어를 쓰는 청년층’과 ‘지역어를 쓰는 기성세대’ 사이에서 극명하게 갈렸으나, 현재 그 경계선은 ‘사회 활동의 주축인 50대’와 ‘전통적 지역어 화자인 70대’ 사이로 이동하였다. 분석 결과, 50대는 70대의 지역어 습관을 계승하기보다 20대와 유사하게 표준어 수렴 양상을 뚜렷하게 보였다. 이는 50대가 지역어와 표준어를 동시에 보유한 ‘완충 세대’의 역할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주된 의사소통은 이미 표준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전 세대에 걸친 표준어 수렴 현상의 가속화이다. ‘우박, 매미, 입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초 어휘군에서는 세대 간 격차 없이 전 연령층이 표준어형을 압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어의 소멸 위기가 단순히 다음 세대로의 비전승(非傳承)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화자들 사이에서도 활발한 언어 교체(Language Shift)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방언의 마지막 보루인 노년층조차 고빈도 어휘에서는 점차 표준어 수렴 화자로 재편되고 있다.

셋째, 어휘의 세대 간 단절과 ‘신방언’의 출현이다. ‘아우타다, 시루, 자치기’ 등 전통적 생활 어휘에서 20대의 ‘비사용’ 및 ‘인지 불능’ 비율이 급증하며 세대 간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단절이 단순한 공백에 그치지 않고, 20대만의 생활 양식에 기반한 ‘신방언(New Dialect)’의 형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 조사 결과, 20대는 ‘귀이개’를 ‘귀파개’로, ‘새끼(繩)’를 ‘뱃줄’로, ‘시루’를 ‘찜기’로, ‘부지깽이’를 ‘불쏘시개’로 부르는 등 전통적 명칭이 사라진 자리를 동작이나 기능 중심의 직관적인 어휘로 대체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어 전승의 단절 속에서도 청년층 화자들이 자신들의 언어 체계 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며 언어를 재구조화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결론적으로 본 조사 결과는 한국어의 변화 방향이 ‘세대 간 지역어 전승의 단절’, ‘전 세대의 표준어 수렴’, 그리고 ‘생활 양식 변화에 따른 신방언의 등장’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50대는 지역어와 표준어를 매개하는 마지막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무게중심은 이미 표준어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향후 한국 사회의 표준어 단일화 경향은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4.3. 종합 분석

이상에서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어 변이 양상을 대략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이는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므로 추후에 더 많은 제보자를 조사하여 상당 규모로 사례의 축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1) 표준어화: 70대를 제외할 때 표준어가 전국을 거의 석권하였다.

‘우박(20509)’ 등의 항목은 표준어화가 전 세대에 걸쳐 거의 완성되었다. 가령, ‘우박’은 세대간의 차이도 거의 없이 70대 노년층에서도 90% 이상의 표준어형의 사용률을 보여 준다.

그 외 ‘흰자위(20103), 입술(20117), 겨드랑(20124), 복사뼈(20135), 미꾸라지(20306), 고양이(20332), 강아지(20340), 간장(21701), 아궁이(22102)’ 등의 경우에도 특정 지역의 일부 70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표준형을 사용한다.

#### (2) 지역별 분화: 대체로 70대 이상에서 지역 분화형을 볼 수 있다.

전 세대에서 지역 분화형을 보이는 예가 존재한다. ‘글피’의 방언형이 그러하다. 이는 크게 세 가지 계열 즉 ‘글피’계, ‘고페’계, ‘모레’계로 나뉘는데 이들이 지역에 따라 아직도 분포해 있다는 점은 언어 다양성의 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 70대: 경상도에서 ‘모레’계 방언형들이, 전라도에서 ‘고페’계 방언형들이 나타나는 점과 경남의 일부 지역에서 ‘모레고페’가 확인됨.
- 50대: ‘글피’계 방언형에 비하여 ‘모레’, ‘고페’계 방언형의 세력이 상당히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각각 경상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확인됨.
- 20대: 여전히 ‘고페’계 방언형이 전라도, ‘모레’계 방언형이 경상도에서 확인됨. 그러나 ‘고페’ 또는 ‘모레’계의 방언형들의 종류와 수가 70대, 50대와 비교하여 현저히 감소하였음.

그 외 지역적 분화를 볼 수 있는 조금 특이한 항목으로 ‘효과(23004)’를 들 수 있다. 전국적으로 ‘효파(131회):효과(85회)’의 비율을 보여 경음화를 보이는 ‘효파’가 우세하나 전라도에 한해 ‘효과(33회)’가 ‘효파(15회)’보다 우세한 수치를 보인

다. 지역차의 문제인지, 조사 과정상의 문제인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달리 지역적 분화를 확연히 보여 주는 항목도 발견된다. 우선 동서로의 분화를 보여 주는 지역어형이 출현하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귀지(20108): 표준어 ‘귀지’가 여러 지역에 고루 분포하는 가운데, 지역어형 ‘-밥’계(‘꿇밥, 귀팝’ 등)가 충남·전남·전북·제주에 그리고 ‘-칭’계(‘귀칭, 귀창, 귀챙이’ 등)가 강원·충북·경남·경북에 집중적으로 나타남.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귀지’를 제외할 때, 지역적으로 서쪽의 ‘꿇밥’과 동쪽의 ‘귀칭’으로 전국이 동서로 양분되어 있음을 보여 줌.
- 꽃(20401), 솟(20409), 옷(20413): ‘ㅈ’을 말음으로 갖는 ‘꽃’, ‘솟’, ‘옷’ 등은 20대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대체로 ‘ㅈ’ 말음으로 실현하는 양상이 강함. 이에 비해 50대와 70대의 경우에는 본래의 전통 지역방언형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서부방언을 중심으로 ‘ㅅ’ 말음으로의 실현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한편 남북으로의 분화를 보여 주는 지역어형이 출현하는 몇 예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벼(20415): 70대의 경우, ‘벼’계 방언형의 실현 비율이 더 높으나 중부방언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나락’계 방언형은 남부방언에서 주로 확인됨. 50대의 경우, ‘벼’계 방언형이 남부방언으로 침투하였음을 보여 줌. 20대에 가면 ‘벼’계가 더 확산되어 ‘나락’계의 사용이 급속도로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계집아이(20610): 전국적으로 ‘계집애, 기집애, 지집애’ 계통의 어형이 출현하는 가운데,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가시나, 가시내’ 계통의 어형이 나타남. 남북으로 분화되는 모습을 보여 줌.
- 갈퀴(22206): 경상도를 중심으로 ‘까꾸리, 깔꾸리’ 등 그리고 제주에서 ‘글쟁이’가 쓰이고 있어, 경상·제주와 그 외의 지역으로의 분화를 비교적 분명히 보여 줌.

기타 ‘부추(21908), 내버려 뒤(22902)’ 등도 분화의 정도가 상당히 완화된 것은 하였으나 아직도 70대에서는 지역 분화형을 보여 주고 있다.

### (3) 세대별 분화: 구형이 신형으로 바뀌는 언어변화의 과정을 보여 준다.

‘혀(20119)’의 표준어형 사용 비율은 70% 정도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세대별로 나누어 보면 전통방언형에서 표준어형으로 전이되는 모습이 잘 드러난다.

■ 표준어형(혀, 혓바닥) 사용 경향

- 20대: 98.6%(70/71)
- 50대: 64.3%(45/70)
- 70대 이상: 39.7%(25/63)

70대에서 전통 방언형(‘서, 세, 쎄, 헤’ 등)이 60% 이상의 사용 비율을 보이다가 20대에 이르러 ‘세’(제주) 1예를 제외하고 표준어형이 완전히 평정해 버리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대별 분화가 관찰되는 항목은 대개 50대를 기점으로 하여 두 부류로 나뉘는바 ‘20대 / 50대·70대 이상’으로 분화되는 유형과 ‘20대·50대 / 70대 이상’으로 분화되는 유형이 바로 그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20대가 사용하는 어형이 신형이고 70대 이상이 사용하는 어형이 구형이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표준어형이 20대에서 사용되는 신형으로 나타난다.

■ 20대와 50대·70대 이상으로 분화

- 귀이개(20109): 20대는 표준어 ‘귀이개’를 사용하는 데 반해, 50대와 70대는 지역어형(‘귀후비개, 귀쭈시개, 귀지개, 귀과개, 귀밥과개, 귀(기) 후비는 거, 꺾밥 내는 거, 꺾밥 파는 거’ 등)을 사용함.
- 음식점 장년 여성(20806), 음식점 청년 여성(20807), 음식점 청년 남성(20808): 20대는 ‘사장님’이라 부르는 것을 선호하고 50대 이상은 ‘여기요, 저기요’라 부르는 것을 선호함.
- 김(21614), 김치(21704): ‘김’의 경우에 ‘집’ 등의 ‘ㄱ’구개음화형은 50대 6회/88회, 70대 7회/83회로 50대 이상에서조차 10% 미만의 빈도를 보이며 20대에서는 ‘김’ 외에 다른 방언형을 거의 허용하지 않음. ‘김치’의 경우에 ‘집치’ 등 ‘ㄱ’구개음화는 50대 7회/89회, 70대 12회/82회로 10% 내외의 빈도를 보임. 결국 ‘ㄱ’구개음화 어형은 20대에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음.
- 흥년(21111): ‘ㅎ’구개음화 어형(‘송년’)은 20대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음.

■ 20대·50대와 70대 이상으로 분화

- 흰자위(20103): 20대(75.9%)와 50대(70.3%)의 표준어(‘흰자위, 흰자’) 사용률이 70%를 상회하나 70대는 66.2%의 지역어(‘흰창, 흰동자’ 등) 사용률을 보임.
- 겨드랑(20124): 대체로 20대(84.5%)·50대(71.2%)에서는 표준어 ‘겨드랑, 겨드

랑이'가 쓰이는 반면, 70대에서는 표준어 사용률이 35.4%에 그치면서 과반수 이상 '저드랑, 자드랑' 등의 전통 지역어형을 사용함.

이 두 유형은 표준어화의 중간 과정을 보여 준다. 즉 전자의 유형(20대와 50대·70대 분화 유형)을 거쳐 후자(20대·50대와 70대 분화 유형)의 단계에 이른 후, 70대마저 대부분 표준어형을 사용하게 되면 표준어화가 완료되는 것이다.

하지만 세대별 분화가 꼭 표준어화만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장년 여성(20806)'에 대한 호칭에서는 표준어형 사이의 변화 특히 '여기요'(신형)와 '저기요'(구형) 사이의 사용 빈도의 교체가 발견되기도 한다. 지역적 차이를 무시할 때 두 어형을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는 50대를 기점으로 70대 이상은 '여기요'를 그리고 20대는 '저기요'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수치상으로 70대 이상에서는 '여기요'가 46회, '저기요'가 6회, 그리고 50대는 '여기요'가 60회, '저기요'가 24회 출현하는 반면, 20대에서는 거꾸로 '여기요'가 22회, '저기요'가 56회다. 이로써 음식점의 '장년 여성'에 대한 호칭어가 '여기요'에서 '저기요'로 바뀌어 가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아우타다(20606)'는 세대 간 단절을 가장 극명히 보여 주는 사례다. 일부 지역의 70대는 지역어형 사용률(81.1%)이 매우 높지만 대부분의 20대 제보자들은 '④ 무지'로 응답하였다.

앞서 제시한 예들과 달리, '너-가(22803)'는 비표준어형이 확산되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 항목에서는 '네>|'의 고모음화가 적용된 '니가'가 지역, 세대, 성별과 관계없이 매우 활발히 실현된다. 이는 '내가'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인바 '니가'가 비표준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신형이 꼭 표준어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 (4) 성별 분화

경어법과 관련하여 특정 세대에서 성별 분화의 모습을 보이는 항목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진지(21006)'의 경우, 남성은 세대별로 빈도상의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여성은 '진지:식사'의 비율이 50대 이상(39:7)과 20대(16:8)에서 제법 큰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호칭의 경우, 특정 세대에서 성별로 선호하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독특하다.

- 음식점 장년 여성(20806)에 대한 호칭: 50대 남성은 '이모'와 '여기/저기'의 빈도(15:14)가 비슷하나 50대 여성은 '여기' 계열을 선호함(10:17). 아울러 70대 여

성은 ‘이모’와 ‘여기요’ 계열, 반면에 70대 남성은 ‘아줌마/아주머니’ 계열을 선호함.

- 음식점 청년 남성(20808)에 대한 호칭: 20대 남성은 ‘사장님’과 ‘여기/저기’의 빈도(15:18)가 비슷하나 20대 여성은 ‘여기’ 계열이 ‘사장님’을 압도함(24:9).

그 외 특정 항목의 경우, 특정 지역의 여성이 남성보다 지역어형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를 성별 분화의 사례라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므로 훨씬 더 많은 수의 제보자가 확보된 이후, 이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 특정 단어에서 여성이 지역어형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함.

- 겨드랑(20124): 남부 방언(경상도, 전라도, 제주도)에서 25(여):16(남)으로 여성이 전통 지역어형(‘저드랑, 저트랑, 저꿍이’ 등)을 더 많이 사용함.
- 흥년(21111): ‘ㅎ’구개음화 어형(‘송년’) 즉 전통 지역어형의 출현 빈도는 70대 여성(17회)이 70대 남성(9회)보다 우세함.
- 수치상으로 유의미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흰자위(20103), 아우타다(20606), 가위(21501), 아궁이(22102)’ 등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전통 지역어형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함. 이 또한 특정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충분한 사례가 확보되면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리라 여겨진다.

#### (5) 신방언: 대체로 20대를 중심으로 신방언이 출현, 확산되고 있다.

‘신방언’이란 표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운 변화를 겪어 신형이 탄생한 경우를 이른다. 너무나 당연하게 20대를 중심으로 일부 예에 한해 신방언이 형성, 확대되어 가고 있다.

- 가부좌(20133): 표준형 ‘가부좌’는 극히 소수의 경우에만 나타나고 ‘책상다리, 양반다리, 아빠다리, 나비다리’ 등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남. ‘가부좌’와 ‘양반다리(=책상다리)’가 사전적으로는 뜻이 같은 말이 아니지만 일상에서는 동의어로 인식됨. 특히 ‘아빠다리’는 50대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거의 20대를 중심으로 쓰여 신방언 형성의 좋은 예가 됨. 20대의 경우, 전국적으로 66% 정도가 ‘아빠다리’를 써 ‘가부좌’와 ‘양반다리’를 대체해 가고 있음.
- 덤(21203): 전국적으로 20대를 중심으로 ‘써비쓰’를 사용함.
- 내버려 뒤(22902): 전라도 방언형 ‘내비/넙 뒤’가 신방언으로 선택되어 20대를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음.

**(6) 사어화: 전통 지역어형뿐 아니라 표준어형도 사어화를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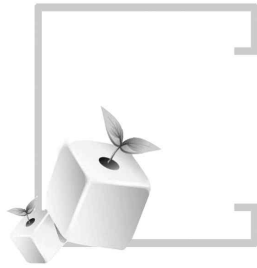
표준어화에 따라 전통형의 사어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무수히 많으므로 대부분의 예들을 생략하기로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어화는 전통 방언만의 문제는 아니다. 표준어형의 사어화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구미(20320)’는 세대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67% 정도가 이 단어를 모른다. 오히려 ‘바구미’ 등을 총칭하는 ‘쌀벌레’(41건)가 이를 대신해 가고 있어 직관적으로 이해와 발화가 가능한 쪽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목말(22409)’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표준어형 ‘목말(=남의 어깨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는 일)’이 거의 70대 충청도 화자 정도에서만 사용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목마(=나무로 말의 모양을 깎아 만든 물건)’가 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어화의 예는 아니지만 ‘시루(21803)’에 대한 사용도/인지도 조사는 흥미로운 결과를 알려 준다. 50대 이상에서는 대부분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20대에서는 약 50% 정도가 ‘모름/비사용’으로 응답한 것이다. 아직 사어화에 이르지 않았지만, 문물·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용 빈도가 낮아져 20대에게는 매우 낯선 단어가 되어 가고 있다. ‘자치기(22404)’ 또한 ‘시루’와 매우 평행한 모습을 보인다. 50대 이상은 대부분 알지만 20대의 약 53% 정도는 이 단어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뺨리(22203)’나 ‘다듬잇돌(22230)’ 등 전통 문물과 관련된 어휘들의 20대 비사용률이 높아 이들 또한 사어화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할 만하다.

대체로 사어화는 자연물 또는 문물이나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다. 대상이 사라지면서 그것을 가리키는 언어 표현이 함께 사라져 사어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전통형의 소멸 현상을, 표준어에 의해 밀려나 사라지는 경우와 사회 변화에 의해 사라지는 경우를 구별하여 관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 제 5 장

# 전국 방언 지도 제작



## 제5장 전국 방언 지도 제작

국립국어원에서는 지역어 조사(2004~2013) 및 보완 조사(2015~2020)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지역어의 문자 및 음성 정보를 수록하여 전국 지역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방언 지도 작성 프로그램 등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시스템이 완전히 공개되면 일반인들도 지역어 정보를 활용하여 방언 지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본 사업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 방언 지도(총 100개)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방언 분화가 비교적 선명하거나 언어 변화의 과정을 뚜렷하게 보여 줄 수 있는 후보 항목을 선정, 이들을 지도화하였다.

### ■ 방언 지도 및 해설 작성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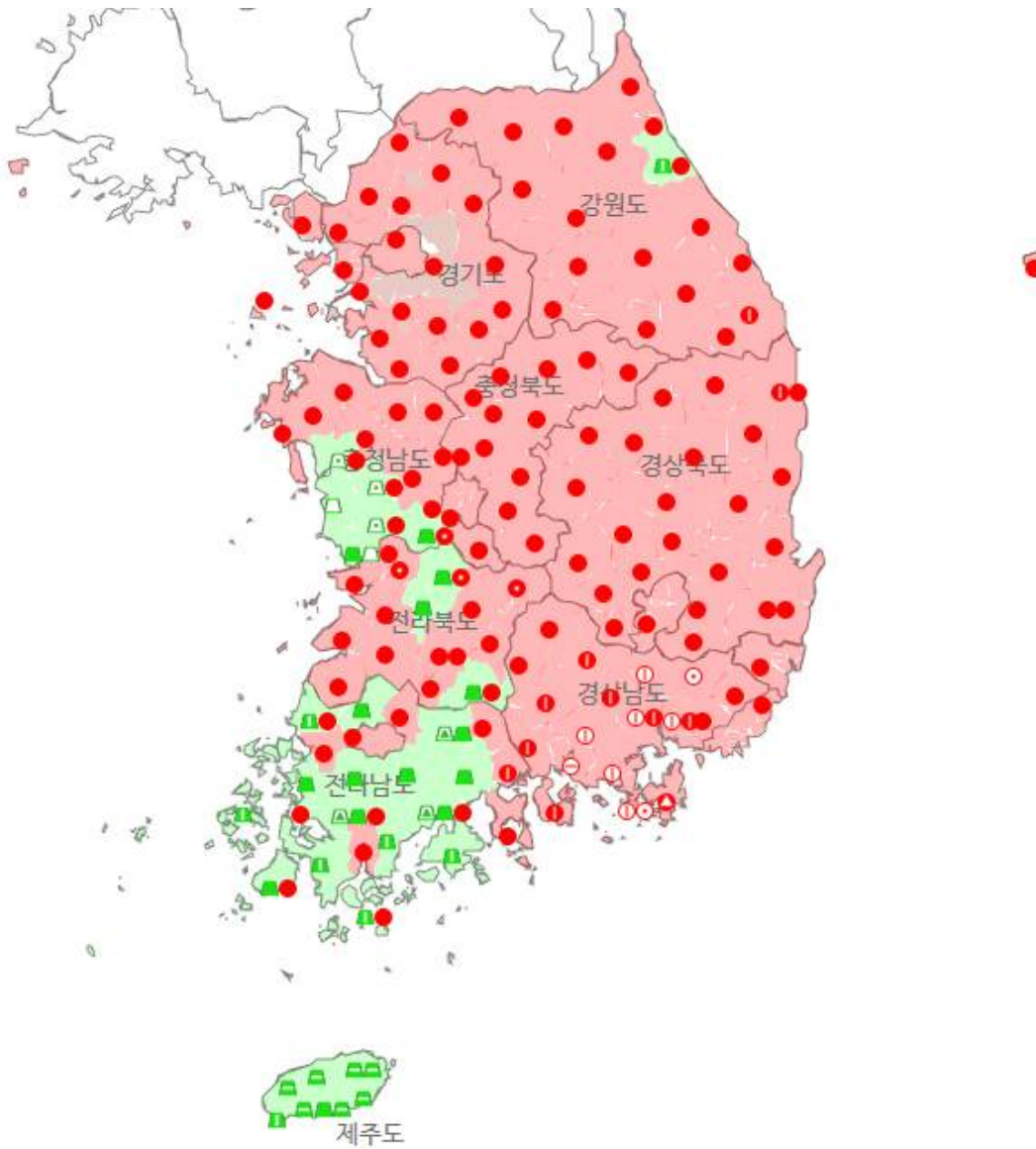
고구마, 상추, 냉이, 달래, 찬밥, 누룽지, 국물, 졸리다, 뉘다, 도리도리, 남편, 아내, 꾸짖다, 올케, 매형, 큰아버지, 외할아버지, 께다, 재봉틀, 끈, 매듭, 보자기, 솜, 누비이불, 베개, 인두, 도, 여물, 끌다, 도끼, 부싯돌, 벼루, 비녀, 비누, 가루, 가오리, 거머리, 거미, 거위, 김, 김치, 날벌레, 송아지, 여치, 염소, 벼룩, 벧, 병아리, 여치, 염소, 할머니, 가부좌, 가슴, 껌질, 눈썹, 도롱이, 돋보기, 속눈썹, 안경, 오른손, 옥수수, 왼손, 이마, 재채기, 주근깨, 침, 코, 콧물, 개암, 그늘피, 까투리, 짜리, 남풍, 도깨비바늘, 묘, 소나기, 솔가리, 올가미, 이끼, 진눈깨비, 진흙, 천둥, 철쭉 등

### ■ 방언 지도(100장) 및 해설: [별첨 파일]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 보고서에서는 참조용으로 다음 6개 항목의 방언 지도(해설 포함)를 제시한다.

- 고구마
- 끌다
- 염소
- 왼손
- 젓가락
- 진눈깨비

■ 고구마



[해설] ‘고구마’의 방언형은 ‘고구마’계와 ‘감자’계로 나뉘므로 매우 단순한 편이다. 그 방언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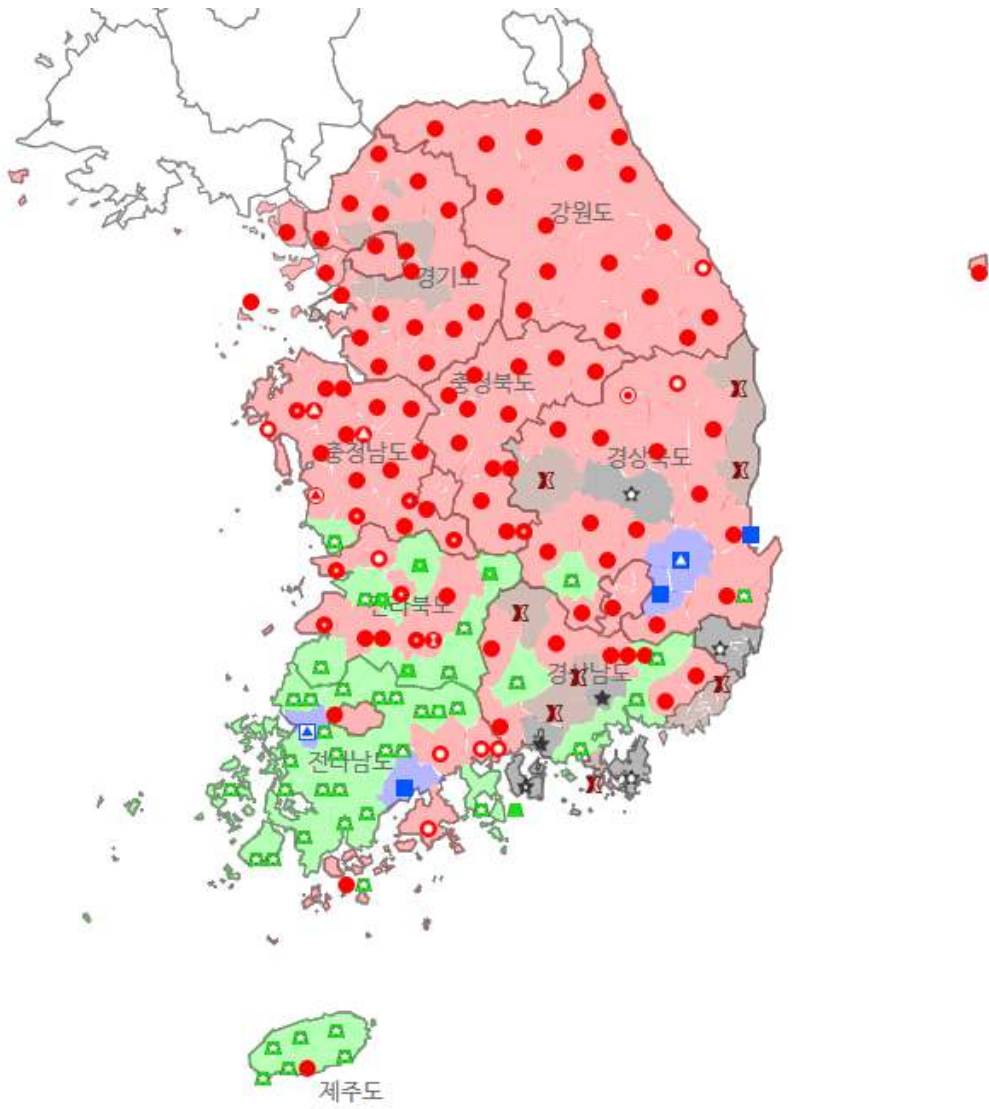
- (1) ‘고구마’계: 고고마, 고구마, 고구매, 고기매, 고오마, 고오매, 고오미
- (2) ‘감자’계: 감자, 감재, 감저, 가을감자, 무수감자, 무감자, 진감자

‘고구마’계의 방언형들 가운데서도 ‘고구마’가 가장 세력이 강하여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고고마’는 충남 논산·전북 완주·무주·익산, ‘고구매’와 ‘고오매’는 경남 남부, ‘고오마’는 경남 밀양·통영 등에 분포하여 경남을 중심으로 몇 어형이 확인될 뿐, ‘고구마’가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난다. ‘감자’계는 전라북도를 건너뛰어 충청남도의 남부 그리고 전라남도, 제주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감자’가 주로 보이며 ‘감재’와 ‘진감자’는 전남 남부, ‘감저’는 제주에서 확인되고, 충남에서는 ‘가을감자, 무감자, 무수감자’ 등이 나타난다.

‘고구마’의 이와 같은 방언분포는 한국언어지도(2008: 56-57)와 유사하다. 다만 한국언어지도(2008: 56-57)에서는 전라북도 전역에서 ‘고구마’계의 방언형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본 지도에서는 전라북도 남원·전주에서 ‘감자’가 보고되었으며 강원도 양양에서도 ‘감재’와 ‘고구마’가 함께 조사된 것이 특이하다. 또한 한국언어지도(2008: 56-57)에서는 전라남도 전역(여수 제외)이 ‘감자’계의 방언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지도에서는 전라남도 북부와 동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구마’계의 방언형들이 확인되어 ‘고구마’계의 확산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구마’의 방언분포는 방언형의 전파와 관련해서도 의미를 갖는다. 즉 충청남도 남부와 전라남도에서는 ‘감자’계의 방언형이 쓰이지만 그 사이에 있는 전라북도에서는 ‘고구마’계의 방언형이 사용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전라북도에서도 인접 지역과 같이 본래는 ‘감자’계의 방언형을 사용하였다가 신형인 ‘고구마’계의 방언형들에 편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면 ‘고구마’계의 방언형들은 한반도의 남동부에서부터 퍼져 나가 현재와 같은 방언분포를 이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정승철 2022: 252-254).

■ 끝다



[해설] ‘끌다’는 “바닥에 댄 채로 잡아당기다.”를 뜻한다. 이 ‘끌다’는 중세국어 시기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그스-’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긱○-’으로 나타나는 불규칙적 활용을 보이다가(경음으로 시작하는 ‘쓰스-’와 ‘쑤○-’으로도 실현됨) 근대국어 시기에 현대국어의 직접적인 선대형인 ‘쓰을-’이 나타난 뒤 ‘쓰을->쓸-’의 변화를 겪어 현대국어로 이어진다. 어간의 끝에 ‘ㄹ’이 어떤 이유와 과정으로 덧붙었는지는 알 수 없다.

전국적으로 ‘끌다’의 방언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계열로 나뉜다.

(1) ‘끌다’계

- ‘끌다’형: 끌다, 꿩다, 꿩다, 꿩다
- ‘끄르다’형: 끌으다, 끄리다, 끌르다

(2) ‘끄짓다’계: 끄짓다, 끄질다, 끄집다

(3) ‘끄스다’계

- ‘끄스다’형: 끄스다, 끄시다, 끄식다, 끄십다
- ‘끗다’형: 꺾다

(4) 기타 소수형: 끌다, 꿩다, 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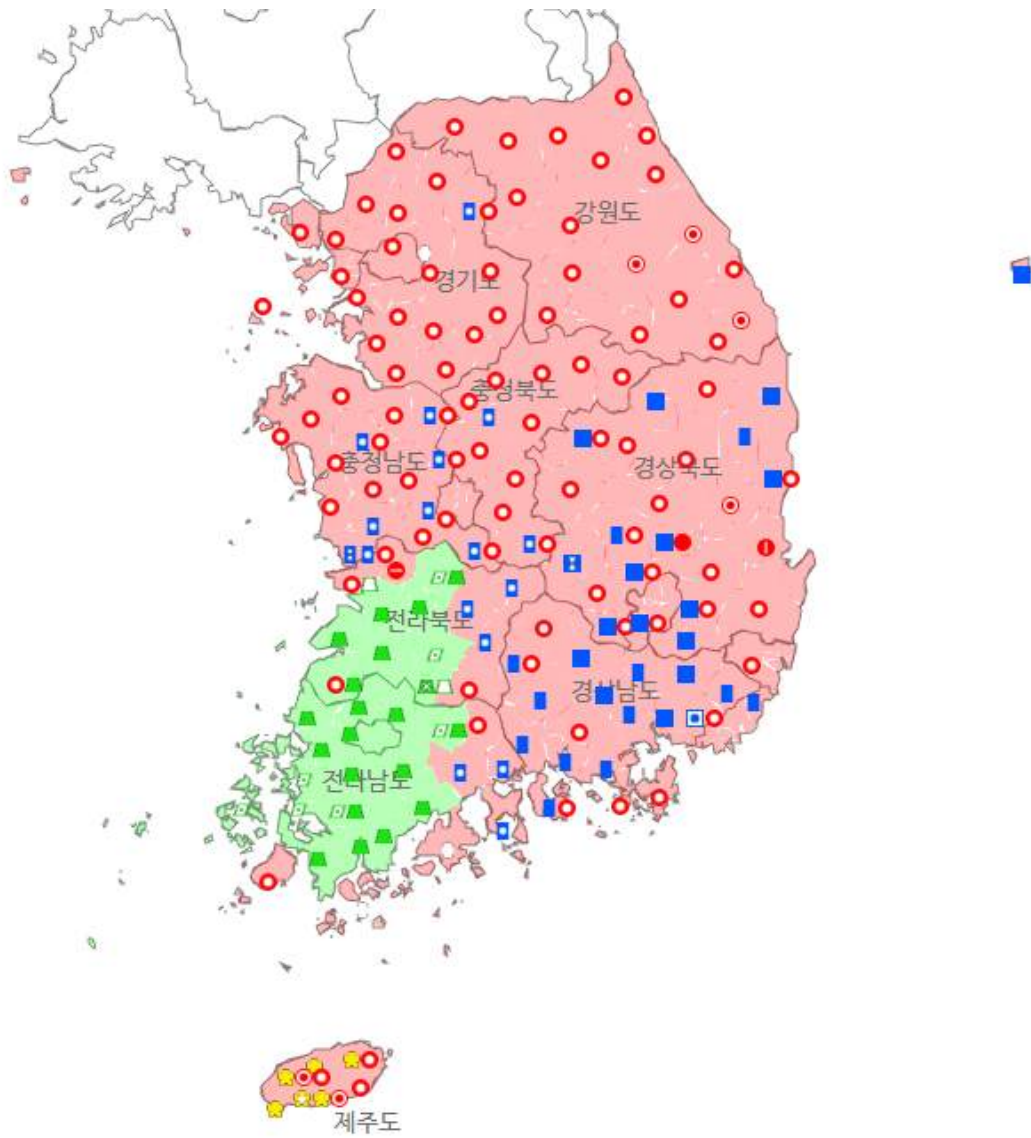
표준어 ‘끌다’계가 거의 전역에 분포하는 가운데 나머지 두 어형이 남부 지역에 분포한다. (1)의 ‘끌다’계(빨간색 동그라미)가 경기, 강원, 충청 전체와 경상, 전북의 일부에 나타나며, (2)의 ‘끄짓다’계(파란색 정사각형)가 경북 남부와 전남에 일부 나타나며, (3)의 ‘끄스다’계(녹색 사다리꼴)가 전라와 제주 대부분과 경남 해안에 나타난다. (4)는 기타 소수형(검은색 별)으로 ‘꺾다’(함안, 사천), ‘꿩다’(남해), ‘끄다’(거제, 울주, 의성)가 있다. 다른 활용형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려우나, 분포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꺾다’와 ‘꿩다’는 (3)의 ‘꺾다’와 매우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3)의 ‘꺾다’형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현대국어 방언형의 분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된다. 우선, 어간말 ‘ㄹ’의 유무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뉜다. (1)은 ‘ㄹ’이 있는 방언형이고 (2)와 (3)은 ‘ㄹ’이 없는 방언형이다(예외로 (2)의 ‘끄질다’가 있음. 후술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세국어의 ‘그스-’의 끝에 ‘ㄹ’이 덧붙은 것이 (1)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2)와 (3)이다. 다음으로, 어중자음 유무에 따라서도 크게 둘로 나뉜다. ‘끌다’의 중세국어형 ‘그스-’에서 반치음(△)이 ∅로 바뀌어서 자음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 (1)이고 반치음이 다른 자음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 (2)와 (3)이다. (2)는 반치음이 ‘ㅈ’으로, (3)은 반치음이 ‘ㅅ’으로 현대국어의 방언에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둘 중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대국어의 방언형은 크게 중부 방언형 (1)과 남부방언형 (2)로 대별할 수 있다.

더 설명이 필요한 방언형으로, 첫째, (2)의 ‘끄질다’(영천)는 ‘그스-’의 반치음이 ‘ㅈ’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으면서도 어간말에 ‘ㄹ’을 가지고 있다. 표준어형 ‘끌다’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한다. 둘째, (4)의 ‘끄다’는 중세국어의 ‘그스-’에 반치음 소멸 등이 적용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2)와 (3)의 ‘끄짓다, 끄집다, 끄식다, 끄십다’에 있는 어간 끝의 ‘ㅅ, ㅈ, ㅊ’도 설명이 필요하다. 이들 자음 중 ‘ㅊ’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이 동사의 중세국어 형태는 ‘그스-’와 ‘긔ㅇ-’으로 나타나서 더 이른 시기의 형태로 ‘\*그스-’이 재구될 수 있는데, 이 ‘\*그스-’의 어간말 ‘ㅊ’으로부터 온 것이 ‘끄식다’의 ‘ㅊ’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자음 ‘ㅅ’과 ‘ㅈ’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 염소



[해설] ‘염소’는 후행 성분이 ‘소’인 숫과의 동물이다. 따라서 ‘소’의 방언형으로 끝나는 어형들의 분포가 꽤 넓은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분포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접미사 ‘-앙이’와 관련된 방언형의 분포가 넓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전국적으로 ‘염소’의 방언형은, 우선적으로 ‘염/얌-’계와 ‘멤-’계로 나뉘고, 세부적으로는 네 계열을 확인할 수 있다.

- (1) ‘염소/얌소’계: 염소, 염쇠, 염세, 염쇄, 이음소, 염쏘, 염췌이, 염송아기(제주), 염송애기(제주)/얌소
- (2) ‘염생이/얌생이’계: 염생이, 염새이, 염성이 / 얌생이, 얌새이, 얌새이, 남새이
- (3) ‘멤소’계: 멤소, 뻬소
- (4) ‘멤생이’계: 멤생이, 뻬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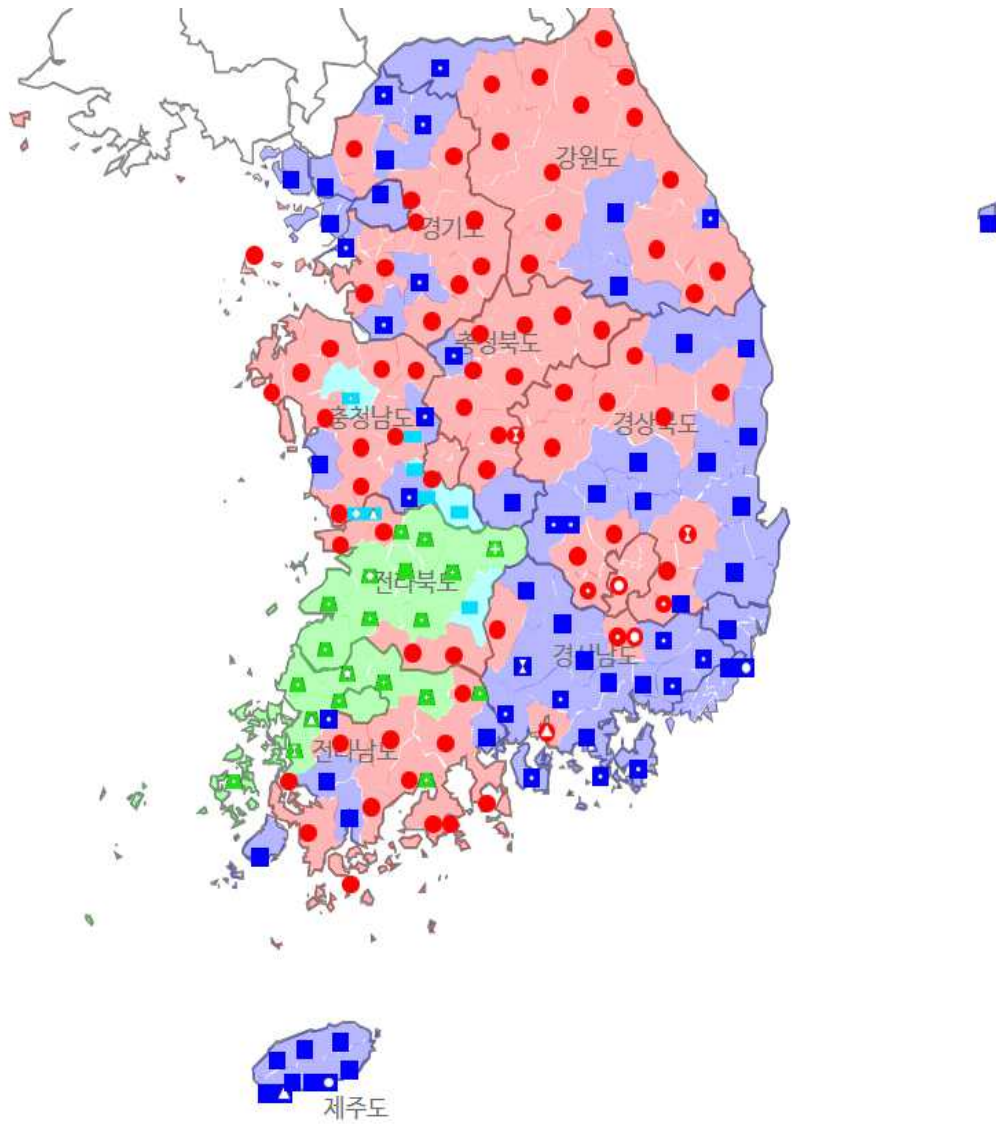
표준어 ‘염소’계(빨간색 동그라미)가 전라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분포하는 가운데 다른 여러 어형들은 충청 이남에 분포한다. (1)의 ‘염소’계가 경기와 강원, 충청, 경상 지역에 분포해 있는데 특히 경기, 강원, 충북 지역에는 ‘염소’가 압도적이다. (2)의 ‘염생이/얌생이’계(파란색 사각형)는 충남북, 경남북 지역에 나타나지만 ‘얌생이’계(파란색 정사각형)는 충청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3)의 ‘멤소’계(녹색 평행사변형)가 전남 서부 지역, 전북 동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4)의 ‘멤생이’계(녹색 사다리꼴)는 전남북 지역에 나타난다.

‘멤소’계는 울음소리로 보이는 형태를 구성 성분으로 하는 어형으로 보이는바 여기에 접미사 ‘-앙이’가 결합된 것이 ‘멤생이’계이다. ‘멤-’계열은 경남북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생이’로 끝나는 방언형에서는 ‘고양이(<‘괴+앙이’)'에서 확인되는 접사 ‘-앙이’를 추출할 수 있다. ‘염소/염쇠’에 ‘-앙이’가 결합하거나 ‘얌소/얌쇠’에 ‘-앙이’가 결합하면 ‘염생이’와 ‘얌생이’로 실현될 수 있으며 이들이 비모음화를 거치게 되면 ‘염새이’, ‘얌새이’로 나타난다. ‘소’의 방언형이 후행 성분으로 참여하는 ‘염쇠(평창, 삼척, 강릉)’, ‘염세(청송)’, ‘염쇄(제주)’, ‘염쏘(군위)’, ‘염췌이(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주로 영동지역과 경북 일부에 분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염소/얌소’, ‘염생이/얌생이’를 통해 jam으로 시작하는 어형을 재구할 수 있을 듯하다. ‘옆구리/얌구리’, ‘영글-/양글-’, ‘절/짚’, ‘혀/햐’ 등을 통해 그 대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음소(음소, 익산)’에서는 ‘여치>으치’에 대응되는 jə>ji 고모음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 방언형 ‘염송아기’, ‘염송애기’에는 역구개음화

(송아지>송아기)와 움라우트(아기>애기)가 확인된다. ‘질다>길다’와 ‘방망이>방망이’를 통해 두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남새이(김천)’형은 ‘암새이’와 관련지을 수 있는데 ‘낭식/양식’, ‘널다/널다’, ‘널/열’ 등의 대응이 참고된다. ‘멤소(순창, 군산)’는 ‘멤소’에서  $jə > e$  축약이 역으로 적용되어 형성된 어형으로 보이는데 그 대응은 ‘하며/하메’, ‘벼개/베개’에서 확인된다.

■ 원손



[해설] ‘왼손’은 왼쪽 손을 가리킨다. 15세기 문헌에서부터 ‘왼손’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이는 본래 “그르다(非)” 또는 “비뚤어지다”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 ‘외다’의 관형사형 ‘왼’에 명사 ‘손’이 결합한 것이다. 즉, 오른쪽을 ‘바른(正)’ 쪽으로 인식한 것과 대조적으로, 왼쪽을 ‘그른’ 쪽으로 인식했던 과거의 관념이 언어에 반영된 결과이다. 전국적으로 ‘왼손’의 방언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계열로 나뉜다.

- (1) ‘왼손’계: 왼손, 왼손, 인손, 은손, 왼쪽손
- (2) ‘외약손’계: 외약손, 외약손, 왜약손, 에약손, 에약손, 약손, 외손
- (3) ‘웬손’계: 웬손(=웬손), 엔손, 웬짝손, 웬착손, 엔쪽손
- (4) ‘오약손’계: 오약손, 오연손, 오야짜, 오야짜

표준어 ‘왼손’계(빨간색 동그라미)가 전국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전라도와 충남의 ‘외약손’계(녹색 사다리꼴)와 경상도의 ‘웬손’계(파란색 정사각형)가 나타난다.

(1)의 ‘왼손’계(빨간색 동그라미)는 단모음으로 실현된 형태를 포함한 계열이다. 이 계열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남 등 전국적으로 가장 널리 분포한다. 특히 경상북도(청도, 고령)와 경상남도(창녕), 대구 등 영남 내륙 지역에서는 ‘왼손, 인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경상남도 사천에서는 ‘은손’이 나타난다. 또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방향 접미사가 결합한 ‘왼쪽손’은 충청북도 보은과 경상북도 영천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2)의 ‘외약손’계(녹색 사다리꼴)는 전라북도 전역(전주, 김제, 고창, 부안 등)과 전라남도 북부 및 중부(담양, 곡성, 함평 등), 그리고 충청남도 남부(금산, 논산, 공주) 일대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는 ‘왼손’과 구별되는 경상도 및 충청 접경 지역의 독자적인 어휘 분화로 볼 수 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약손’과 ‘외약손’을 중심으로, 모음이 변화한 ‘왜약손(김제), 에약손(함평)’ 등의 어형이 공존한다. 전라북도 무주에서는 ‘외손’이라는 어형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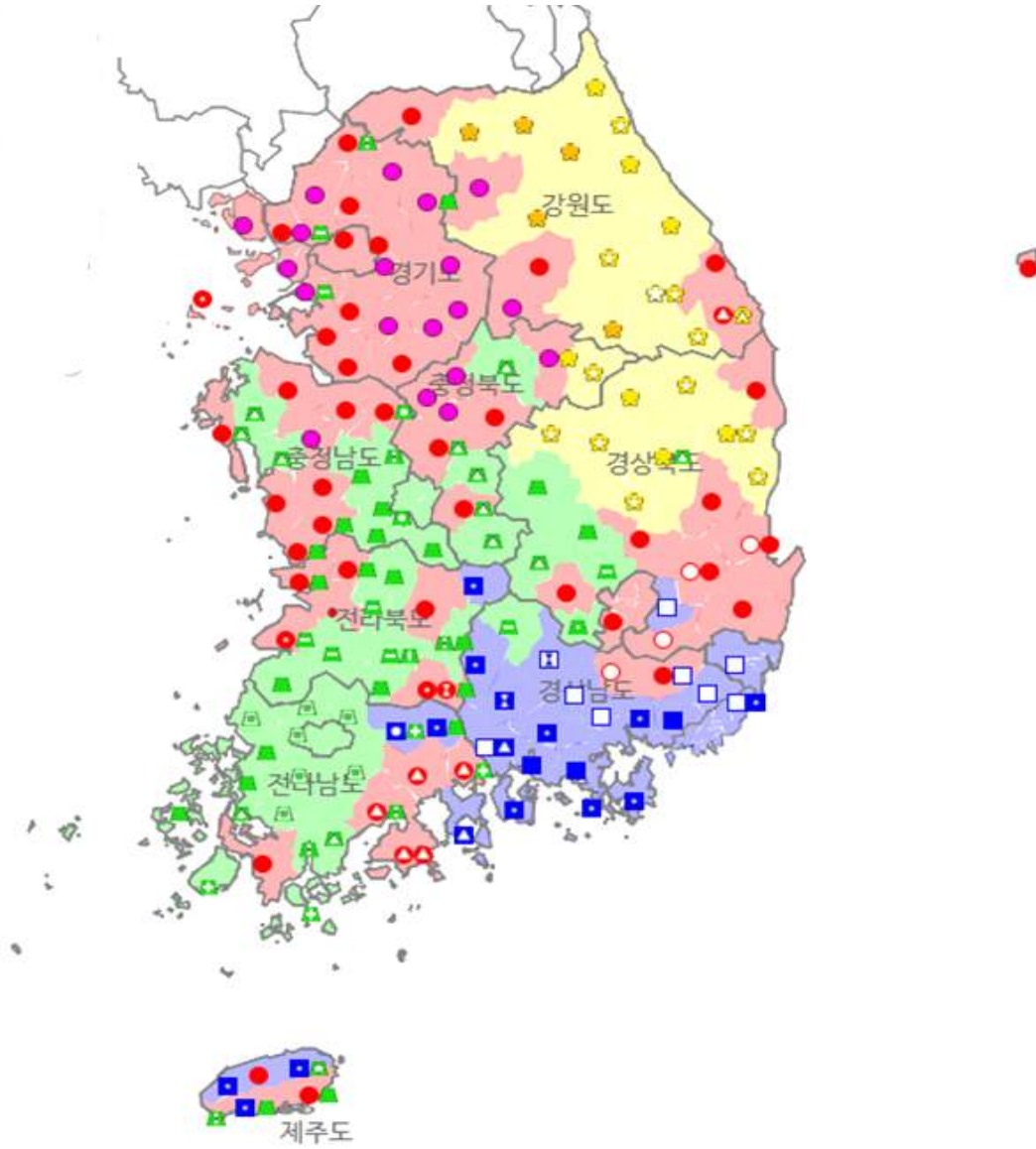
(3)의 ‘웬손’계(파란색 정사각형)는 이중모음으로 실현된 형태를 기반으로 하며, 단모음화된 어형도 함께 나타나는 계열이다. 이 계열은 경상도 전 지역(부산, 울산, 대구, 경상남도, 경상북도)과 제주도, 그리고 강원도 일부 및 경기/인천 지역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 계열의 기본형인 ‘웬손’(=웬손)은 제주도 전 지역 및 경상도, 경기도 일부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며, ‘엔손’은 강원도 동해, 철원과 경기도 시흥, 연천, 평택, 그리고 경상남도 거제, 거창, 김해, 남해, 밀양, 통영 등 주

로 서남 해안 및 내륙 지역에서 나타난다. 제주도 전 지역에서는 ‘웬손’ 외에 서귀포(호근)의 ‘웬쪽손’이나 대정읍의 ‘웬착손’과 같이 접미사가 결합한 어형도 확인된다. 이 밖에도 부산 기장(웬쪽손)과 경상남도 산청(웬쪽손) 등에서도 ‘-쪽/쪽’과 결합한 어형이 확인된다.

(4)의 ‘오약손’계(하늘색 직사각형)는 충청남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어형이다. 이는 (2)번의 ‘외약손’과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이나, 어두 모음이 ‘오’로 변화하여 굳어진 어형이다. 충남 공주, 금산, 논산, 계룡 및 전북 장수에서 ‘오약손’이 나타나며, 충남 예산에서는 ‘오연손’이 확인된다. 특히 충남 서천에서는 ‘손’이 나타나지 않는 ‘오야쪽, 오야짜’가 확인되어 충청 방언 특유의 다채로운 분화 양상을 보여준다.

현대 국어 ‘웬손’ 방언형의 분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어간 모음의 실현 양상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뉜다. (1) ‘웬손’계는 어간 모음이 단모음(니, 기, ㅣ, ㅡ)으로 실현되는 경향이 강한 중부 및 전라권 방언형이고, (3) ‘웬손’계는 이중모음(게, 께) 성격을 띠거나 이로부터 단모음화(게)된 영남 및 제주권 방언형이다(‘웬손’은 이중모음에서 단모음화된 예외적 경우로 볼 수 있음). 다음으로, 어휘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도 나뉜다. (1)과 (3)은 주로 ‘관형사형+명사’(웬+손)의 구성을 따르지만, (2) ‘외약손’계와 (4) ‘오약손’계는 ‘약’이라는 형태소가 결합한 독자적인 복합어 구성을 보인다. 이 ‘약’의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으나, 이 지역 방언에서 ‘웬손’을 지칭하는 어휘 분화의 중요한 표지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웬손’의 방언형은 크게 음운적 변이를 중심으로 분화한 (1), (3) 계열과 형태/어휘적 분화가 두드러지는 (2), (4) 계열로 나눌 수 있다.

■ 찢가락



[해설] ‘젓가락’은 이미 15세기 문헌에 ‘젧가락’(구방 상:42ㄴ)으로 표기된다. 이러한 ‘젧가락’의 방언형은 ‘젧가락’계, ‘제’계, ‘절’계, ‘저뽐’계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정리해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젧가락’계: ㉠ 젧가락, 젧구락, 젧그락 ㉡ 젧갈 ㉢ 젧가치
- (2) ‘제’계: ㉠ 제 ㉡ 젧가락, 젧구락, 젧그락 ㉢ 젧가치
- (3) ‘절’계: ㉠ 절 ㉡ 절가락 ㉢ 절갈
- (4) ‘저뽐’계: ㉠ 저뽐, 저뽐, 저뽐, 제뽐, 저뽐 ㉡ 저금
- (5) 기타: 족순가락, 꺼꿍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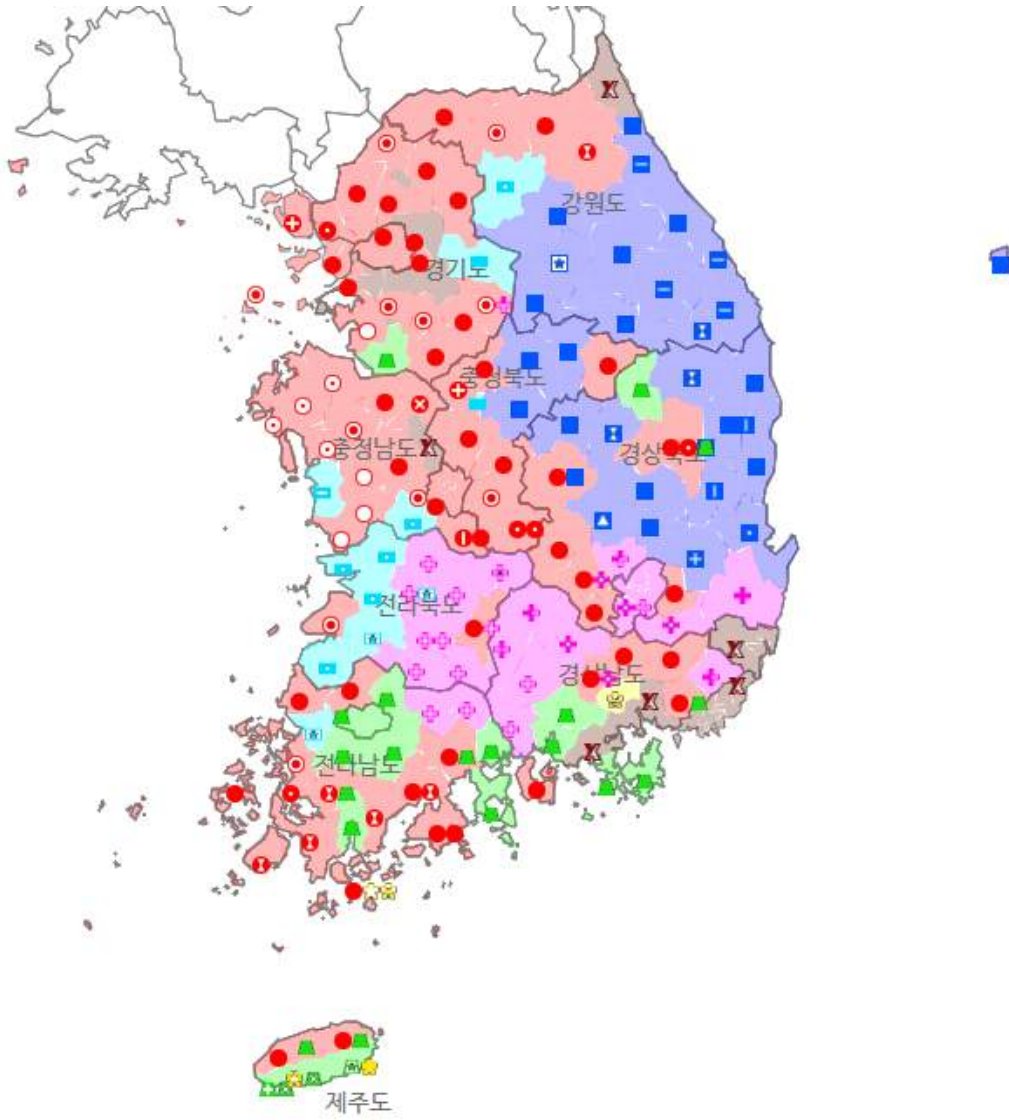
‘젧가락’계는 경기 지역에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도 넓은 분포를 보인다. ‘젧가락’은 문헌어형 ‘젧가락’에서 ‘ㅈ’ 뒤의 반모음이 탈락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15세기 문헌에는 ‘젧가락’뿐만 아니라 동일한 의미의 단어 ‘저’(구방 하:40ㄴ)도 존재한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저’가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대 방언에서 이 ‘저’가 쓰이는 경우는 없는 듯하다. 한편 ‘젧가락’은 ‘저’와 ‘가락’이 결합한 복합어인데 ‘가락’은 ‘갈래’의 의미를 가지는 ‘가락’(월석 8:13ㄴ)에 접미사 ‘-악’이 결합한 파생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젧가락’계의 ‘젧갈’은 그 형성 과정에서 접미사 ‘-악’의 참여가 없는 어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어형은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끝으로 ‘젧가치’는 복합어 구성 요소로서 ‘가치’가 ‘가락’을 대신하는 어형인데 이는 주로 경북 동남부 지역에 분포한다.

‘제’계는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한다. ‘제’는 문헌어형 ‘저’에 ‘ㅣ’가 첨가된 형태이다. 그리고 이 ‘제’에 ‘가락, 가치’ 등이 결합하여 ‘젧가락, 젧가치’ 등의 복합어를 형성한다. 한편 ‘젧가치’는 ‘젧가락’계의 ‘젧가치’가 분포하는 지역과 인접하여 어느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절’계는 강원과 경북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그런데 ‘절’계의 ‘절’이 어원상 문헌어형 ‘저’와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절갈’은 ‘젧가락’계의 ‘젧갈’이 쓰이는 지역에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다.

‘저뽐’계는 전라, 충청, 경상 서부 지역에 분포한다. 그런데 ‘저뽐’계의 어원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저뽐’계의 ‘저금’은 ‘ㅈ-ㄱ’의 교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데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 진눈깨비



[해설] ‘진눈깨비’는 비가 섞여 내리는 눈을 가리킨다. 뜻풀이를 고려하면 이 단어는 ‘-눈’으로 끝나는 형태가 되어야 하나, 전국의 모든 방언형을 통틀어 봐도 ‘-눈’은 아주 소수고 ‘-비’로 끝나는 어형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단어가 ‘진눈깨-비’의 구성을 가지는 말, 결국 ‘비’의 한 종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국적으로 ‘진눈깨비’의 방언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계열로 나뉜다.

(1) ‘진눈깨비’계

- ‘진눈깨비’형: 진눈깨비, 진눈까비, 진눈깨, 진눈
- ‘진누깨비’형: 진누깨비, 지누깨비~지느깨비

(2) ‘진갈비’계: 진갈비, 진갈피, 진개비, 진갈비눈, 진갈눈, 진가리눈

(3) ‘눈비’계: 눈비, 비눈, 비눈깨비, 물눈

(4) ‘진서리’계: 진서리, 진서, 진세, 진태, 진태미

(5) ‘진도깨비’계: 진도깨비, 진두깨비~진드깨비

(6) 기타: 물짐뱅이, 멀루지(제주), 느레, 늦토지(완도), 사무레기(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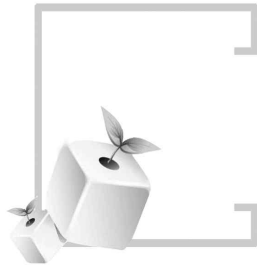
표준어 ‘진눈깨비’계(빨간색 동그라미)가 거의 전역에 분포하는 가운데 다른 여러 어형들이 전국을 분할한다. (1)의 ‘진누깨비’형(‘진눈깨비>진누깨비’)이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 (2)의 ‘진갈비’계(파란색 정사각형)가 강원도 영동 및 경북 중·북부 지역, (3)의 ‘눈비’계(녹색 사다리꼴)가 전남 및 경남 해안 지역에 나타나며 (4)의 ‘진서리’계(분홍색 십자가)가 경남 서북부 및 경북 남부 지역, (5)의 ‘진도깨비’계(하늘색 직사각형)가 전북 서부 지역에 나타난다. 그 외, 어원을 짐작하기는 어려우나 ‘물짐뱅이, 멀루지’(제주), ‘느레, 늦토지’(완도), ‘사무레기’(함안) 등의 어형이 특정 지역에 출현한다.

이들 중 (3)의 ‘눈비’계는 진눈깨비가 ‘비’에 속하는지 ‘눈’에 속하는지를 형태상으로 직접 보여 주는 어형이다. 또 (4)의 ‘진서리, 진서, 진세’는 진눈깨비를 ‘서리’의 한 종류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명칭, (5)의 ‘진도깨비’계는 정해진 형태가 없고 금방 사라져 마치 도깨비가 연상된다고 해서 만들어졌을 만한 명칭이다.

한편 (1)의 ‘진눈깨비’계와 (2)의 ‘진갈비’계는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첫째, ‘진-눈(깨비)’과 ‘진-가리(눈)’는 이들 어형이 ‘진(=물기가 많은)’을 접두어로 가진 말임을 알려 준다. 이로써 보면 ‘진눈깨비’는

비와 섞여 내리는 ‘진눈(=젖은 눈)’을 가리키게 된다. 둘째, ‘진눈깨비’와 ‘진눈까비’의 비교에서 움라우트를 겪지 않은 ‘진눈까비’가 선대형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진갈비’계에 속하는 ‘진가리(눈), 진갈비, 진개비(<\*진가비)’는 ‘솔가리(=땅에 떨어져 쌓인 솔잎)’의 방언형들(‘솔가리, 솔갈비, 솔가비’)과 아주 평행한 대응을 보인다. 이러한 대응으로부터 추론해 볼 때 이들의 후속 요소 ‘-가리/갈비/가비’는 땅에 떨어져 쌓여 있는 ‘작은 더미’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엔 금방 녹지만 진눈깨비가 어느 정도 내리면 바닥에 쌓인 아주 얇은 눈이 슬러시같이 되어 조금 질척이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보통은 진눈깨비를 비가 아니라 눈의 한 종류로 본다.



## 제 6 장

# 지역어 변이 조사의 의의 및 기대 효과



## 제6장 지역어 변이 조사의 의의 및 기대 효과

### 6.1. 사업 결과물

이 연구는 한국어에 관한 언어 다양성 보존 정책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어에 관한 세대별·성별 변이 양상을 조사하여 실제의 언어생활이나 언어 정보화 및 각 지역의 언어문화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 가능한 언어 데이터베이스(방언 지도 포함)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해당 결과물들을 목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결과보고서
-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사진 자료 포함): [별첨 파일]
- 지역어 변이 조사를 위한 조사 및 전사 지침: [붙임 1]
- 전사 자료 정비 지침: [붙임 2]
- 음성 분절화 작업 지침: [붙임 3]
- 방언 지도(어휘·표현 100항목) 작성 및 해설: [별첨 파일]
- 2022 ~ 2024년 조사 자료(구술발화) 가공 [붙임 4]
- 조사 결과물: [별첨 파일]

#### <어휘·표현>

- 전체 녹음(WAV)
- 항목별 녹음 분절(WAV)
- 전사(EAF)
- 결과물 정리(XLS)

#### <구술>

- 전체 녹음(WAV)
- 전사 및 표준어 대역(EAF)

### 6.2. 의의 및 기대 효과

이번 조사·연구를 통해 전국적으로 표준어화가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조사가 더 진행된다면 지역별, 세대별, 성별에 따른 표준어화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처럼 맹렬한 표준어화 과정 속에서도 전통적 방언형이 존속해 있거나 신형이 새로 나타난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결국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방언을 형성하게 되는 셈인데 이로써 앞으로의 조사 결과는 그러한 표준어와 사투리 사이의 경쟁 및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초 자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리라 판단된다.

아울러 전통 방언형의 분포를 확인하고 해당 방언형들의 변화 과정을 살필 수 있게 하는 방언 지도를 제작하는 일도 언어 다양성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임을 확신하게 된다.

### 1) 의의

이 연구에서는 전문적인 조사원들의 조사 작업을 통해서 지역별, 세대별, 성별 요소에 따라 드러나는 언어상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전국적으로 표준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70대 이상에서 전통 지역어형이 유지되고 있다.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지역어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항목들이 발견된다.
- (2) 세대별 분화는 70대 이상에서 사용되는 구형이 20대가 사용하는 신형으로 바뀌는 언어변화의 과정을 보여 준다. 이때의 구형은 전통 지역어형, 신형은 표준어형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세대별 분화가 꼭 표준어화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음식점 장년 여성’에 대한 호칭에서처럼 표준어형 사이의 변화 즉 ‘여기요’에서 ‘저기요’로 바뀌어 감을 알려 주기도 하는 것이다. 심지어 ‘너-가’에서 보듯 비표준어 ‘니가’가 확대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 (3) ‘씨비스(덤), 아빠다리(가부좌), 내비/넵 뒤(내버려 뒤)’ 등 20대를 중심으로 신방언형이 확산되고 있다.
- (4) 지역어형 ‘누리, 유리(우박)’ 등이나 표준어형 ‘다듬잇돌, 목말, 바구미’ 등에서 보듯, 자연물이나 문물 또는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어휘는 표준어형이든 지역어형이든 상관없이 사어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한정된 제보자를 통한 결과라는 점에서 일반화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잠정적인 결과를 통해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사어화를 겪고 있는 단어들에 대한 조사는 사전학적인 의의를 가진다. 이들 단어는 다음 세대에서는 결코 조사할 수 없으므로 지금 현재, 해당 단어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더 충실히 해 놓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런 단어들은 형태뿐 아니라 용례를 많이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 언어변화의 단계 즉 이해어로서 남아 있는지, 실제 용례에 기반한 구사어로서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도/인지도’ 조사 또한 필요하다.

둘째, 신방언의 출현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도 언어정책적으로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이런 신방언을 통해 가깝게는 지역어가, 지난 세대의 유산으로서만 존재한다는 의식을 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신방언의 생성 및 확산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방언화자의 의식 나아가 한국인의 언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방언학적으로 조사 방법 및 조사 결과 정리·분석의 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지의 사실이기는 하지만, 전통적 의미에서의 방언 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70대 이상의 제보자,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기대 효과

이 연구는 세대와 성별이라는 사회적 변인을 고려하여 지역어를 조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면에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2022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이 개시된 이후, 연차 사업으로서 거의 공통적인 결과를 보여 준다.

첫째, 한국어 사용에서 지역과 세대,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사회적 변수에 따른 언어의 변화를 사회와 관련지어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이 가지는 언어사회적 통념에 대한 반성이 가능해진다. 언어가 항상 변화한다는 사실, 나아가 언어의 역동성 및 자율성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로부터 지역어를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만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질문지는 기존의 노년층, 농촌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청년층과 장년층, 그리고 도시 지역 거주자도 두루 응답할 수 있도록 주제와 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세대와 성별 그리고 지역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대안 질문을 추가하였으며 각 조사 항목에서는 사용어, 이해어

및 미사용어를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추후에 지역 방언뿐만 아니라 도시 방언을 조사할 때도 기준이 되는 질문지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엘란(ELA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어 어휘와 구술발화에 대한 전사를 실시하였다. 엘란을 활용한 전사 자료는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물은 다양한 음성 자료 및 영상 자료의 결과물들과 비교 및 분석할 수 있어서 언어 정보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전문적인 언어 조사 요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어 조사 사업에 참여한 조사원의 경력 차이로 인해 아직은 조사 수준의 편차가 크지만 지속적인 언어 조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언어 조사 방법에 대한 교육과 실제 조사의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훌륭한 언어 조사원을 양성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 사업을 통해서만 20여 명의 전문 조사원을 확보하게 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판단된다.

다섯째, 다양하고 입체적인 한국어 자료를 축적하여 확보함으로써 한국어 분야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사회학, 문화 예술 분야로 연구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어 빅데이터 자료에 입각한 인공지능(AI)을 구축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나아가 영화, 연극, 문학작품, 드라마 등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한류를 확산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일도 가능하다.

여섯째,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삶의 궤적을 음성 자료와 전사 자료로 기록하고 무형 문화로서의 우리말을 축적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다. 그 결과, 해당 자료들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초 자료 구축에 기여하게 된다.

### 3) 제언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① 조사 일반

이번 사업의 조사 지점(9개)은 대체로 통합 대도시(홍천, 부천, 김해, 구미, 광양, 정읍, 서귀포, 천안, 진천)였는바 여러 언어 변종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해당 대도시 안에서 어느 정도의 전통적 생활권을 고려하여 제보자를 달리 선정·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토박이 조건을 준수하여 조사했다 하여도 선택된 제보자가 해당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조사 항목을 500개로 한정하여 질문지를 만들고 실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다음과 같이 추가로 더 조사했으면 하는 항목들이 발견된다.

첫째, 기존의 전통어 중심의 지역어 조사 결과들과 비교하면서 언어생태 환경(사어화 포함)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어휘를 어느 정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대별 차이를 확연히 보일 만한 단어, 예를 들어 경어법 관련 단어 또는 70대가 이해할 수 있는 외래 어휘 등을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별 차이를 보일 수 있을 만한 단어, 예를 들어 신어 또는 특정 성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휘들을 조사 항목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 ② 구술발화

이번 조사 지점이 대도시였던 까닭에 특히 구술발화 속에 나타나는 제보자들의 생활 유형이 어느 정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므로 이 또한 전통적 생활권을 고려하여 제보자를 달리 선정·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③ 어휘·표현

‘사용도/인지도’는 언어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일정 수 이상의 제보자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휘·표현 항목에 대한 ‘사용도/인지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보자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부 어휘·표현 항목에서는 50대 이상의 여성 제보자와 남성 제보자 간의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정말 그러한지 검토하는 일도 필요해 보인다. 그러므로 연차적으로 더 많은 제보자에 대한 질적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운소 측면의 전사를 다시 도입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 ④ 결과물의 활용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에서는 세대별 언어에 주목하였는바 구체적이며 주체적인 언어문화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20대 뿐 아니라 세대 전반에 걸쳐 남편 호칭, 아내 지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언어 예절에 대한 다양성 및 혼란상이 확인되었는바 이와 같은 규범의 실제 적용 및 변형의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심층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곽충구(2007), 방언의 사전적 수용, 《국어국문학》 147, 국어국문학회.
- 김덕호(2006), 연령별 계층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김수영(2020), 한국어 방언 접촉 양상에 대하여, 《방언학》 32, 한국방언학회.
- 박경래(2012), 국어사전과 방언의 수용, 《방언학》 16, 한국방언학회.
- 방언연구회 편(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 신우봉(2015), 제주 방언 단모음과 어두 장애음의 음향 음성학적 연구, 박사논문 (고려대).
- 이기갑(2010),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의 성과와 활용 방안, 《새국어생활》 20-3, 국립국어원.
- 이상신(2020), 언어 및 방언의 접촉과 이에 따른 변화, 《방언학》 32, 한국방언학회.
- 이익섭·전광현·이광호·이병근·최명옥(2008), 《한국언어지도》, 태학사.
- 임석규(2021), 《국어 음운론의 기초》, 역락.
- 임석규(2022), 《국어 성조의 이해》, 역락.
- 정승철(2018), 《방언의 발견》, 창비사.
- 정승철(2022),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개정판), 태학사.
- 정인호(2011), 의문형 종결어미의 방언 분화, 《방언학》 14, 한국방언학회.
- 정인호(2022), ‘하-’ 관련 어형들의 방언사, 《방언학》 36, 한국방언학회.
-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편(2006), 《지역어 조사 질문지》, 국립국어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 《한국방언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Chambers, J.K. & P. Trudgill(1980), *Dialect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연구보고서

- 국립국어원, 2021년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
- 국립국어원, 2022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 국립국어원, 2023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 국립국어원, 2024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 [붙임 1] 지역어 변이 조사를 위한 조사 및 전사 지침

### 1. 조사 지침

#### ※ 제보자 선정 기준

- ① 토박이 조건: 연령별 제보자 모두 **3대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어머니는 가급적 동일 지역 출신이어야 하나, 동일 방언권도 허용한다. 예) 영동/영서, 경북/경남
- ② 학력 조건: ■ 70대(가급적 국민학교 이하) ■ 50대(고등학교 이하) ■ 20대(대학교 이하)  
cf. 이주 경험: 군대 경력은 고려하지 않으나, 다른 대방언권에서 대학 다닌 경우는 배제.  
  
cf. 제보자 요건이 충족되면 한 가족(또는 친척) 내에서의 세대별 조사도 가능하다.

#### ※ 조사 시 주의 사항(어휘·표현 / 구술발화 공통)

- ① 질문문을 그대로 읽기보다는 조사항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인지한 후 제보자의 여건이나 주어진 상황에 알맞게 변용한다. cf. 동질감 확보를 위해 가급적 해당 지방의 ‘어미(-응게 등)’도 활용/해당 지역이나 인접 지역의 방언형도 메모, 숙지.
- ② 음성 자료의 분절(segmentation)을 고려하여, 어휘·표현이나 구술발화의 경우에는 제보자가 응답이 끝난 후 적당한 휴지를 확보한다.
- ③ 어휘·표현 조사보다 구술발화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전형적 어형 출현 기대). 어미의 형태가 어휘 조사와 다를 경우, 구술발화에서 확인한 어미가 우선된다.

### < I > 어휘·표현 조사 지침

#### 1. 질문지를 활용한 조사

- (1)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그림책』 또는 그림 파일을 활용한다.
- (2) 질문지에 조사 지시가 없어도 반드시 곡용형과 활용형의 기저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해야 한다. 질문지에 제시된 조사나 어미는 조사원의 판단에 따라 기저형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조사나 어미로 대체할 수 있다. 예) 발은 → 발을

#### 2. ‘사용도/인지도’에 대한 조사

- (1) ‘사용도/인지도’의 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당란에 ○이나 √ 표시를 한다.

- ① 사용 -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있음
- ② 이해 - 써본 적은 있으나 현재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음
- ③ 인지 - 써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은 있음
- ④ 무지 - 써본 적도 없는 처음 들어보는 말임

cf. 조사 시 구분이 모호한 경우는 가급적 ‘인지’로 처리한다. 또한 제보자의 첫 번째 응답형은 ‘사용도/인지도’를 조사하지 않고 ‘① 사용’으로 처리한다.

- (2) 선택식 질문의 경우에는 응답한 방언형들을 순서에 따라 기록하며, 응답한 방언형들의 순서에 따라 ‘사용도/인지도’를 순서대로 조사하여 표시한다. [주의]에 있듯이 제시되지 않은 단어가 나올 경우에는 새로운 방언형을 기록한 후 인지도를 조사한다.
- (3) 해당 세대나 지역에서 전형적인 방언형이 있음에도 표준어형으로만 응답할 경우, 조사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세대나 지역의 방언형에 대한 ‘사용도/인지도’를 확인한다.

### 3. 어휘·표현 조사의 유의점

####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① ‘에/애’의 변별 여부(예: 떼/때, 세-/새- 등)      ② ‘으/어’의 변별 여부 (예: 글/걸, 들어/덜어 등)
- ③ ‘위, 외’의 발음 (예: 쥐, 외가 등)                      ④ 비모음화 실현 여부 (예: 산+이, 강+이 등)

- (2) 자료 정리 시 음성 자료의 분절(segmentation)을 고려하여 최대한 해당 지역의 자연스럽게 전형적인 방언형이 나올 수 있게끔 응답을 유도한다.

걸음마/↗(x)                      귀#고리(x)                      분#리#수#거(x)

- (3) 어간 재구조화나 여러 음운 현상으로 인하여 기저형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곡용형이나 활용형을 추가로 조사하여 기저형을 확인해야 한다. 곡용형과 활용형을 능숙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제보자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할 때도 있다.

배터, 배튼다 → ‘뱃다/뱃트다’ - 기저형 확인 불가  
 겨드랑이, 테기(턱+이) → ‘겨드랑/겨드랑이, 턱/턱/테기’ - 기저형 확인 불가

## <II> 구술발화 조사 지침

- 1. 질문지를 활용한 조사: 질문문 숙지, 관련 지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지역 유래, 특산품 등).
- 2. 구술발화 조사의 유의점
  - (1)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자와 제보자 간에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한다.
  - (2) 제보자의 발화를 가장 많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주제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 (3) 특정 주제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Ⅲ> 녹음기 사용법

1. 녹음을 미리 해 보고 녹음이 잘되는 방법을 터득해 두도록 한다.
2. 다음 절차에 따라 현지에서 녹음을 진행한다.

#### (1) 녹음 환경

- ① 양질의 음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지 조사 시 소음을 최소화한다. 특히 휴대 전화 사용을 통제한다.
- ② 질문과 응답이 겹치지 않도록(조사자가 제보자의 말에 동조하는 “예, 예 맞습니다.” 등을 통제한다.
- ③ 말소리 이외의 기타 소음(매미 소리, 바람 소리 등)이 녹음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한다.
- ④ 질문 이후에 약간의 휴지(200ms 이상)를 두고 응답할 수 있도록 주의를 준다.

#### (2) 녹음 전 준비

- ① 음성 녹음 기자재는 TASCAM DR-05X로 한다.
- ② 녹음기 준비물 확인: 녹음기, 메모리카드, 카드리더기
- ③ 녹음기(후면)에 배터리 삽입: AA 2개
- ④ 녹음기(우측)에 SD카드 삽입
- ⑤ 전원 켜기
- ⑥ 언어 선택(한국어)
- ⑦ 녹음 설정 확인

형식: WAV 16bit
샘플: 44.1K
채널: 스테레오→모노
크기: 2G
MIC 전원: 켜기
로우컷: 끄기

#### (3) 녹음기 사용

- ① 전원을 켜 상태에서 REC 버튼을 누른다: 녹음기 용량을 확인한다.
- ②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제보자들과 간단한 대화를 하면서 입력 볼륨을 조절한다(PEAK 표시에 빨간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절한다).
- ③ ▶(PLAY)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실시한다(REC 표시를 확인하며, 녹음을 잠깐 멈추고 싶을 경우에는 ▶(Play)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PLAY) 버튼을 누른다).
- ④ 녹음 중인 소리를 점검하려면 이어폰을 녹음기 왼쪽 측면의 헤드폰 단자에 연결한다.
- ⑤ 녹음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HOME) 버튼을 누른다.

## 2. 전사 지침

# 지역어 변이 조사 표기 지침

2025. 09. 06.

## < | > 어휘 · 표연 기저영 표기 지침

### 1. ‘엘란’ 작업 지침

메타데이터	조사지역: 계	20101	20102	2010
항목번호		20101	20102	2010
표준어형		가마	새치	이마
방언형(어절)		가메렌	새치엔	이몸
방언형(기저형)		가메	새치	이몸
발음정보				
인지도/사용도		1	2	2
부가정보		소름		
개인정보유무				
음성상태				

[그림 29] 엘란(Elan)에서의 전사 예시(어휘 · 표연)

- (1) 메타데이터 : ‘조사지역, 조사연도, 조사내용, 주제보자이름, 주제보자성별, 주제보자출생연도’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 (2) 방언형(어절)
- ① 해당하는 한 어절(띄어쓰기 단위)을 형태음소 전사한다.
  - ② 친족 명칭 등에서 개인정보(인명)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음절수만큼 ‘o’(알파벳 소문자)로 비식별화하고 ‘개인정보유무’란에 ‘유’라고 적는다.
- (3) 방언형(기저형)
- ① 해당 방언형(어절)의 어간 기저형을 표기한다.
  - ② 친족 명칭 등에서 개인정보(인명)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음절수만큼 ‘o’(알파벳 소문자)로 비식별화하고 ‘개인정보유무’란에 ‘유’라고 적는다.
- (4) 발음정보 : ‘방언형(기저형)’의 발음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 그 발음을 적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① 특정 방언형(기저형)의 발음이 ‘공통 발음정보’(3쪽의 (3)항)와 다른 경우  
 예 해당 제보자의 경우에 공통 발음정보에서 비모음화가 실현된다고 했는데 특정 ‘방언형(기저형)’에서 비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비모음화 비실현’이라 적는다.
  - ② ‘공통 발음정보’의 사항 이외의 발음이 표준발음과 다른 경우  
 예 ‘막일꾼’이 [망닐꾼]이 아닌 [마길꾼]으로 발음되는 경우 ‘마길꾼’을 적는다.
  - ③ 기타 특기할 만한 경우  
 예 전라도 방언의 ‘장닥(수탉)’은 ‘발음정보’란에 ‘장닥/장딱’을 적는다.
- 【붙임】** ‘9-4 필수 음운’의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발음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한다.
- (5) 사용도/인지도 : 해당 번호를 적는다.
- (6) 부가정보
- ① 발음정보 이외(문법, 의미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② 내용만 입력하고 ‘+ , - , ( )’ 등의 어떠한 기호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7) 개인정보유무 :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유’라고 적는다.
- (8) 음성상태 : 음성 상태에 대해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때 그 사항을 적는다.
- (9) 비고 : ‘방언형(기저형)’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 ‘기저형 설정 불가’를 적거나, 기타 기저형 표기와 관련해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적는다.

## 2. 표기 원칙

(1) 기저형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① 용언의 경우는 어미 ‘-다’의 결합형을 적는다.

예 안저, 안저고 ⇒ 안저다 || 건저, 건저고 ⇒ 건지다

뭉꺼, 뭉끼고 ⇒ 뭉기다 || 찡허, 찡ㅎ고 ⇒ 찡ㅎ다

**【붙임】** 표준어의 ‘지, 치, 찌’ 발음이 ‘저, 처, 찌’로 대응되는 어간은 소리대로 적는다. ‘저, 처, 찌’로 적지 않음에 유의하도록 한다.

예 건저, 건저고 ⇒ 건저다 || 다쳐, 다쳐고 ⇒ 다쳐다 || 찌서, 찌고 ⇒ 찌다

② 체언을 비롯한 나머지 단어의 경우는 조사를 배제한 단독형을 적는다.

예 꽃을, 꽃도 ⇒ 꽃 || 부역을, 부역도 ⇒ 부역 || 돌궂, 돌궂도 ⇒ 돌궂

빨리도 ⇒ 빨리

③ 구절이나 문장 표현은 표제어의 구조에 맞추어 적는다.

(2) 의미와 형태면에서 방언형이 표제어에 정확히 대응하는 경우에만 ‘방언형(기저형)’을 적는다. 정확히 대응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는 ‘방언형(기저형)’란을 비워 두고 ‘비고’란에 ‘기저형 설정 불가’를 적는다.

① 표제어와 방언형의 품사가 다른 경우

예 표제어(명사) / 방언형(동사): 도배 / 벽보른다

② 표제어와 방언형의 문법 단위 크기가 다른 경우

예 표제어(단어) / 방언형(구): 길들이다 / 질을 들이다

(3) 다음의 공통 발음정보는 <제보자 조사표 -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에서 따로 제공한다.

① ‘에 / 애’의 변별 여부

② ‘으 / 어’의 변별 여부

③ ‘위, 외’의 발음

④ 비모음화 실현 여부

⑤ 격음화 여부

**【붙임1】** 격음화는 장애음으로 끝나는 어근 또는 어간 뒤에 ‘하다’(접미사), ‘한테, 하고’(조사) 등이 결합하는 경우와 합성어에서의 격음화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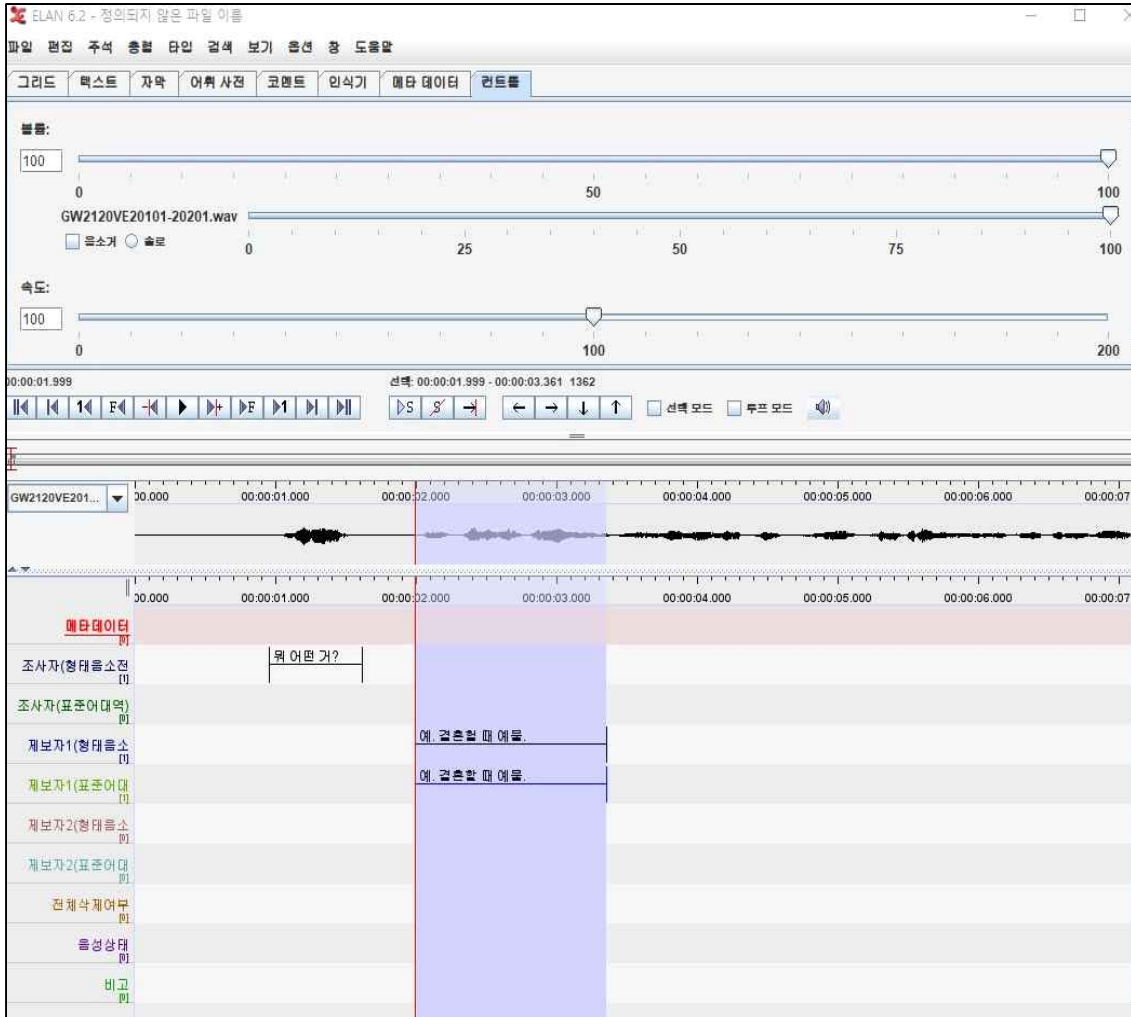
예 섭섭하다[섭썩과다], 닭한테[다칸테], 밥하고[바과고], 꽃향기[꼬탕기]

**【붙임2】** 위 사항 이외의 발음정보는 각 항목의 ‘발음정보’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한다.

(4) 표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Ⅱ. 구술발화 표기 지침(2. 표기 원칙)≫에 따른다.

## <II> 구술발화 표기 지침

### 1. ‘엘란’ 작업 지침



[그림 30] 엘란(Elan)에서의 전사 예시(구술발화)

- (1) 메타데이터 : ‘조사지역, 조사연도, 조사내용, 주제보자 이름, 주제보자 성별, 주제보자 출생연도’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 (2) 조사자·제보자(형태음소전사)
  - ① <2. 표기 원칙>에 따라 조사자와 제보자의 해당 파일을 형태음소전사한다.
  - ② 다음의 경우에는 빈칸으로 둔다. 다만 빈칸으로 인한 녹음 분량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전체를 비식별화해야 하는 경우

㉔ 전체적으로 음성상태가 불량하여 전사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붙임1】** ‘형태음소전사’란이 빈칸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삭제여부’란에 ‘삭제’를 적거나 ‘음성상태’란에 ‘불량’을 적도록 한다.

**【붙임2】** 개인정보 비식별화 : 개인정보 여부는 전사자의 판단에 따르고 비식별화한 경우에는 음성파일의 해당 부분을 반드시 묵음 처리하도록 한다.

㉕ 전체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경우에는 형태음소 전사를 하지 않고 빈칸으로 둔다. 해당 문장을 제외한 앞뒤 2문장(총 5문장) 사이에 제시된 내용에서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두 정보를 조합해서 찾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㉖ 부분적인 개인정보는 해당 부분 앞과 뒤에 ‘&’를 붙여서 적는다.

㉗ 인명,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각각 ‘&인명&, &상호명&, &주민번호&, &카드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과 같이 비식별화한다.

예) 어제 홍길동이 왔는데 ⇒ 어제 &인명&이 왔는데

㉘ 파일 내에 여러 인명이 나오는 경우에는 ‘&인명1&, &인명2&, &인명3&, …’과 같이 구별하며 나머지의 경우도 동일하다.

㉙ 상호명은 부정적인 경우에만 비식별화한다.

㉚ 정치적 비판, 특정 집단(장애인 등) 비하, 특정인 비난 등의 내용도 비식별화한다.

**【붙임3】** 부분적으로 음성상태가 좋지 않아 전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표준어 대역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㉛ 음절수를 헤아릴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음절수만큼 ‘x’(알파벳 소문자) 표시를 하고 해당 어절의 처음과 끝에 ‘(( ))’(겹괄호)를 붙인다. 예) ((xxx해야)) 되겠더라

㉜ 음절수조차 헤아리기 힘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겹괄호)만을 적는다.

**【붙임4】** 비속어는 해당 단어의 앞과 뒤에 ‘@’를 붙여서 비식별화하고 음성파일의 해당 부분을 반드시 묵음 처리하도록 한다. 예) @개새끼@라고

(3) 조사자·제보자(표준어대역) : 표준어로 직역하여 적는다.

(4) 전체삭제여부 :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형태음소전사’란이 빈칸인 경우에만 ‘삭제’를 적고 그 밖에는 빈칸으로 둔다.

(5) 음성상태 :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음성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불량’을 적고 그 밖에는 빈칸으로 둔다.

(6) 비고 : 기타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적는다.

**【참고1】** ≪I. 기저형 표기 지침≫과 동일하게 다음의 공통 발음정보는 <제보자 조사표 - 제보

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에서 따로 제공한다.

- ① ‘에 / 애’의 변별 여부                      ② ‘으 / 어’의 변별 여부
- ③ ‘위, 외’의 발음                              ④ 비모음화 실현 여부
- ⑤ 격음화 여부

**【참고2】** 구술발화 분절은 하나의 문장을 단위로 하여 분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종결어미가 없는 경우에도 하나의 문장이 성립된다면 분절하도록 한다.
- ㉡ 하나의 문장이 연결어미에 의해 계속 이어진다면 적당한 선에서 분절하도록 한다.
- ㉢ 다른 문장과 함께 발화되는 ‘예, 아뇨’ 등의 감탄사는 따로 분절하지 않는다.
- ㉣ 너무 짧은 문장이 연속되면 여러 문장을 합쳐서 분절할 수 있다.

## 2. 표기 원칙

(1)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는 글자 이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jɨ]’는 ‘이으’로 적고 ‘으’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jɨ:ŋgam](영감) ⇒ 이응감

② ‘[jö]’는 ‘이외’로 적고 ‘외’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jö] ⇒ 이외

③ 상향이중모음 [ɥa]는 어간 기본형에 따라 ‘ㅍ아’ 또는 ‘피아’로, [ɥə]는 ‘ㅍ어’ 또는 ‘귀어’로 적고 ‘와, 위’ 등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mollɥa](물류-아) ⇒ 물류아    ||    [tɥa:](되-아) ⇒ 되아

[əllɥə](얼류-어) ⇒ 얼류어    ||    [t'ɥə:](뛰-어) ⇒ 뛰어

**【예외】** 제주방언의 ‘으(아래아), 으(쌍아래아)’는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는데 <훈글>에서 타이핑한 후에 <엘란>에 복사하도록 한다.

예 불바(뽀아) ⇒ 뽀다    ||    으똥(여똥) ⇒ 으똥

④ 비모음은 대응하는 표준어에 따라서 ‘ㄴ’ 또는 ‘ㅇ’을 적되, 대응하는 표준어형을 알기 힘든 경우에는 ‘ㅇ’을 적는다. 이에 대한 발음정보는 ‘공통 발음정보’에서 따로 제공한다.

예 [ãɪda](不) ⇒ 아니다    ||    [mãi](多) ⇒ 많이

[pãã](臼) ⇒ 방아    ||    [solbɪi](솔개) ⇒ 솔빙이

**【붙임】** 비모음의 [비음성]이 완전히 탈락한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고 ‘ㄴ’ 또는 ‘ㅇ’을 적지 않는다.

예 [aida] ⇒ 아이다    ||    [talp<sup>h</sup>ei] ⇒ 달패이

(2) 표준어에 있는 자음군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적고 표준어에 없는 자음군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① 조사나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느냐(단독형 포함), 모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리 적는다.

② 단독형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뒷자음을 따로 적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뒷자음을 후행음절의 초성자로 적는다.

㉠ 체언의 경우

예 {달ㄱ}(닭): 달ㄱ만(-만), 달ㄱ도(-도), 달ㄱ(-이), 달ㄱ(-을)

{지붕ㄱ}(지붕): 지붕ㄱ만(-만), 지붕ㄱ도(-도), 지붕ㄱ(-이), 지붕ㄱ(-을)

㉡ 용언의 경우

예 {몽ㄱ}(몽-): 몽ㄱ는(-는), 몽ㄱ고(-고), 몽ㄱ(-어), 몽ㄱ(-은)

{양ㄱ}(양-): 양ㄱ는(-는), 양ㄱ고(-고), 양ㄱ(-어), 양ㄱ(-은)

{삼ㄱ}(삼-): 삼ㄱ는(-는), 삼ㄱ고(-고), 삼ㄱ(-아), 삼ㄱ(-은)

{짱ㅎ}(짱-): 짱ㅎ는(-는), 짱ㅎ고(-고), 짱ㅎ(-어), 짱ㅎ(-은)

{음쓰-}(을-): 음쓰는(-는), 음쓰고(-고), 음써(-어)

【예외】 ‘을’은 후행하는 어미에 상관 없이 ‘르ㅎ/’으로 적는다.

예 {끓-}(끓-): 끓는(-는), 끓고(-고), 끓어(-어), 끓은(-은)

【붙임】 표준어형 ‘끓고’에 대응하는 방언형이 [끈꼬, 끄꼬] 등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끈고’와 같이 ‘ㄴ’말음 어간으로 적는다.

(3) ‘위, 외’ 표기

① 표준어의 ‘위’에 대응하는 [ü], [wi]는 모두 ‘위’로 전사하고 발음정보는 ‘공통 발음정보’에서 따로 제공한다. 다만 하향이중모음 [uj]는 ‘우이’로 적는다.

예 귀(耳): [kü]/[kwi] ⇒ 귀 || [kuj] ⇒ 구이

② 표준어의 ‘외’에 대응하는 [ö], [we], [we], [wE]는 모두 ‘외’로 적고 발음정보는 ‘공통 발음정보’에서 따로 제공한다. 다만 하향이중모음 [oj]는 ‘오이’로 적는다.

예 외가(外家): [öga]/[wega]/[wEga]/[wEga] ⇒ 외가 || [ojga] ⇒ 오이가

(4) ‘의’ 표기

① 자음에 후행하는 ‘의’가 [i]로 발음될 때는 대응하는 표준어에 준해서 ‘의’ 또는 ‘이’로 적는다.

예 [힌떡](힌떡) ⇒ 힌떡 || [무니](무늬) ⇒ 무늬 || [띠운다](띠우다) ⇒ 띠운다

예 [모디](마디) ⇒ 모디 || [아니](아니) ⇒ 아니 || [버틴다](버티다) ⇒ 버틴다

② 자음에 후행하는 ‘의’가 [i]로 발음될 때는 발음대로 적는다.

예 [흔떡](힌떡) ⇒ 흔떡

③ 자음에 후행하는 ‘의’가 하향이중모음 [ij]로 발음될 때는 ‘으이’로 적는다.

예 [kij](게) ⇒ 그이 || [mundij](문둥이) ⇒ 문드이

④ 선행자음이 없는 ‘의’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ijisa](의사) ⇒ 의사 || [isa](의사) ⇒ 이사 || [isa](의사) ⇒ 으사

⑤ 속격조사 ‘의’도 소리대로 적는다.

예 [naij] ⇒ 나의 || [nae] ⇒ 나에 || [nai] ⇒ 나으 || [nai] ⇒ 나이

【예외】 속격조사 ‘의’가 모음 어간 뒤에서 [예]로 소리가 나더라도 ‘에’로 적는다.

예 [우리에](우리의) ⇒ 우리에 || [뇌예](뇌의) ⇒ 뇌에

【붙임】 제(1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속격조사 ‘으’의 원순모음화는 반영하지 않는다.

예 [나무 집](남의 집) ⇒ 남으 집

(5) 기타 이중모음 표기

① 하향이중모음 [aj, aj]는 각각 ‘아이, 어이’로 적는다.

예 [sajni](상-이) ⇒ 사잉이 || [sajni](성-이) ⇒ 서잉이

② 비모음화 후에 [비음성]이 탈락하여 형성된 [ij](<[ii])는 ‘이이’가 아닌 ‘이’로 적는다.

예) [mundij](<[mundi], 문둥이) ⇒ 문디 || [hadijman](하-더니만) ⇒ 하디만

【예외】 제15항의 【예외2, 3,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는다.

예) [hes'ij](했으니) ⇒ 했이어 || [f'idzijk'ene](찢으니까) ⇒ 찢이어깨네  
[tarij](<[tari], 다른#이) ⇒ 다리어 || [mijnda](먹인다) ⇒ 미인다

③ 표준어의 ‘ㄷ’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예) [kjeran](계란) ⇒ 계란 || [keran] ⇒ 케란

④ ‘ㅅ, ㅆ’이 ‘ㄷ, ㅌ’ 앞에서 [ʃ, ʃ']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모음을 ‘ㅈ, ㅊ’로 적는다.

예) [ʃ'eda](세다) ⇒ 세다 || [ʃɛ](새) ⇒ 새

【붙임】 [ʃʷe, ʃ'ʷe, ʃʷe, ʃ'ʷe]는 각각 ‘쉬에, 썬에, 쉬에, 썬에’로 적는다.

예) [ʃʷephram](휘파람) ⇒ 쉬에파람

(6) 모음의 대립이 상실된 경우(㉠ 경상·전라 방언의 [E]('에'와 '애'의 비변별), ㉡ 경상 방언의 [ɔ]('으'와 '어'의 비변별)는 다음과 같이 적고 발음정보는 ‘공통 발음정보’에서 따로 제공한다.

① 대응 표준어가 있는 방언형은 표준어에 따라서 적는다.

예) [tʰE](輪) ⇒ 테 || [tʰE](胎) ⇒ 태  
[kɔ] (書) ⇒ 글 || [kɔ] (吳) ⇒ 걸

② 대응 표준어가 ‘여’이거나 음라우트의 피동화음이 ‘어, 오’인 경우에는 ‘에’로, ‘야’이거나 음라우트의 피동화음이 ‘아’인 경우에는 ‘애’로 적는다.

예) [pE](벼) ⇒ 베 || [Emi](어미) ⇒ 에미 || [kEgi](고기) ⇒ 게기  
[p'Em](뺨) ⇒ 뺨 || [Ebi](아버) ⇒ 애비

③ 한 단어 안에서는 모음조화를 고려하여 적는다.

예) [homEji](호미) ⇒ 호맹이

④ 대응 표준어가 없고 어원이 불확실한 경우, ‘[E]’는 ‘에’로, ‘[ɔ]’는 ‘어’로 적는다.

예) [kEgotʰEji](자치기) ⇒ 게고탱이

【붙임1】 표준어 ‘-으니까’의 ‘까’에 대응하는 모음 ‘[E]’는 ‘-으니께, -으니개, -응께, -응개, -응께네’ 등과 같이 ‘애’로 적는다.

【붙임2】 표준어 ‘-은/는가 봐, -나 봐’의 ‘봐’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은/는가베, -나베’ 등과 같이 ‘에’로 적는다(제24항에 의거하여 붙여 쓰에 유의).

(7) 경음·격음

① 형태소 내부의 경음 표기는 <한글 맞춤법>을 따른다.

예) [조끔](조금) ⇒ 조끔 || [깜빡](깜빡) ⇒ 깜빡  
예) [국짱이] ⇒ 국징이 || [혹찌] ⇒ 혹지

【붙임】 한자어의 경우에 대응 표준어의 평음이 경음으로 발음되면 경음으로 적는다.

예) [지끔](지금) ⇒ 지끔 || [간따나다](간단하다) ⇒ 간따하다

② 체언어간말 유음·비음 뒤에서의 경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격음화는 소리대로 적

는다.

예 [말또](말-도) ⇒ 말도 || [돈또](돈-도) ⇒ 돈도

예 [여자들또](여자들-도) ⇒ 여자들도

【예외】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경음과 격음 모두 소리대로 적는다.

예 [하나또](하나도) ⇒ 하나또 || [하나토] ⇒ 하나토

(8) 한자어·외래어·숫자

① 한자어에서 ‘ㄴㄴ’이 ‘ㄹㄹ’로 실현되는 경우 ‘ㄹㄴ’으로 적는다.

예 [열련](年) ⇒ 열년 || [솔려](孫女) ⇒ 솔녀

② 한자어에서 앞음절 종성 ‘ㅇ, ㅁ’이 ‘ㄴ’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분철하여 ‘ㄴ’으로 적는다.

예 [과냥](광양) ⇒ 관양 || [지녁](징역) ⇒ 진역

[다님](담임) ⇒ 단임 || [치님](침입) ⇒ 친입

③ 한자어에서의 ‘ㄴ’첨가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함냥, 전녁, 공농, 탈령] ⇒ 함양, 전역, 공용, 탈영

④ 한자어에서 ‘ㄴ’과 ‘ㄹ’ 뒤의 ‘ㅎ’이 규칙적으로 각각 ‘ㄴ’과 ‘ㄹ’로 바뀌는 경우에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ㅎ’을 그대로 표기한다.

예 [은행, 전하, 올래, 발현] ⇒ 은행, 전하, 올해, 발현

⑤ 외래어는 소리대로 적는다. 특히 [쓰] 발음의 경우에 유의하도록 한다.

예 [원눔](원룸) ⇒ 원눔 || [월룸] ⇒ 월룸

[써비쓰] ⇒ 써비쓰(○)/써비스(×)/서비스(×)

【예외】 외래어의 발음이 [ㄷ]인 경우에는 ‘ㅅ’으로 적는다.

예 [아웁](아웃) ⇒ 아웃

⑥ 아라비아숫자는 적지 않도록 한다.

예 [두개](두 개) ⇒ 두 개(○) || [두개] ⇒ 2개(×)

(9) 음라우트

① 음라우트는 표기에 반영하되 형태소 경계가 있으면 분철한다.

예 [두루매기](두루마기) ⇒ 두루매기 || [에미](어미) ⇒ 에미

[배비](밥-이) ⇒ 뱍이 || [히미](흙-이) ⇒ 힘이

[짜짜기](짜짜이) ⇒ 짹이 || [채미](참외) ⇒ 챔이

② 음라우트 이후에 모음에 변화가 있으면 변화된 대로 적는다.

예 [비비](<베비, 뱍-이) ⇒ 뱍이 || [게기](<괴기, 고기) ⇒ 게기

[킹이](<깡이<깡이, 쿡-이) ⇒ 킹이 || [지긴다](<쥐기다, 죽이다) ⇒ 직인다

③ 기타 변화(조음위치동화, 자음군단순화, ㅎ탈락 등)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닝긴다](넘기다) ⇒ 넘긴다 || [앵긴다](웁기다) ⇒ 뽀긴다

[놓인다](놓이다) ⇒ 놓인다

(10) 구개음화

① 주격조사 ‘이’, 서술격조사 ‘이다’와 결합할 때 어간 말음이 ‘ㄷ’으로 실현되면 이는 조사 ‘을, 은’이 결합할 때의 곡용형을 고려하여 ‘ㅌ’ 또는 ‘ㄷ’으로 적는다.

예 [바치, 바틀, 바튼] ⇒ 받이, 받을, 받은

예 [바치, 바출, 바춘] ⇒ 바치, 바출, 바춘

② 표준어의 ‘묻히-어, 닫히-어’ 등에 대응하는 방언형이 [무체, 다체]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묻혀, 닫혀’와 같이 적는다.

(11) 형태소 경계에서, 전설모음화(으>이)는 표기에 반영하되 원순모음화(으>우)나 조음위치 동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전설모음화 : [안진](坐) ⇒ 앉은(×)/앉인(○)

예 원순모음화 : [자분](捕) ⇒ 잡은(○)/잡운(×)

예 조음위치동화 : [창꽃] ⇒ 참꽃(○)/창꽃(×)

【붙임】 형태소 내부에서는 음운 변화를 모두 반영하여 소리대로 적는다.

예 전설모음화 : [아지고, 아지만](坐) ⇒ 아지고, 아지만 ★ 어간형태소: 아지-

원순모음화 : [노푸고, 노푸먼](高) ⇒ 노푸고, 노푸먼 ★ 어간형태소: 노푸-

조음위치동화 : [승구고, 승귀](植) ⇒ 승구고, 승귀 ★ 어간형태소: 승구-

(12) 음의 첨가

① 용언 어간말에 ‘-, ㅌ, ㄹ’가 첨가되어 어간이 바뀐 경우에는 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보끄지](볶-지) ⇒ 보끄지(○)/볶으지(×)

[더푸지](덜-지) ⇒ 더푸지(○)/덜우지(×)/덜으지(×)

[언지고](엷-고) ⇒ 언지고(○)/엷이고(×)/엷으고(×)

② 한 단어 안에서 음이 첨가된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하마트면/함마트면](하마터면) ⇒ 하마트면/함마트면

③ 발화의 휴지(pause)로 인해 선행 발화의 끝에 자음이 첨가되는 경우에는 이 자음을 적지 않는다.

예 [명입 핍니다] ⇒ 명이 핍니다

[이런 두르기도 하고] ⇒ 이리 두르기도 하고

(13) 음의 탈락

① 음이 탈락이 확실한 경우에는 탈락한 대로 적는다.

예 [금](그림) ⇒ 금 || [그랜데](그렸는데) ⇒ 그랜데

[그렘다](그룹니다) ⇒ 그렘다

② 음의 탈락이 확실한 경우에만 탈락한 대로 적고 조금이라도 탈락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어원의 소리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kəɾu](거기) ⇒ 거그   ||   [ku.ɾunde] ⇒ 그룬데  
[hes'əɾunde] ⇒ 했어. 근데

③ ‘근데, 인제, 공까, ...’ 등이 비음을 선행시키는 [nde, ndʒe, ŋk'a, ...] 등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으’를 삽입하여 ‘은데, 은제, 응까, ...’ 등으로 적는다.

④ 특별한 사정(소음, 녹음 상태, 분절 등) 때문에 발음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똑똑히 발음할 때의 소리를 적도록 한다.

(14) 음절 축약

① ‘ㅎ’말음 용언에 음절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노:먼](←놓-으먼) ⇒ 노먼   ||   [중:깨](←중-응깨) ⇒ 중깨  
[난:](←냥-은) ⇒ 난   ||   [연:](←영-은) ⇒ 연  
[나:라](←놓-아라) ⇒ 나라   ||   [눠:](←놓-어) ⇒ 뉘

【예외】 ‘ㅎ’말음 어간말 모음이 ‘ㄱ, ㅋ’이고 어미가 ‘-아/어X’인 경우에는 표준어와 동일하게 형태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나:](←냥-아) ⇒ 냥아   ||   [여:라](←영-어라) ⇒ 열어라

【붙임】 음절 축약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간말에 ‘ㅎ’을 적는다.

예 [조아](←중-아) ⇒ 좋아   ||   [고아라](←공-아라) ⇒ 공아라

② 활음화, 활음탈락, 단모음화는 모두 표기에 반영하여 소리대로 적는다.

예 [쏘도](←쑤-어도) ⇒ 쏘도   ||   [전자:도](←전주-아도) ⇒ 전자도

③ ‘이-어 → 이’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이이’가 아닌 ‘이’로 적는다.

예 [비비서](←비비-어서) ⇒ 비비서   ||   [돌리](←돌리-어) ⇒ 돌리

(15) 운율적 요소(음장, 성조 등)를 표시하는 ‘:’, ‘’ 등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동일모음의 반복 표기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예 눈: ⇒ 눈   ||   찌::그 ⇒ 찌그

예 마알 ⇒ 말   ||   마'알 ⇒ 말   ||   마'알 ⇒ 말   ||   마알 ⇒ 말

【붙임】 표준어의 ‘그을음’과 같은 방언형도 ‘글음’과 같이 적는다.

【예외1】 체언어간에 조사가 결합할 때 어간말 자음의 탈락으로 인해 동일모음이 생성된 경우에는 반복 표기를 한다.

예 [kusəə](구석-에) ⇒ 구서어   ||   [ij'aa](이쪽-에) ⇒ 이짜아  
[paa](방-에) ⇒ 바아   ||   [t'oo](통-에) ⇒ 토오

【예외2】 [비음성]이 탈락한 어미 ‘-으이’(<-으니)류가 ‘ㅅ, ㅆ, ㅈ, ㅊ’ 어간말음 뒤에서 ‘-이이’

로 전설모음화한 경우에는 ‘이이’로 반복 표기를 한다.

예 [hɛsʲij](했으니) ⇒ 했이이 || [ʃʲidʒijkʰene](찢으니까) ⇒ 찢이이깨네

【예외3】 합성어에서도 [비음성]이 탈락하여 형성된 ‘이이’는 반복 표기를 한다.

예 [tarij](<[tarɪ], 다른#이) ⇒ 다리이 || [kanij](가는#이) ⇒ 가나이

【예외4】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의 ‘이이’는 반복 표기를 한다.

예 [미이다](떡이다) ⇒ 미이다

(16) 어간말 자음은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에 준해서 적는다.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할 때의 자음을 반영하여 적는다.

예 [바치, 바출, 바춘, 받또, 반만](밭) ⇒ 밧이, 밧을, 밧은, 밧도, 밧만

[바시, 바슬, 바순, 받또, 반만](밭) ⇒ 밧이, 밧을, 밧은, 밧도, 밧만

【붙임】 특정 조사(주로 ‘에, 으로’ 앞에서)나 어미에 따라 어간 말음이 다르게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음을 그대로 적는다.

예 [바치, 바출, 바춘, 바테, 바트로] ⇒ 밧이, 밧을, 밧은, 밭에, 밭으로

(17) 체언어간과 조사가 결합하여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음소적 표기를 한다.

① 주격조사

예 [칠기가, 칠기를, 칠기에](칩) ⇒ 칠기가, 칠기를, 칠기에

㉠ [칠기, 칠글, 칠게] ⇒ 칩이, 칩을, 칩에

② 처격조사

예 [미테가, 미테를, 미테로, 미테](밀) ⇒ 미테가, 미테를, 미테로, 미테

[유제싸람(이웃사람), 유제간(이웃간)] ⇒ 유젯사람, 유제간

㉠ [미치, 미틀, 미트로, 미테] ⇒ 밀이, 밀을, 밀으로, 밀에

③ 속격조사

예 [달그똥/달기똥](닭똥) ⇒ 달그똥/달기똥 || [달구장태](닭장) ⇒ 달구장태

[처나무덕](처남덕) ⇒ 처나무덕

④ 호격조사

예 [히야가, 히야를](형) ⇒ 히야가, 히야를

(18) 역사적으로 ‘ㅎ’중성과 관련된 체언 어간말에 ‘ㄱ’이 실현되면 해당 공용형에만 한정하여 어간말 받침으로 ‘ㄱ’을 적는다.

예 [우아래, 우게, 우그로](위) ⇒ 우아래, 옥에, 옥으로

예 [가실, 가실도, 가실게](가을) ⇒ 가실, 가실도, 가습에

예 [돌, 돌도, 돌게](돌) ⇒ 돌, 돌도, 뚝에

(19) 불규칙 활용

① 표준어의 ‘ㅅ’불규칙 용언과 동일한 활용을 하는 용언은 표기도 동일하게 한다.

예 [구꼬, 굶는다, 구어](炙) ⇒ 굶고, 굶는다, 구어  
[바꾸꼬, 바꾼는다, 바까도](換) ⇒ 바꿨고, 바꿨는다, 바까도

【붙임】 표준어의 불규칙 용언이 ‘ㅎ’말음 용언으로 바뀐 경우에는 ‘ㅎ’을 적는다.

예 [누코, 눕는다, 누어](臥) ⇒ 눕고, 눕는다, 누어

② 불규칙 활용형에 음절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운율적 요소를 배제하여 축약된 대로 적되 동일모음 반복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군: 고기](←굽-은 고기) ⇒ 군 고기   ||   [춘: 날](←춥-은 날) ⇒ 춘 날  
[구'우라](←굽-어라) ⇒ 구라   ||   [누'우](←눅-어) ⇒ 누  
[췌:](←씻-어) ⇒ 췌   ||   [저:](←짓-어) ⇒ 저  
[무'운](←묵-은) ⇒ 문   ||   [무'우라](←묵-어라) ⇒ 무라

【예외】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접미사를 드러내 표기하며 동일모음 반복 표기도 허용한다.

예 [미'이다](떡이다) ⇒ 미이다

③ 나머지 불규칙 활용형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적는다.

(20) ‘하다’ 관련

① 기본형이 ‘X하/허다’인 경우에는 ‘-어/아’가 결합할 때 방언 활용형에 따라 ‘X해, X혀, X하, X히’ 등으로 적는다.

예 ‘만허다’(多): [만허고, 만해서/만혀서/만히서] ⇒ 만허고, 만해서/만혀서/만히서  
‘점잔하다’(점잔-): [점잔하고, 점잔해/점잔하] ⇒ 점잔하고, 점잔해/점잔하

【붙임】 음성적으로 ‘ㅎ’이 탈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는다.

예 [마너고, 마내서/마녀서/마니서] ⇒ 만허고, 만해서/만혀서/만히서

② ‘ㅎ’이 기본형의 어간말음으로 굳어진 경우에는 방언 활용형에 따라 ‘Xㅎ아, Xㅎ애, Xㅎ야, Xㅎ여, Xㅎ이’로 적는다.

예 ‘많다’: [만코, 마나/마내/마녀] ⇒ 많고, 많아/많애/많여  
‘점잔다’: [점잔코, 점자나/점자내/점자녀] ⇒ 점잔고, 점잔아/점잔애/점잔야

③ ‘ㅎ’말음 어간이 활용 패러다임에서 일부 어미와만 결합하는 경우에는 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아무케나](아무렇게나) ⇒ 아무케나   ||   [이케/이키](이렇게) ⇒ 이케/이키  
[이쿠저쿠](이렇고저렇고) ⇒ 이쿠저쿠

(21) 복합어

① 표준어형과 방언형의 형태 차이가 음운론적(조음위치동화, 단모음화, ㅎ탈락 등)으로 어렵지 않게 설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언형을 표준어형에 준해서 적는다.

예 [자정거](자전거) ⇒ 자전거

예 [성누](석류) ⇒ 석류 || [계론](결혼) ⇒ 결혼

② 방언형의 일부 구성요소가 자립적으로 쓰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표준어와 구성이 유사한 경우에는 표준어형에 준해서 적는다.

예 [송꼬락](손가락) ⇒ 손가락

③ 방언형의 원어가 확실한 경우에는 표준어 원어에 준하여 적는다.

예 [시경](거울, 원어: 석경) ⇒ 식경

④ 방언형의 음운변화로 인해 분석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비랑빡](벽) ⇒ 비랑빡 || [비찌락](빗자루) ⇒ 비찌락

⑤ ‘머시마(사내아이), 가시나(계집아이)’류는 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머시마/머시매/머시마그, 가시/가시내/가시나그

(22) 복합어가 줄어든 경우에는 준 대로 적되 형태음소적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예 [드로지](들어오-지) ⇒ 들오지 || [일라지](일어나-지) ⇒ 일어나지

[끄란찌](끌어안-지) ⇒ 끌안지 || [드란찌](들어앉-지) ⇒ 들앉지

[가조지](가져오-지) ⇒ 갖오지 || [드가지](들어가-지) ⇒ 드가지

**【붙임】** 색채 / 모양형용사류의 경우에도 ‘-하다/허다’의 분석이 가능할 때는 형태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노러다](노랗다) ⇒ 놀허다 || [빨가다](빨갳다) ⇒ 빨허다

[퍼러너다](파랗다) ⇒ 퍼런허다 || [시커머다](시커멓다) ⇒ 시킴허다

[크다너다] ⇒ 크단허다 || [똥글똥글러다] ⇒ 똥글똥글허다

(23) 사이시옷 표기

① <한글 맞춤법>의 사이시옷 규정에 부합하는 복합어의 경우에 사이시옷을 적는다. 이때에 뒷단어의 두음이 해당 방언에서 경음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 [한새깁이](해당방언에서 ‘깁이’가 {깁이}인 경우) ⇒ 한새깁이

[한새깁이](해당방언에서 ‘깁이’가 {깁이}인 경우) ⇒ 한새깁이

② 복합어의 앞단어가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이때에도 역시 뒷단어의 두음이 해당 방언에서 경음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 [꼭깁이, 뽕깁이](해당방언에서 ‘깁이’가 {깁이}인 경우) ⇒ 꼭깁이, 뽕깁이

[목깁이, 뽕깁이](해당방언에서 ‘깁이’가 {깁이}인 경우) ⇒ 목깁이, 뽕깁이

③ 표준어의 구가 복합어로서 기능하면서 <한글 맞춤법>의 사이시옷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두요소가 모두 한자어인 경우도 포함) 사이시옷을 적는다.

예 [영어씨간](영어 시간) ⇒ 영엇시간 || [경주깁](경주 김) ⇒ 경줏김

**【붙임】** 이때에 표준어 대역은 사이시옷을 적지 않고 띄어쓰기를 한다.

예 영엇시간 ➡ 영어 시간 || 경줏김 ➡ 경주 김

④ ‘-님’이 결합한 경우의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 선행요소가 독립된 단어이면서 [ㄴ]이 덧붙 때에는 사이시옷을 적는다.

예 [부몬님, 장몬님] ⇒ 부뫼님, 장뫼님

【예외】 선행요소의 말음이 ‘ㄹ’일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 제29항에 의거하여 ‘ㄷ’을 적는다.

예 [아든님] ⇒ 아든님

㉡ 선행요소가 독립된 단어가 아니면서 [ㄴ]이 덧붙 때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예 [어먼님, 아변님, 아주변님] ⇒ 어먼님, 아변님, 아주변님

【붙임】 [ㄴ]이 덧붙지 않을 때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예 [부모님, 장모님, 어머님, 아버님] ⇒ 부모님, 장모님, 어머님, 아버님

(24) 문장 부호 사용은 <한글 맞춤법>에 따르고 띄어쓰기는 <우리말샘>의 표기를 따른다. 그리고 형태음소 전사와 표준어 대역의 문장 부호와 띄어쓰기는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1】 기원적으로 관형형어미 ‘-을’의 ‘ㄹ’이 탈락한 경우에는 소리대로 쓰되 뒷말과 붙여 쓴다.

예 [하꺼인디](할 것인데) ⇒ 하꺼인디 || [하꺀](할 꺀) ⇒ 하꺀

【예외2】 표준어의 ‘-는가 보다’에 대응하는 방언형 ‘-는갑다/는가비다/는가비다, -는가벼/는가벼/는가벼/는가벼’ 등은 붙여 쓰고 ‘-는가 부다, -는가 바’ 등은 띄어 쓴다.

【붙임】 발화가 갑자기 끊어진 경우에는 쉼표(.)를 적고 표준어 대역도 동일하게 한다.

(25) 담화 표지

① 담화 표지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붙임】 빠른 발화에서 담화표지가 앞 요소와 결합하여 줄어든 경우에는 띄어쓰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예 [그리곤제, 그래선제, 그래돈제] ⇒ 그리곤제, 그래선제, 그래돈제

② 서남방언의 ‘잉’, 제주방언의 ‘양’은 앞말에 붙여 쓴다.

③ 표준어의 보조사 ‘요’에 대응하는 방언형 ‘유, 예, 야, 이라우’ 등은 같은 보조사로 취급하여 앞말에 붙여 쓴다.

④ ‘헛기침, 웃음소리’ 등은 소리를 전사하지 말고 ‘(헛기침), (웃음), (재채기)’ 등으로 적되, 앞뒤로 띄어쓰기를 하고 문장부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아이고. (웃음) 근데 우리는 ...

(26) 이 지침 이외의 사항은 <한글 맞춤법>에 준하여 적는다.

(27) 구술발화 전사 시 방언별로 필요한 유의 사항은 <부록>에 신는다.

(28) 표준어 대역

① 방언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표준어형을 사용하여 직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응 표준어가 복수의 유의어를 갖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유의어들의 사용빈도수가 비슷한 경우에는 형태가 유사한 어형을 택한다.

예 어지께 ➔ 어저께(○)/어제(×)    ㉡ 인자 ➔ 인제(○)/이제(×)

㉢ 방언형에 직접 대응하는 표준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표준어로 대체한다.

㉣ 방언형과 뜻이 약간 다른 경우

예 퍼뜩 ➔ 빨리

㉤ <표준국어대사전>에 대응 표준어의 용례가 없거나 인용례만 있는 경우

예 석경/식경 ➔ 거울(○)/석경(×)    ㉥ 대간하다 ➔ 고단하다(○)/대근하다(×)

㉦ <표준국어대사전>에 대응 표준어의 뜻풀이가 첫 번째가 아닌 경우

예 육보다 ➔ 수고하다    ㉧ 심간 ➔ 마음

대근하다(→고단하다), 석경(→거울), 세한(→겨울), 시방(→지금), 심간(→마음),  
얼다(→어디에다), 육보다(→수고하다), 증하다(→징그럽다), 퍼뜩(→빨리)

㉨ 대응 표준어들에 의미차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표준어형을 택하도록 한다.

예 키가 짝다. ➔ 키가 작다.    ㉩ 돈이 짝다 ➔ 돈이 적다.

㉪ ‘사다’와 ‘팔다’가 방언에 따라서 반대의 뜻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購買’는 ‘사다’로, ‘販賣’는 ‘팔다’로 대역하도록 한다. 물론 ‘팔다’는 ‘곡식을 사다’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다’로 대역한다.

예 쌀을 팔아 오셨다. ➔ 쌀을 사 오셨다.

③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 표준어로의 뜻풀이가 한두 어절로 가능한 경우에는 문맥에 맞게 풀이하여 적는다.

예 군지를 타면 호습제. ➔ 그네를 타면 신나고 재미있지.

㉬ 표준어로의 뜻풀이가 난해한 경우에는 작은따옴표 안에 방언형을 적는다.

예 또 끼테 나가나? ➔ 또 ‘끼테’ 나가니?

④ 다음 표준어는 대역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

거시기, 거식하다/거시기하다, 그림/고림(그러면), 근데(그런데),  
 글로/골로(그리로), 기다(그것이다), 노느다(나누다), 담(다음), 따습다(따뜻하  
 다),  
 땀(때문), 뚜드리다/뚜들기다(두드리다), 맥없이(괜히), 머(뭘), 무장(갈수록),  
 문대다(문지르다), 식겁하다, 쌓다(보조동사), 씨불거리다/씨불대다/씨불이다,  
 아따(감탄사), 오지다(흐뭇하다), 이럼/요림(이러면), 이쁘다(예쁘다),  
 일로/올로(이리로), 재밌다(재미있다), 저림/조림(저러면), 절로/졸로(저리로),  
 켈(제일), 진작(진즉), 쪼끔/조끔/쪼금(조금), 후딱(빨리), 흘치다(흘다)

【붙임】 위 단어가 포함된 복합어도 동일한 표기를 한다.

⑤ 어미의 생략으로 인해 번역문이 어색한 경우에는 ( ) 안에 적절한 어미를 보충할 수 있다. 기타  
 의 생략 요소들은 매우 어색한 경우에만 보충해 주도록 한다.

㉠ 어미

예 널쩍 겁. ➔ 떨어진 겁(니다).

㉡ 기타(조사)

예 나 벌써 잊어 뿌렸는데 ➔ 나(는) 벌써 잊어 버렸는데

⑥ ‘-서’와 ‘가지고’의 대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지고, 가지구, 가주고, 가이고, 가주, 가이’ 등의 방언형은 ‘가지고’로, ‘갖고, 갖구’는 ‘갖고’  
 로 대역한다. 단, 경상방언의 ‘-어/아가’는 ‘-어/아서’로 대역한다.

예 무 가주고 ➔ 먹어 가지고

예 잘 해가 ➔ 잘 해서

㉡ ‘-서 가지고’처럼 ‘-서’와 ‘가지고’가 중복 사용된 경우에는 ‘-서’만 사용하여 대역한다.

예 잡아서 가지구 ➔ 잡아서

㉢ 서술격조사 뒤의 ‘가지고’는 ‘-서’로 대역한다.

예 외향적이어 가지고 ➔ 외향적이어서 || 느낌이라 가지고 ➔ 느낌이라서

㉣ ‘-서’와 ‘가지고’에 선행하여 선어말어미 ‘-었/았-, -겠-’이 쓰인 경우에, ‘-었/았-’은 생략하  
 고 ‘-겠-’은 ‘-을 것 같-’으로 대역한다.

예 많았어서 ➔ 많아서 || 처음이었어 가지고 ➔ 처음이어서

먹겠어서 ➔ 먹을 것 같아서

【붙임】 방언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부록>에 실는다.

## <부록1> 강원도 방언

### ◆ 구술발화 전사

1.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는 글자 이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jɨ]’는 ‘이으’로 적고 ‘으’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jɨ:ŋgam](영감) ⇒ 이응감

② 상향이중모음 [ɥa]는 어간 기본형에 따라 ‘ㅍ아’ 또는 ‘ㅅ아’로, [ɥə]는 ‘ㅍ어’ 또는 ‘기어’로 적고 ‘와, 워’ 등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mollɥa](몰류-아) ⇒ 몰류아    ||    [tɥa:](되-아) ⇒ 되아

[əllɥə](얼류-어) ⇒ 얼류어    ||    [t'ɥə:](뛰-어) ⇒ 뛰어

③ 비모음은 대응하는 표준어에 따라서 ‘ㄴ’ 또는 ‘ㅇ’을 적되, 대응하는 표준어형을 알기 힘든 경우에는 ‘ㅇ’을 적는다.

예 [ãida](不) ⇒ 아니다    ||    [mãi](多) ⇒ 많이

[pãã](臼) ⇒ 방아    ||    [solbĩi](솔개) ⇒ 솔빙이

**【붙임】** 비모음의 [비음성]이 완전히 탈락한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고 ‘ㄴ’ 또는 ‘ㅇ’을 적지 않는다.

예 [aida] ⇒ 아이다    ||    [talp<sup>h</sup>ei] ⇒ 달패이

2. 어간말 모음 ‘이’가 어미의 ‘어’와 결합하여 ‘키’ 또는 ‘기’로 실현되면 소리대로 적는다.

예 [이페](입히-어) ⇒ 입헤    ||    [마케](막히-어) ⇒ 막헤    ||    [걸레](걸리-어) ⇒ 걸레

**【붙임】** 구개음화가 일어난 경우에는 ‘키’로 적는다.

예 [무체](묻히-어) ⇒ 묻헤    ||    [다체](닫히-어) ⇒ 닫헤

3. 곡용에서의 경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격음화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말또] ⇒ 말도    ||    [여자들또] ⇒ 여자들도    ||    [돈또] ⇒ 돈도

예 [여자들토](여자들-도) ⇒ 여자들토

**【예외】**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하나또](하나도) ⇒ 하나또    ||    [하나토] ⇒ 하나토

4. 조사와 어미

① 표준어의 조사 ‘한테’에 대응하는 방언형 [인데, 인테]는 소리대로 적는다.

② 표준어의 조사 ‘밖에’에 대응하는 방언형 [배끼, 배게]는 각각 ‘백이, 백에’와 같이 분철하여 적

는다.

- ③ 표준어의 어미 ‘-읍/습니다, -읍/습니까’에 대응하는 방언형 [-읍/습미다, -읍/습미까]는 각각 ‘-읍/습미다, -읍/습미까’로 적는다.

◆ 표준어 대역

1. 조사

- ① 중첩된 조사

예 이 밥은는 참 맛있어. ➔ 이 밥은 참 맛있어.

예 밥으르 많이 먹어요. ➔ 밥을 많이 먹어요.

2. 어미

- ① 의문형 어미 ‘-안/언’는 ‘-았/었니’로 번역한다.

예 강냉이를 탄? ➔ 강냉이를 땀니?

## <부록2> 경상도 방언

### ◆ 구술발화 전사

1.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는 글자 이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비모음은 대응하는 표준어에 따라서 ‘ㄴ’ 또는 ‘ㅇ’을 적되, 대응하는 표준어형을 알기 힘든 경우에는 ‘ㅇ’을 적는다.

예 [ãida](不) ⇒ 아니다    ||    [mãi](多) ⇒ 많이

예 [pãã](臼) ⇒ 방아    ||    [solbĩi](술개) ⇒ 술빙이

**【붙임】** 비모음의 [비음성]이 완전히 탈락한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고 ‘ㄴ’ 또는 ‘ㅇ’을 적지 않는다.

예 [aida] ⇒ 아이다    ||    [talp<sup>h</sup>ei] ⇒ 달패이

2. ‘으:어’ 비대립 관련

① ‘으:어’의 대립이 비변별적인 지역의 조사 ‘언/년(보조사), 얼/럴(목적격 조사)’의 모음은 표준어형인 ‘은/는, 을/를’로 적지 않고 소리대로 ‘언/년, 얼/럴’로 적는다. 이는 ‘으:어’가 대립하는 지역에서도 ‘언/년, 얼/럴’의 발음이 실현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예 [요새'애년](요새-는) ⇒ 요새년

**【붙임】** 나머지 ‘으’모음 조사(‘으로’, ‘을래’)는 ‘으’로 적는다.

예 [사너로](산-으로) ⇒ 산으로

② 경상도 방언은 ‘으:어’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므로 <구술발화 지침(2. 표기 원칙)> 제(6)항에 의거하여 전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 [그으년](그거-는) ⇒ 그어년    ||    [미드득] ⇒ 미더덕

3. 대부분의 화자들에게 ‘에:애’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술발화 지침(2. 표기 원칙)> 제(6)항에 의거하여 전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 [베'에게] ⇒ 베개    ||    [간테요글쎸] ⇒ 간대요 글쎸

4. 형태소 경계에서, 유음과 비음 뒤의 경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길'또'](길-도) ⇒ 길도    ||    [산'또'](산-도) ⇒ 산도

예 [불'땡'기고] ⇒ 불땡기고    ||    [불'쌀'레고] ⇒ 불살레고

**【예외】** 한 단어로 굳어진 화석형은 경음화를 반영하여 적는다.

예 [한'나또](하나도) ⇒ 한나또

5. 다음과 같은 ‘ㄴ’첨가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① 한자어에서 선행 한자가 공명음으로 끝나고 후행 한자가 ‘야, 여, 요, 유’로 시작할 때 ‘ㄴ’첨가가 일어나면 이 ‘ㄴ(ㄹ)’은 적지 아니한다.

예 [함냥, 전녀, 공농, 탈령] ⇒ 함양, 전역, 공용, 탈영

② 보조사 ‘요’가 결합할 때 ‘ㄴ’첨가가 일어날 때에도 ‘ㄴ(ㄹ)’은 적지 아니한다.

예 [밤뇨, 물료] ⇒ 밤요, 물요

6. 운율적 요소(음장, 성조 등)를 표시하는 ‘:’, ‘’ 등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동일 모음의 반복 표기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예 눈: ⇒ 눈 || 마알’ ⇒ 말

**[예외1]** 체언어간에 조사가 결합할 때 어간말 자음의 탈락으로 인해 동일모음이 생성된 경우에는 반복 표기를 한다.

예 [kusəə](구석-에) ⇒ 구서어 || [paa](방-에) ⇒ 바아

**[예외2]** [비음성]이 탈락한 어미 ‘-으이’(<-으니)류가 ‘ㅅ, ㅆ, ㅈ, ㅊ’ 어간말음 뒤에서 ‘-이이’로 전설모음화한 경우에는 ‘이이’로 반복 표기를 한다.

예 [həs’ij](했으니) ⇒ 했이이 || [f’idʒijk’ene](찢으니까) ⇒ 찢이이께네

**[예외3]** 합성어에서도 [비음성]이 탈락하여 형성된 ‘이이’는 반복 표기를 한다.

예 [tarij](<[tarɪ], 다른#이) ⇒ 다리이 || [kanij](가는#이) ⇒ 가나이

**[예외4]**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의 ‘이이’는 반복 표기를 한다.

예 [미’이다](떡이다) ⇒ 미이다

7. 용언 어간 말음 ‘이’가 어미의 ‘어’와 결합해서 ‘에’ 또는 ‘이’가 될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후자의 경우 ‘이이’로 적지 않음에 유의한다.

예 [비베](비비-어) ⇒ 비베 || [비비](비비-어) ⇒ 비비

8. 조사

① 속격조사 ‘에, 이, 으’, 처격조사 ‘에, 이’는 선행요소와 분철한다.

예 [나’메](남-의) ⇒ 남에 || [나’무](남-의) ⇒ 남으

예 [지’비](집-에) ⇒ 집이

② 표준어의 조사 ‘밖에’에 해당하는 방언형 [빼께/베께, 빼끼/베끼]는 각각 ‘뽕에/뽕에, 뽕이/뽕이’와 같이 분철해 적는다.

예 [이’거’빼’께](이거-밖에) ⇒ 이거뽕에

9. 어미

- ① 표준어의 ‘-으니까’에 해당하는 방언형은 ‘-응께, -으이께네, -으이까네, -으이꺼네’ 등으로 전사한다.
- ② ‘-이’가 첨가된 종결어미는 ‘-는대이, -어/아래이, -재이’ 등과 같이 표기한다.
- ③ 의문형 어미는 ‘-능/응교’는 소리대로 적고 ‘-는/은교’로 적지 아니한다.  
**【붙임1】** [-능/응가, -능/응고, -능/응강, -능/응공] 등은 각각 ‘-는/은가, -는/은고, -는/은강, -는/은공’으로 적는다.  
**【붙임2】** 표준어의 ‘-는/은가 보-’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는/은갑-’(붙여쓰기)로 적는다.
- ④ [-음/습미다, -음/습미까]는 각각 ‘-음/습미다, -음/습미까’로 적는다.

## 10. 인용문

- ① 표준어의 ‘-고 하다’류에 해당하는 ‘카다/커다/쿠다’는 소리대로 적되 띄어 쓴다.  
**예** [간다칸다] ⇒ 간다 칸다   ||   [가냐칸다] ⇒ 가냐 칸다  
       [가라칸다] ⇒ 가라 칸다   ||   [가자간다] ⇒ 가자 칸다
- ② 표준어의 ‘그러다’에 해당하는 [그러카다, 그러쿠다, 글카다, 글쿠다, 그카다, 그쿠다] 등은 소리대로 적는다. ‘이러다, 저러다’에 해당하는 방언형의 표기도 동일하다.

## 11. 표준어의 보조용언 ‘가지고’에 해당하는 방언형 중에 ‘가’는 앞말에 붙여 쓰고 ‘가주, 가이, 거주고’ 등은 띄어 쓴다.

**예** 딸이 없어가  
 딸을 원해 가주, 그래 가이

## ◆ 표준어 대역

### 1. 어휘

- ① 거숙하다 ➡ 거식하다   ||   거시기하다 ➡ 거시기하다
- ② 머식하다 ➡ 무엇하다
- ③ 머시기 ➡ 무엇(사물), 아무개(사람)  
**예** 거기 머시기더라? ➡ 그게 무엇이더라?   ||   머시기도 오고 ➡ 아무개도 오고
- ④ 머라그다/머라글다/머라카다/머라쿠다 ➡ 나무라다  
**예** 머라근다 ➡ 나무란다   ||   머라글어라/머라캐라 ➡ 나무라라
- ⑤ 인용문의 ‘카다/커다/쿠다 ➡ -고 그러다  
**예** 가라 칸다. ➡ 가라고 그런다.

### 2. 조사

- ① 경북 서부 방언의 보조사 ‘-어/아여’는 해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예 어서 찾아여. ➔ 어서 찾아.

### 3. 어미

① 동사의 관형사형 ‘-었/았는-’은 ‘-은’으로 번역한다.

예 묵었는 놈이 ➔ 먹은 놈이

② 해라체 의문형 어미 ‘-나, -노, -가, -고’는 모두 ‘-니’ 또는 ‘-냐’로 번역한다.

예 핵고 가나? ➔ 학교 가니? || 어데 가노? ➔ 어디 가니?

니 책이가? ➔ 네 책이니? || 누 책이고? ➔ 뉘 책이니?

【붙임】 회상의 어미 ‘-다, -도’는 모두 ‘-더냐’로 번역한다.

예 어디 가도? ➔ 어디 가더냐?

③ ‘-(시)니까, -(시)능교, -이소’ 등은 합쇼체로 번역한다.

예 가시니까 ➔ 가십니까 || 가능교 ➔ 갑니까 || 가이소 ➔ 가십시오

④ ‘-이’가 첨가된 종결어미 ‘-는대이, -어/아래이, -재이’ 등은 ‘-는다, -어/아라, -자’ 등으로 번역한다.

예 묵는대이 ➔ 먹는다 || 살어래이 ➔ 살아라 || 가재이 ➔ 가자

⑤ ‘-이라/이래, -이라요/이래요’는 각각 ‘-이야, -이어요’로 번역한다.

예 내 집이래. ➔ 내 집이야. || 갔가 이기라. ➔ 갔다 이거야.

했는 모양이래요. ➔ 한 모양이어요. || 아이래요. ➔ 아니어요.

### 4. 통사

① 확인의문문 ‘-다 아니-’는 ‘-잖-’으로 번역한다.

예 왔다 아입니까? ➔ 왔잖습니까?

② 의존명사 ‘것’이 생략된 구문은 ‘것’을 살려서 번역한다.

예 비가 왔는 걸다. ➔ 비가 온 것 같다.

비가 올 걸다. ➔ 비가 올 것 같다.

③ ‘-지 싶-’ 구문은 ‘-은/을 것 같-’으로 번역한다.

예 했지 싶습니더 ➔ 한 것 같습니다.

④ 표준어의 보조용언 ‘가지고’에 해당하는 방언형 중에서 ‘가’는 ‘서’로 번역하고 ‘가주, 가이, 가주 고’ 등은 ‘가지고’로 번역한다.

예 딸이 없어가 ➔ 딸이 없어서

딸을 원해 가주 ➔ 딸을 원해 가지고 || 그래 가이 ➔ 그래 가지고

### <부록3> 전라도 방언

◆ 구술발화 전사

1.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는 글자 이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jö]’는 ‘이외’로 적고 ‘외’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jö] ⇒ 이외

② 상향이중모음 [ʏa]는 어간 기본형에 따라 ‘ㅍ야’ 또는 ‘ㅍ야’로, [ʏə]는 ‘ㅍ어’ 또는 ‘기어’로 적고 ‘얌, 윌’ 등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mollʏa](물류-야) ⇒ 물류야    ||    [tʏa:](되-야) ⇒ 되야

    [əllʏə](얼류-어) ⇒ 얼류어    ||    [tʏə:](뛰-어) ⇒ 뛰어

③ 비모음은 대응하는 표준어에 준해서 ‘ㄴ’ 또는 ‘ㅇ’을 적되, 대응하는 표준어형을 알기 힘든 경우에는 ‘ㅇ’을 적는다.

예) [ãida](不) ⇒ 아니다    ||    [mãi](多) ⇒ 많이

    [pãã](臼) ⇒ 방아    ||    [solbii](솔개) ⇒ 솔빙이

**【붙임】** 비모음의 [비음성]이 완전히 탈락한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고 ‘ㄴ’ 또는 ‘ㅇ’을 적지 않는다.

예) [aida] ⇒ 아이다    ||    [talp<sup>h</sup>ei] ⇒ 달패이

2. ‘ㅍ’ 발음 어간에 어미 ‘-야’가 결합하는 경우에, [ㅍ야]로 소리가 나더라도 ‘ㅍ야’로 적는다.

예) [되야](되-야) ⇒ 되야    ||    [쇠야서](쇠-아서) ⇒ 쇠야서

**【붙임1】** 어간 발음 ‘ㅍ’가 ‘ㄱ/ㅋ’로 변화한 경우도 동일하다.

예) [테야](테-야) ⇒ 테야    ||    [새야서](새-아서) ⇒ 새야서

**【붙임2】** 형태소 내부에서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되야지] ⇒ 되야지    ||    [되야지] ⇒ 되야지

3. 용언 어간 발음 ‘이’가 어미의 ‘어’와 결합해서 ‘에’ 또는 ‘이’가 될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비베서](비비-어서) ⇒ 비베서    ||    [비비서] ⇒ 비비서

4. 표준어의 인용문 ‘-고 하다’류에 해당하는 ‘-가/거다’는 ‘-ㄱ 하/허다’와 같이 적는다. 이때 띄어 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 [간다간다] ⇒ 간닥 한다    ||    [가냐간다] ⇒ 가냘 한다

    [가라건다] ⇒ 가락 현다    ||    [가자건다] ⇒ 가작 현다

5. 색채 / 모양형용사류는 ‘-하다/허다’를 분석하여 형태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노려다](노랗다) ⇒ 놀허다   ||   [빨가다](빨갳다) ⇒ 뽀허다  
[밀거다](말갳다) ⇒ 뽀허다   ||   [똥그라다](똥그랗다) ⇒ 똥글허다  
[크다너다] ⇒ 크단허다   ||   [똥글똥글러다] ⇒ 똥글똥글허다

6. 기원적인 관형어어미 ‘-을’의 ‘ㄹ’이 탈락한 경우에는 소리나는 대로 뒷말과 붙여 쓴다.

예 하꺼인디(할 것인데), 가껏이여(갈 거야)

7. 표준어의 ‘-잖아’에 대응하는 전라방언형은 ‘-잔해’로 적는다.

예 [가꼬가자내](갓고 가잖아) ⇒ 갓고 가잔해  
[잘 하자내](잘 하잖아) ⇒ 잘 하잔해

8. 표준어의 ‘-이야, -이어요’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이여, -이여라우’로 적는다. 이때 후자는 ‘-이여라우’가 아닌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 [지비여] ⇒ 집이여   ||   [지비여라우] ⇒ 집이여라우

9. 다음의 경음은 소리대로 적는다.

① 표준어의 ‘놓아두다’에 대응하는 방언형 [나뚜다]는 소리대로 ‘나뚜다’와 같이 적고 ‘낫뚜다’로 적지 아니한다.

예 [카만 나뚜](가만히 놔두) ⇒ 카만 나뚜(○)/카만 낫뚜(×)

② 표준어의 보조용언 ‘버리다’에 대응하는 방언형 [뿔다/뿌리다]는 소리대로 ‘뿔다/뿌리다’와 같이 적고 ‘스 불다/부리다’로 적지 아니한다.

예 [해뿔고](해 버리고) ⇒ 해 뿔고(○)/헛 불고(×)

10. 표준어의 ‘-나/는가 보다, -은가 보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는값다/는가비다/는가비다, -은값다/은가비다/은가비다’와 같이 붙여 쓴다.

예 비가 왔는개며.(왔나 봐)   ||   더운값다.(더운가 보다)

**【붙임】** 표준어의 ‘-나/는가 봐, -은가 봐’에 해당하는 방언형 [-능값씨, -응값씨]는 각각 ‘-는값어, -은값어’로 적는다.

예 비가 왔는값어.(왔나 봐)

11. 담화표지 ‘잉’은 앞말에 붙여 쓴다.

예 내가잉 널잉 가게잉.

◆ 표준어 대역

1. 어휘

① 거석하다 ➔ 거식하다 || 거시기하다 ➔ 거시기하다

② 머식하다/머석하다 ➔ 무엇하다

③ 머시기/머서기 ➔ 무엇(사물), 아무개(사람)

예 고거이 머시기더라? ➔ 고게 무엇이더라? || 머시기도 오고 ➔ 아무개도 오고

④ 머락하다/머이락하다/멋이락하다 ➔ 나무라다

⑤ 인용문의 ‘-기 하다 ➔ -고 그러다

예 가락 한다. ➔ 가라고 그러다.

⑥ 겁나다, 허벌나다 ➔ 아주 많다

【붙임】 ‘겁나게, 허벌나게’는 동사 앞에서는 ‘아주 많이’로, 형용사나 다른 부사 앞에서는 ‘아주’로 번역한다.

예 사람들이 겁나게 왔어라우. ➔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왔어요.

힘이 허벌나게 세라우. ➔ 힘이 아주 세요.

⑦ 차말로 ➔ 참말로

⑧ 다닐러/다닐로/다일러/다일로 ➔ 그러게

⑨ 데차/데치나 ➔ 과연

⑩ 담화표지 ‘잉’은 ‘응’으로 번역하고 띄어 쓴다.

예 내가잉 널잉 가게잉. ➔ 내가 응 널 응 같게 응.

⑪ 사람 이외를 가리키는 ‘놈’은 ‘것’으로 번역한다.

예 그놈을 사 갖고 ➔ 그것을 사 갖고

2. 조사 ‘라우’는 ‘요’로 번역하고 ‘-다우’은 ‘-대요’로 번역한다.

예 왔어라우. ➔ 왔어요.

집이 간다우? ➔ 집에 간대요?

3. 어미

① 선어말어미 ‘-겨/게-’는 ‘-(으)시-’로 번역한다.

예 풀쎌 와겼어라. ➔ 벌써 오셨어요.

② 표준어의 관형사형어미 ‘-는’(현재)과 ‘-은’(과거)은 전라도 방언에서 형태상의 대립이 상실되어 ‘-은’으로만 쓰이는 지역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 번역을 달리해야 한다.

예 시방 고기 잡은 사람 ➔ 지금 고기 잡는 사람

어지게 고기 잡은 사람 ➔ 어저께 고기 잡은 사람

③ 평서형 또는 의문형 어미 ‘-으요’는 ‘-어/아요’로 번역한다.

예 시방 머 잡으요? ➔ 지금 뭐 잡아요?

④ 평서형 어미 ‘-시’는, 체언에서는 ‘-일세’로, 용언에서는 ‘-네’로 번역한다.

예 여그가 내 집이시. ➔ 여기가 내 집일세.

차말로 깨끗하시. ➔ 참말로 깨끗하네.

⑤ 어미 ‘-가니/간디’는, 연결어미일 때는 ‘-관테’로, 종결어미일 때는 ‘-졌어’로 번역한다.

예 니가 멋이간디 까부냐? ➔ 네가 뭐관테 까부느냐?

누가 그것을 알았가니? ➔ 누가 그것을 알았겠어?

4. ‘그러다/그라다’는 ‘그렇다’(형용사)와 ‘그러다’(동사)의 의미를 모두 가지므로 문맥에 맞게 번역한다.

예 그라다가 꼭 다칠 것이여. ➔ 그러다가 꼭 다칠 것이야.

그것이사 그라제만 맘대로 될랍디여? ➔ 그것이야 그렇지만 맘대로 되겠습니까?

5. 부정 표현

① ‘-든, -들, -도’는 각각 ‘-지는, 지를, -지도’로 번역한다.

예 가들 말어. ➔ 가지를 말아. || 가도 안해. ➔ 가지도 않아.

② ‘있도 없다, 알도 모르다’는 각각 ‘있지도 않다, 알지도 못하다’로 번역한다.

6. ‘안’이 쓰인 확인의문문은 ‘-잖-’으로 번역한다.

예 잘 가요, 안? ➔ 잘 가잖아요?

빨리 오락 안 허냐? ➔ 빨리 오라잖니?

【붙임】 ‘안’이 생략된 확인의문문도 있을 수 있으니 의문문의 의미가 ‘질문’인지, ‘확인’인지 구분하여(억양의 차이) 번역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집을 다 짓었습디여?(↗) ➔ 집을 다 지었습디까? (질문)

집을 다 짓었습디여?(↘) ➔ 집을 다 지었잖습디까? (확인)

7. 보조 용언

① 표준어의 ‘버리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의 쓰임이 매우 활발하여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뒤에 쓰이기도 하는데 형용사의 경우에는 표준어로 번역하지 않도록 한다.

예 너무 좋아 불어. ➔ 너무 좋아.

② 보조 동사 ‘쓰다’는 ‘되다’로 번역한다.

예 집이 꼭 가야 써. ➔ 집에 꼭 가야 돼.

8. ‘-는갑다/는가비다/는가비다, -은갑다/은가비다/은개비다’는 ‘-나 보다’(동사) 또는 ‘-은가 보다’(형

용사)로 번역한다.

예 밥 다 묵었는갑다 ➡ 밥 다 먹었나 보다.  
작은개벼. ➡ 작은가 봐.

9. ‘애기’가 ‘아기’뿐만 아니라 ‘아이’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번역한다.

예 우리 애기들을 봉개 ➡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10. 연결어미 ‘-는가/은가’는 ‘-는지/은지’로 번역한다.

예 비가 올라는가 ➡ 비가 오려는지

11. ‘-잔해’는 ‘-는 게 아니라’로 번역한다.

예 우리만 그러잔해 다 글더라고 ➡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러더라고

12. ‘-어/아라 그러-/하/허-’는 ‘-어/아하-’로 번역한다.

예 겁나게 이빠라 그룬다. ➡ 아주 이빠한다

술을 너무 좋아라 그래 갖고 ➡ 술을 너무 좋아해 갖고

## <부록4> 제주도 방언

### ◆ 구술발화 전사

1.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으(아래아), 으(쌍아래아)’는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는데 <훈글>에서 타이핑한 후에 <엘란>에 복사하도록 한다.

예 불바(뵤아) ⇒ 뵤다 || 으뵤(여뵤) ⇒ 으뵤

2. 자음 뒤의 ‘의’ 표기는 <구술발화 지침(2. 표기 원칙)> 제(4)항 ①에만 해당하며 표준어와 유사한 형태가 아니라면 자음 뒤에 ‘의’는 적지 않는다.

예 [이디서](여기서) ⇒ 이디서(○)/이디서(×)

3. 전설모음화(으>이)는 형태소 경계 여부에 관계없이 표기에 반영한다.

예 형태소 경계 : [안꼬, 아지난](坐) ⇒ 앓고, 앓이난(○)/앓으난(×)

형태소 내부 : [아지고, 아지난](坐) ⇒ 아지고, 아지난

4. 합성어 및 조사 결합형에서의 격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여 적는다.

예 처가침(처갓집) ⇒ 처가침(○), 처갓침(×)

예 하나토(하나도) ⇒ 하나토

5. 특정 단어의 표기

① ‘흐다/허다’의 모음어미 결합형은 ‘헤’로 적는다.

예 흐고↪허고, 헨(해서)

② 아니흐(허)다↪아녀다↪않다

예 [아녕](아니흐-영) ⇒ 아니헿(○), 앓헿(×)

예 [아넵네다](아녀-네다) ⇒ 아넵네다(○), 아니헿네다(○), 아니흫네다(×)

예 [아녕](안흐-영) ⇒ 안헿(○), 앓헿(×)

③ 잇다↪이시다(있다)

예 [잇꼬, 이서, 이시난] ⇒ 잇고, 잇어, 잇이난

[이시고, 이셔, 이시난] ⇒ 이시고, 이셔, 이시난

④ ‘ㅎ’말음 용언

예 [죤네다](죤습니다) ⇒ 죤네다 || [노면](농-으면) ⇒ 노면

6. 동일한 구성(특히 ‘이-여’ 연쇄)이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 경<sup>ㄴ</sup>기영<sup>ㄴ</sup>기영(그렇게) || 가켜<sup>ㄴ</sup>가키어<sup>ㄴ</sup>가키여(가겠어)

【예외】 모음 어미(‘-어X, -엔’)가 연결된 경우에는 활음 j의 삼입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기-영(기-어서) ⇒ 경(○), 기영(○), 기영(×)  
기-엇어(기-엇어) ⇒ 겻어(○), 기엇어(○), 기엇어(×)  
가키-엔(가겠-다고) ⇒ 가켄(○), 가키엔(○), 가키엔(×)

7. 조사

- ① 처격조사 ‘디’는 ‘딤’로 적지 않고 ‘디’로 적는다.
- ② 속격조사 ‘의’는 선행요소와 분철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으’의 원순모음화는 반영하지 않는다.  
예 [노미](남-의) ⇒ 놈이 || [노무] ⇒ 놈으
- ③ 표준어의 조사 ‘밖에’에 해당하는 방언형은 ‘백이, 백에’ 등으로 분철해 적는다.

8. 어미

- ① 특정 활용형의 분철과 연결  
예 오란 ⇒ 올안(오-아) || [노프고, 노프니] ⇒ 노프고, 노프니
- ② -암시/엄시- :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는 ‘시’를 뒤 음절의 초성으로 적고 자음 어미가 결합할 때는 어미의 두음을 경음으로 적는다. 그리고 ‘으’계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암시/엄시-’와 같이 적는다.  
예 잡암서(잡-암시-어)  
잡암찌(잡-암시-저), 잡암쭈(-쭈), 잡암꼬(-꼬), 잡암쭈다/잡암쭈과(-쭈-)  
잡암시냐(잡-암시-으냐)
- ③ -앗/엇- : 형태음소 표기를 하되 ‘으’계 어미가 결합할 때는 ‘-아시/어시-’와 같이 적는다.  
예 잡앗어(잡-앗-어) cf. 헤뵈어(헤-보-앗-어)  
잡앗저(잡-앗-저), 잡앗쭈, 잡앗고, 잡앗수다/잡앗수과  
잡아시냐(잡-앗-으냐)
- ④ -엔 : 자음 어간 뒤에서는 ‘-이엔’으로, 모음 어간 뒤에서는 ‘-엔’으로 적는다.  
예 책이엔(冊), 소엔(牛)
- ⑤ -수/우 :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수’,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우’로 적는다.  
예 곱수다(곱-수-다), 예뻐우짱(예쁘-우-짱)
- 【예외】 ‘-우’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연결될 때는 ‘-으우-’로 적는다.  
예 잇잖우파(×), 잇잖으우파(잇지-잖-으우-파)
- 【붙임】 모음 뒤의 ‘-우’가 생략되었을 때는 생략된 대로 적는다.  
예 뒤편

⑥ -(으)크- : 어미 ‘-여’나 ‘-엔’ 앞에서는 ‘-(으)키-’, 선어말어미 ‘-우-’ 앞에서는 ‘-(으)크-’으로 적는다.

예 가키여<sup>ㄴ</sup>가키어<sup>ㄴ</sup>가켜(가겠다) || 가키엔<sup>ㄴ</sup>가켄<sup>ㄴ</sup>가켄(가겠다고) cf. 가키엔(×)  
가쿠다(가겠습니다)

⑦ -안/언, -양/영 : ‘ㅎ-’와 결합할 때만 ‘-연, -영’으로 적는다.

예 되언(○), 되연(×) || ㅎ연<sup>ㄴ</sup>헨

## ◆ 표준어 대역

### 1. 어휘

① ‘이제’는 문맥에 따라 ‘지금’ 또는 ‘이제’로 번역한다.

예 아, 이제도 잇는다 : 아, 지금(○)/이제(×)도 잇는데

나 이제 잊어불언 : 내가 지금(○)/이제(×) 잊어버렸어

② ‘놓다<sup>ㄴ</sup>노다’는 문맥에 따라 ‘넣다’ 또는 ‘놓다’로 번역한다.

③ 그 외 둘 이상으로 번역되는 경우

예 나 : ‘내가’ 또는 ‘나는’

예 경허다 : 그렇다, 그러다, 그렇게 하다

예 경 행/헨 : ‘그렇게 해서’ 또는 ‘그렇게 했어’

예 틀리다<sup>ㄴ</sup>뜰리다 : ‘다르다’ 또는 ‘틀리다’

예 거라마씨? : ‘거예요?’ 또는 ‘거네요.’

④ ‘이추룩한’은 ‘이와 같은’으로 번역한다.

⑤ 부정문

예 먹도 아녀는다 : 먹지도 않는데

쓰지 안행 : 쓰지 않아서

⑥ ‘-어지-’는 ‘-게 되-’ 또는 ‘-을 수’로 번역한다.

예 먹어질 : ‘먹게 될’ 또는 ‘먹을 수’

### 2. 조사

①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는 조사를 살려 적는다.

예 나 이제 잊어불언 : 내가(○)/나(×) 지금 잊어버렸어

### 3. 어미

① -암시/엄스- : 자연스럽지 않을 때는 ‘-고 있-’으로 번역하지 않는다.

예 ‘큅’ 험시네 : ‘큅’ 하네(○), ‘큅’ 하고 있네(×)

자꾸 왁짜 : 자꾸 온다(○), 자꾸 오고 있다(×)

허젠 험쭈다 :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② 연결 어미로서의 ‘-안/언, -양/영’ : 문맥에 따라 ‘-아서/어서’와 ‘-고’를 선택하여 적는다.

예 먹을 건 못 먹언 살아시난 : 먹을 건 못 먹고(○)/먹어서(×) 살았으니까

지평 가는 거 : 짚고(○)/짚어서(×) 가는 거

가정 읍서 : 가지고(○)/가져서(×) 오세요

③ 종결 어미로서의 ‘-안/언, -양/영’ :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과거형으로 적는다.

예 나 이제 잊어불언 : 내가 지금 잊어버렸어(○)/잊어버려서(×)

④ 문장 종결 어미를 가급적 적어준다.

예 청미레 덩굴 아니? ⇒ 청미레 덩굴 아니야?

예 떨어진 거? → 떨어진 거예요?

⑤ 종결 어미 ‘-(으)고, -(으)며’는 각각 ‘-은/는가, -지요’로 번역한다.

예 잊어신고예? ⇒ 잊었는가요?(○), 잊었습니까(×)

예 엇입주 ⇒ 없지요(○), 없습지요(×) || 놀아십주 ⇒ 놀았지요(○), 놀았습죠(×)

## <부록5> 충청도 방언

### ◆ 구술발화 전사

1.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는 글자 이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jɨ]’는 ‘이으’로 적고 ‘으’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jɨ:ŋgam](영감) ⇒ 이응감

② ‘[jɔ]’는 ‘이외’로 적고 ‘외’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jɔ] ⇒ 이외

③ 상향이중모음 [ɥa]는 어간 기본형에 따라 ‘ㅍ아, 피아’로, [ɥə]는 ‘ㅍ어, 거어, 피어’로 적고 ‘와, 워’ 등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mollɥa](물류-아) ⇒ 물류아 || [tɥa:](되-아) ⇒ 되아

[əllɥə](얼류-어) ⇒ 얼류어 || [t'ɥə:](뛰-어) ⇒ 뛰어 || [tɥə:](되-어) ⇒ 되어

④ 비모음은 대응하는 표준어에 준해서 ‘ㄴ’ 또는 ‘ㅇ’을 적되, 대응하는 표준어형을 알기 힘든 경우에는 ‘ㅇ’을 적는다. 이에 대한 발음정보는 따로 제공한다.

예 [ãɪda](不) ⇒ 아니다 || [mãi](多) ⇒ 많이

[pãã](臼) ⇒ 방아 || [solbɪɪ](술개) ⇒ 술bing이

**【붙임】** 비모음의 [비음성]이 완전히 탈락한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고 ‘ㄴ’ 또는 ‘ㅇ’을 적지 않는다.

예 [aida] ⇒ 아이다 || [talp<sup>h</sup>ei] ⇒ 달패이

2. 하향이중모음 ‘[uj], [oj], [ij], [aj], [əj]’는 각각 ‘우이, 오이, 으이, 아이, 어이’로 적는다.

예 [kuj](귀) ⇒ 구이 || [ojga](외가) ⇒ 오이가 || [kij](계) ⇒ 그이

[sajɲi](상-이) ⇒ 사잉이 || [səjɲi](성-이) ⇒ 서잉이

3. 모음 ‘ㅞ’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된 종결형은 발음에 따라 적는다.

예 장작 줌 께.(장작 줌 패) || 꼭 붙들어 마.(꼭 붙들어 매)

장작 줌 패.(장작 줌 패) || 꼭 붙들어 매.(꼭 붙들어 매)

밥얼 잘 먹는디야.(밥을 잘 먹는데) || 널 간다.(널 간대)

4. ‘유’와 관련된 표기

① 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하여 1음절로 축약되면 ‘슈’로 적고 2음절로 발음되면 ‘시유’로 적는다.

예 [가슈](가-시-어요) ⇒ 가슈 || [가시유] ⇒ 가시유

② ‘있-, 없-, -있/았-, -졌/졌-’ 등과 결합한 경우에는 ‘유’로 적는다.

예 있유(있어요) || 없유(없어요) || 했유(했어요) || 허졌유(하졌어요)

③ 그 외 종결형이 ‘-유’와 결합하여 음절이 줄어들면 준 대로 적는다.

예 트집혈류?(할래요) || 뭘 모른다는 규?(거요)

【붙임】 ‘거’(것)에 조사(주격, 서술격)가 결합하여 줄어든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그것두 모르는 겨.(거야) || 유의해 주시라 이겁니다.(이겁니다)

5. 형태소 경계에서의 조음위치동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지만 형태소 내부에서는 조음위치동화에 의해 굳어진 대로 적는다.

예 당구다(담그다), 장구다(잡그다), 송구다(심다), 깡구다(끼우다), 농구다(나누다)

6. 동일한 구성이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 경우는 발음대로 표기한다.

예 가면/가문/감(가-면)

7. 표준어의 ‘-나 보다, -는가 보다, -은가 보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내비다, -는갑다, -은갑다’와 같이 붙여 쓴다.

예 비 오내벼.(오나 봐) || 더운갑다.(더운가 보다)

◆ 표준어 대역

1. 억양과 연점을 고려하여 표준어 번역을 하고 문장부호로 구별한다.

예 여가 시청이래요. → ➡ 여기가 시청이에요.

여가 시청이래요? ↗ ➡ 여기가 시청이에요?

발째 끝난 겨. → ➡ 벌써 끝난 거야.

발째 끝난 겨? ↗ ➡ 벌써 끝난 거야?

2. ‘작다/작다’는 문맥 의미에 따라 ‘작다’와 ‘적다’로 번역한다.

예 자는 키가 너머 즉어. ➡ 재는 키가 너무 작아.

가는 욕심이 즉어서 그리여. ➡ 개는 욕심이 적어서 그래.

3. ‘하마/하매’는 ‘벌써’로 번역한다.

예 하매 다 끝났어? ➡ 벌써 다 끝났어?

4. '고대'는 문맥에 따라 조금 지난 시점과 현재 시점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므로 문맥에 따라 '아까' (조금 지난 시점)와 '얼른'(현재 시점)으로 번역한다.

예) 언제 왔니? 고대 왔어. ➡ 언제 왔니? 아까 왔어.

꿈지럭거리지 말구 고대 가! ➡> 꿈지럭거리지 말구 얼른 가.

5. '거석하다'는 '거식하다'로 번역한다.

예) 말하는 기 쯤 거석하면 안 해두 되야. ➡ 말하는 게 쯤 거식하면 안 해도 돼.

## [붙임 2] 전사 자료 정비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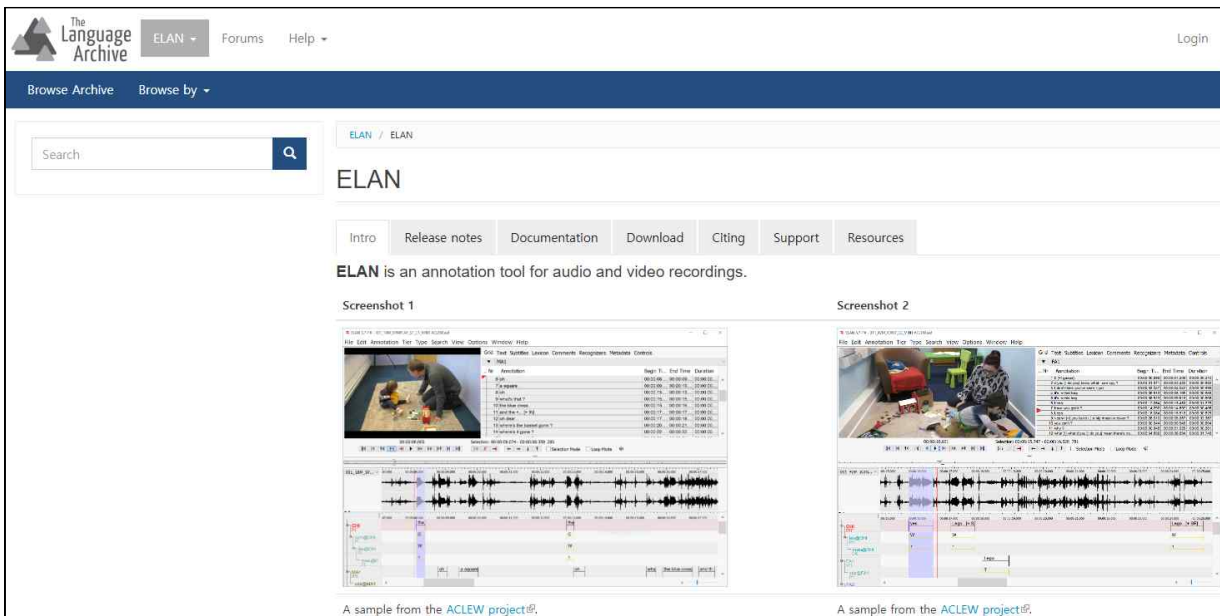
### 1) 파일 변환과 전사

#### (1) 파일 변환 및 음성 파일 편집 도구의 사용 방법

- ① 디지털 음성 변환(스테레오→모노가 필요한 경우) 혹은 음성 파일의 편집은 GoldWave 또는 Praat, Cool Edit Pro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 ② 어휘·표현 음성 파일의 경우 30분 정도의 길이로 편집하여 전사를 시작한다.  
※ 음성 파일이 길어질 경우 프로그램 속도가 저하될 수 있고, 음성 분절 중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30분 이내의 길이로 편집하여 전사를 시작한다.
- ③ 구술발화 음성 파일의 경우 주제별로 음성 파일을 편집하여 전사를 시작한다.

#### (2) 전사 도구의 사용 방법

- ① 전사 도구는 엘란(ELAN) 6.8을 다운 받아서 설치한다.(2024년 12월 12일 버전 6.9 업데이트)



엘란(ELAN) 메인 홈페이지(<https://archive.mpi.nl/tla/elan>)

## Download

Intro | Release notes | Documentation | **Download** | Citing | Support | Resources

Download the current version of **ELAN** for your plat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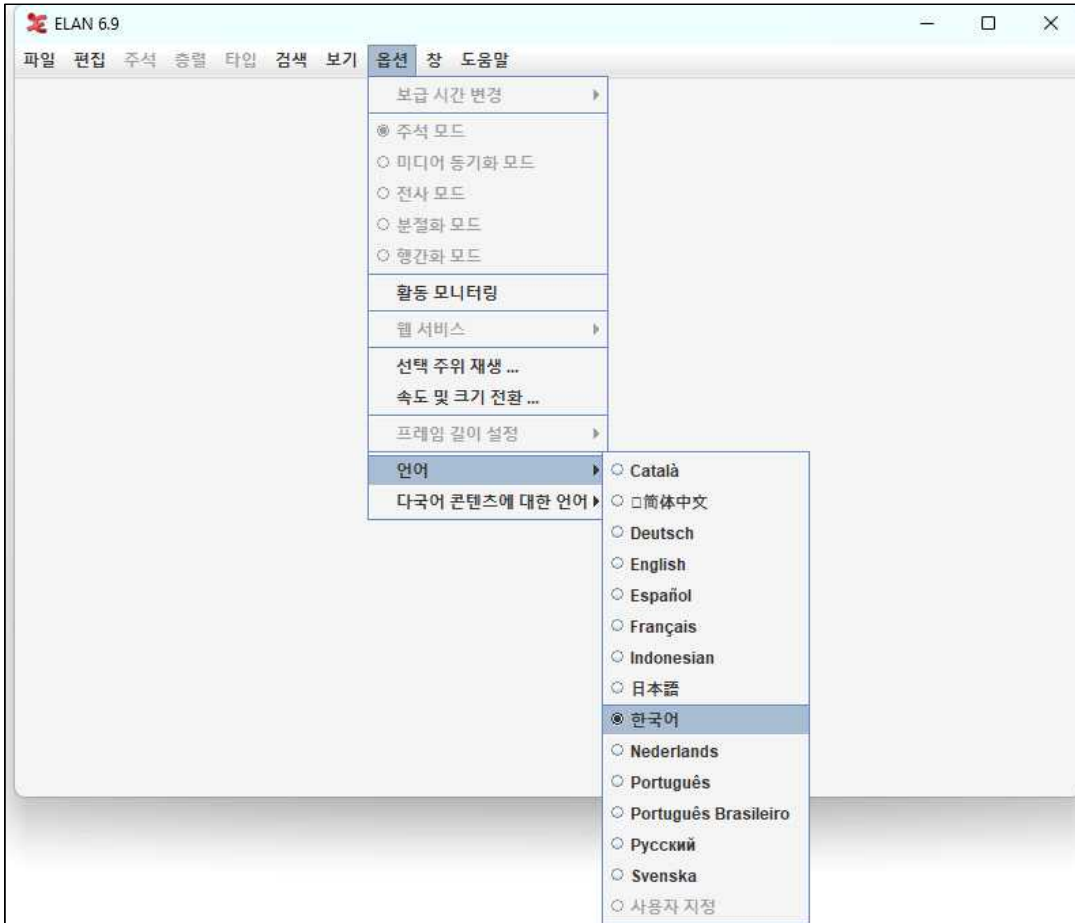
By downloading and using ELAN you agree to cite **ELAN** in any publication based on research in which **ELAN** has been used. You can cite a paper or cite as software, e.g. as follows:  
 \*ELAN (Version 6.9) [Computer software]. (2024). Nijmegen: Max Planck Institute for Psycholinguistics. Retrieved from <https://archive.mpi.nl/tla/elan>  
 By downloading and using ELAN you also indicate you read and agree to the [terms of use and privacy policy of ELAN](#).

OS	Download	Format	Description
Windows	<a href="#">ELAN 6.9</a> <a href="#">Simple-ELAN 1.5</a>	[.exe] [.zip] [.msi] [.exe] [.zip]	Installer (.exe [a Setup wizard with options]) and portable, unpack-and-run (.zip) versions all include a Java 22 runtime. Requires: 64-bit, Windows 11, 10, (8 not tested anymore)
macOS	<a href="#">ELAN 6.9</a> <a href="#">ELAN 6.9-M1</a> <a href="#">Simple-ELAN 1.5</a> <a href="#">Simple-ELAN 1.5-M1</a>	[.zip] [.dmg] [.zip] [.dmg] [.zip] [.dmg] [.zip] [.dmg]	.zip and .dmg files containing a .app which includes a Java 22 runtime (Java 21 for Intel based Macs). The <b>M1</b> version only works on <i>Apple silicon</i> Macs (including M2 etc.). Requires: 64-bit, macOS High Sierra (10.13) or higher for Intel Macs, macOS Big Sur (11) or higher for Mx Macs.
Linux	<a href="#">ELAN 6.9</a> <a href="#">Simple-ELAN 1.5</a>	[.tar.gz] [.deb] [.tar.gz] [.deb]	Archive files (.tar.gz) or Debian installers (.deb), all including a Java 22 runtime. Requires: 64-bit, tested on Ubuntu 22.04
All	<a href="#">Source code of ELAN 6.9</a>	[.zip]	Archive containing the source files and a Maven build script. Requires: Maven 3.3 or >; OpenJDK 21 o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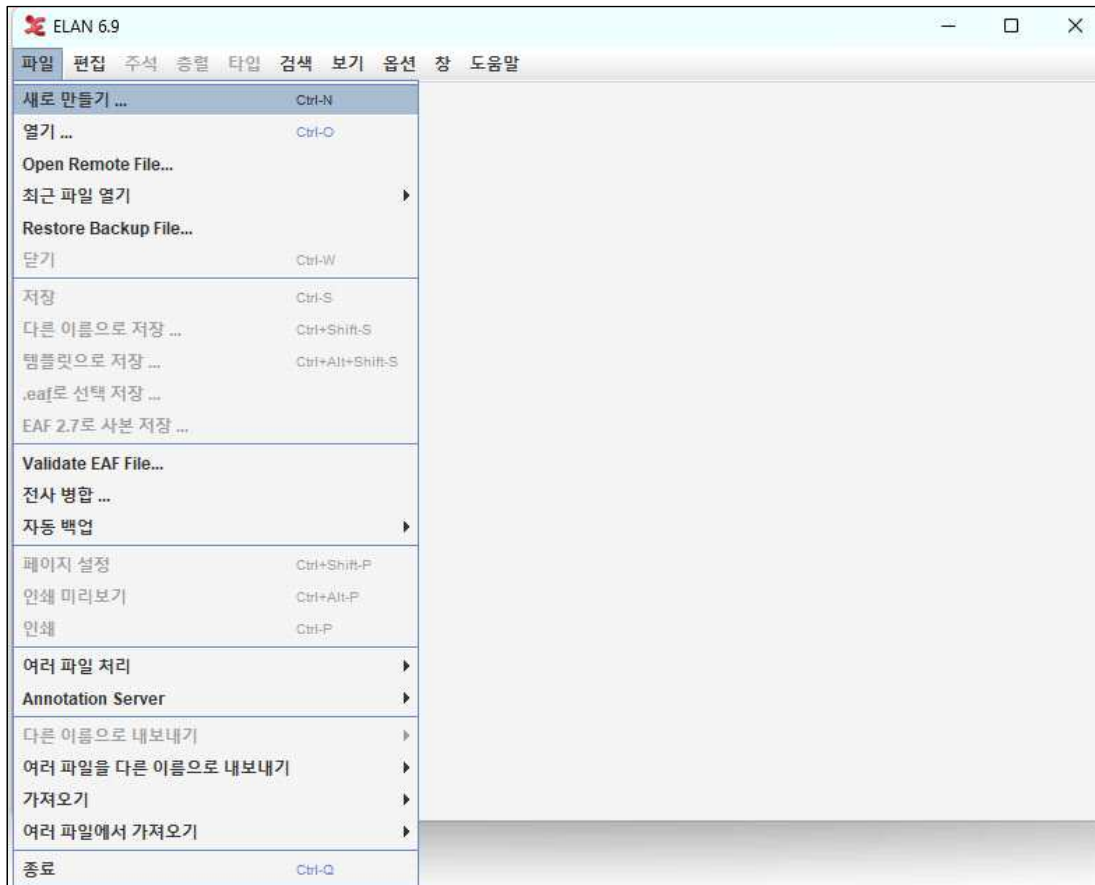
[Previous releases](#)

[Terms of use and privacy policy of E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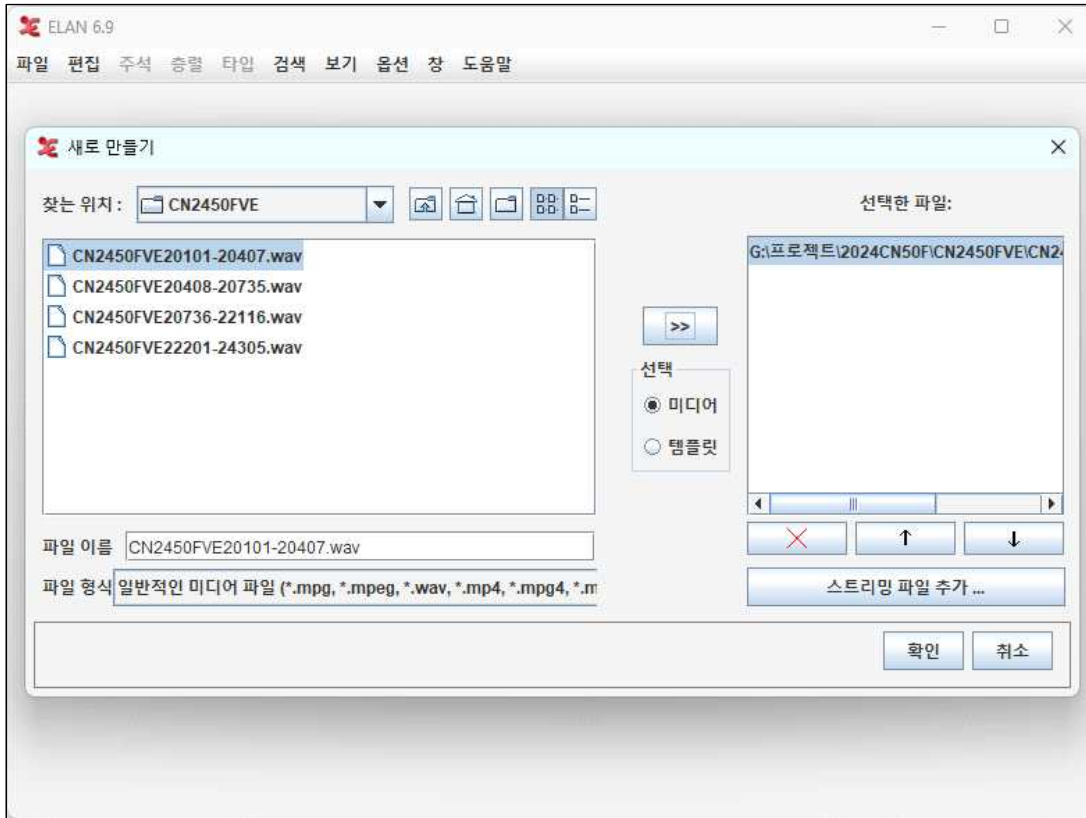
② 엘란(Elan)을 설치하고 실행한다. [옵션 - 언어 - 한국어]를 선택한다.



③ 엘란(ELAN)의 [파일 - 새로 만들기...(Ctrl+N)]에서 전사할 음성 파일을 선택한다.



④ 전사할 음성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



⑤ 전사 층렬 변경 및 추가를 실시한다. 전사 층렬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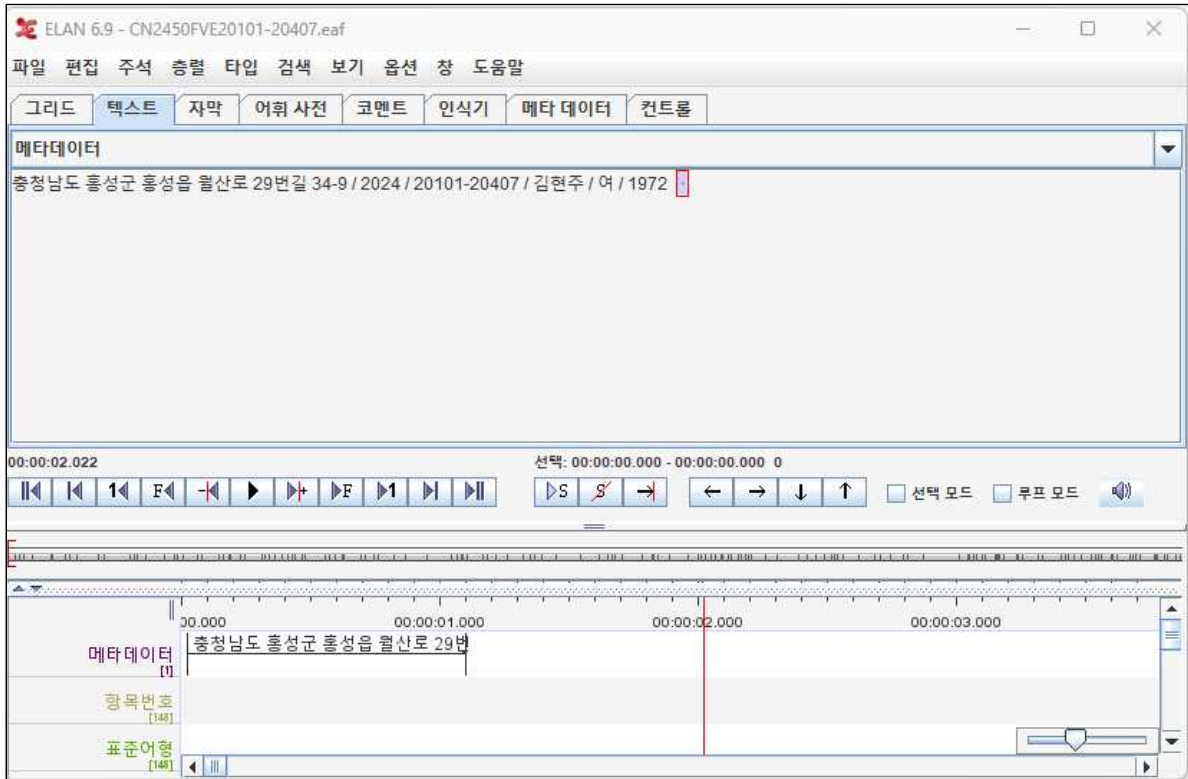
㉠ 어휘·표현 음성 파일 전사의 경우: ‘메타데이터, 항목 번호, 표준어형, 방언형(어절), 방언형(기저형), 발음정보, 사용도/인지도, 부가정보, 개인정보유무, 음성상태, 비교’ 층렬 설정

[층렬 - 층렬 속성 변경]을 선택하여 ‘default’ 층렬의 이름을 ‘메타데이터’로 변경하고, 입력 방법은 ‘Korean (South Korea)(System default)’을 설정한다. 메타데이터의 경우 음성 파일의 가장 앞 부분에 ‘조사 지역 / 조사 연도 / 조사 내용 / 제보자 이름 / 성별 / 출생 연도’ 정보를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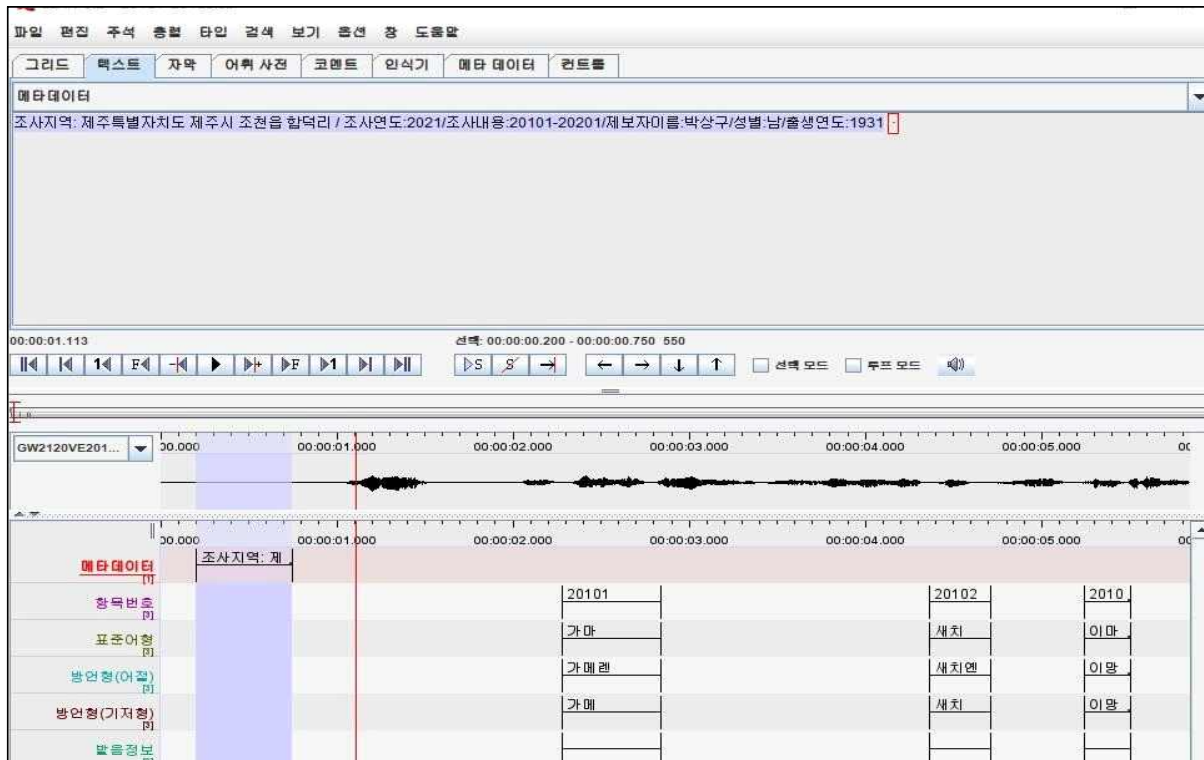
※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연도는 숫자 네 자리 형식으로 입력한다.

1) 출생 연도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하며 형식은 숫자 네 자리로 고정한다. 예) 1939

2) 조사 내용의 형식은 어휘의 경우 ‘0000-00000’ 형식으로 입력한다. 예) 22349-22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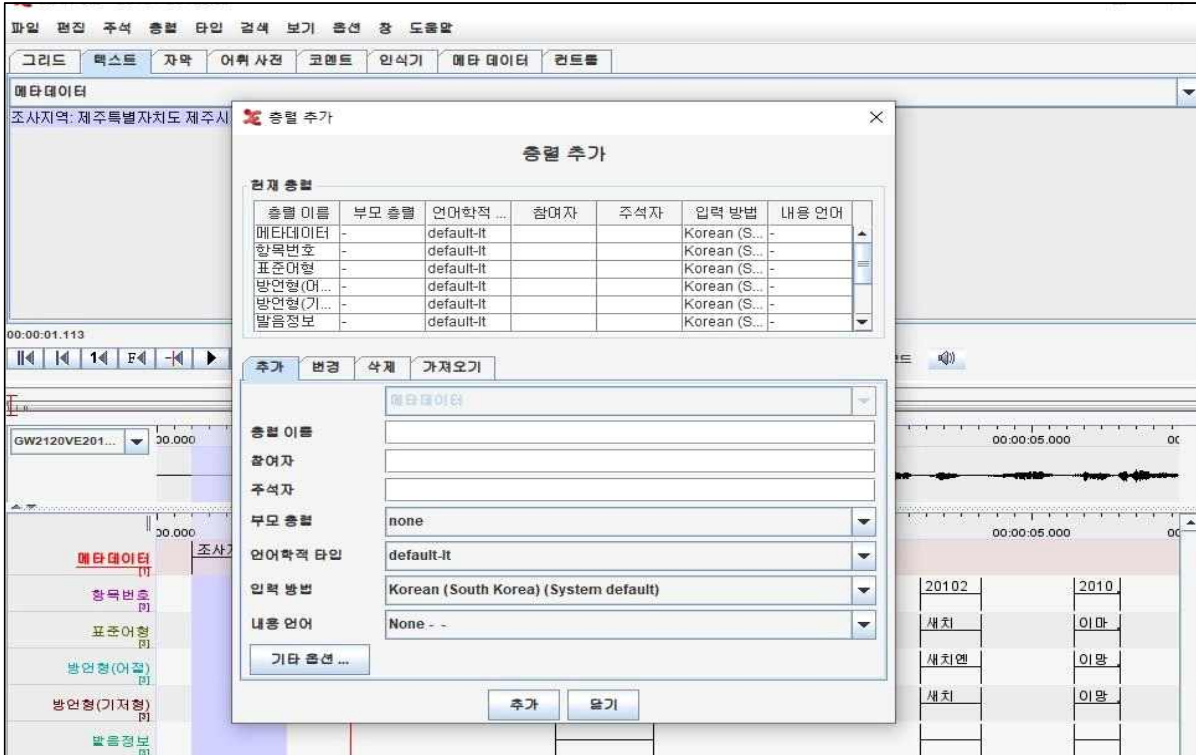


엘란(Elan)에서의 메타데이터 입력 예시



엘란(Elan)에서의 메타데이터 입력 예시

[충렬 - 새로운 충렬 추가]를 선택하여 ‘항목 번호, 표준어형, 방언형(어절), 방언형(기저형), 발음정보, 사용도/인지도, 부가정보, 개인정보유무, 음성상태, 비교’ 충렬을 추가하고, 입력 방법은 ‘Korean (South Korea)(System default)’을 설정한다. 그리고 참여자 정보에 제보자의 정보를 주석자 정보에 전사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엘란(Elan)에서의 충렬 추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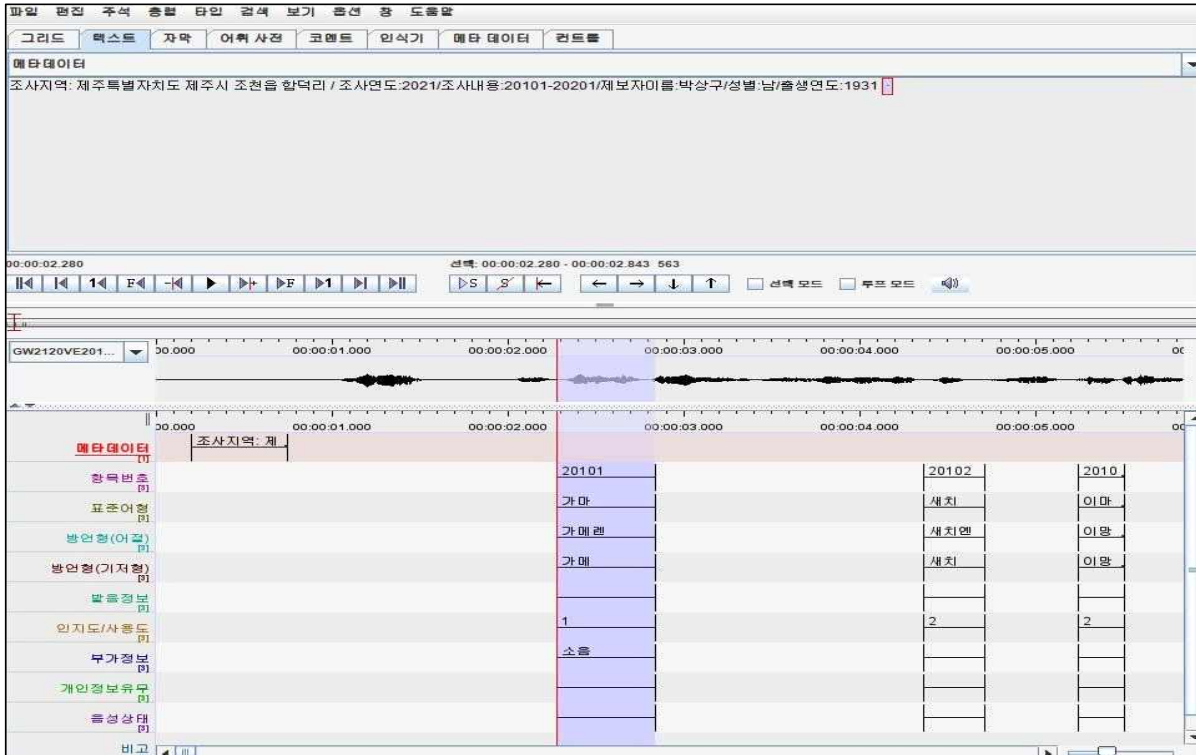
- ㉠ 구술발화 음성 파일 전사: ‘메타데이터, 항목 번호, 조사자(형태음소전사), 조사자(표준어대역), 제보자1(형태음소전사), 제보자1(표준어 대역), (필요시)제보자2(형태음소전사), (필요시)제보자2(표준어 대역), 전체삭제여부, 음성상태, 비교’ 충렬 설정

[충렬 - 충렬 속성 변경]을 선택하여 ‘default’ 충렬의 이름을 ‘메타데이터’로 변경하고, 입력 방법은 ‘Korean (South Korea)(System default)’을 설정한다. 메타데이터의 경우 음성 파일의 가장 앞 부분에 ‘조사 지역 / 조사 연도 / 조사 내용 / 제보자 이름 / 성별 / 출생 연도’ 정보를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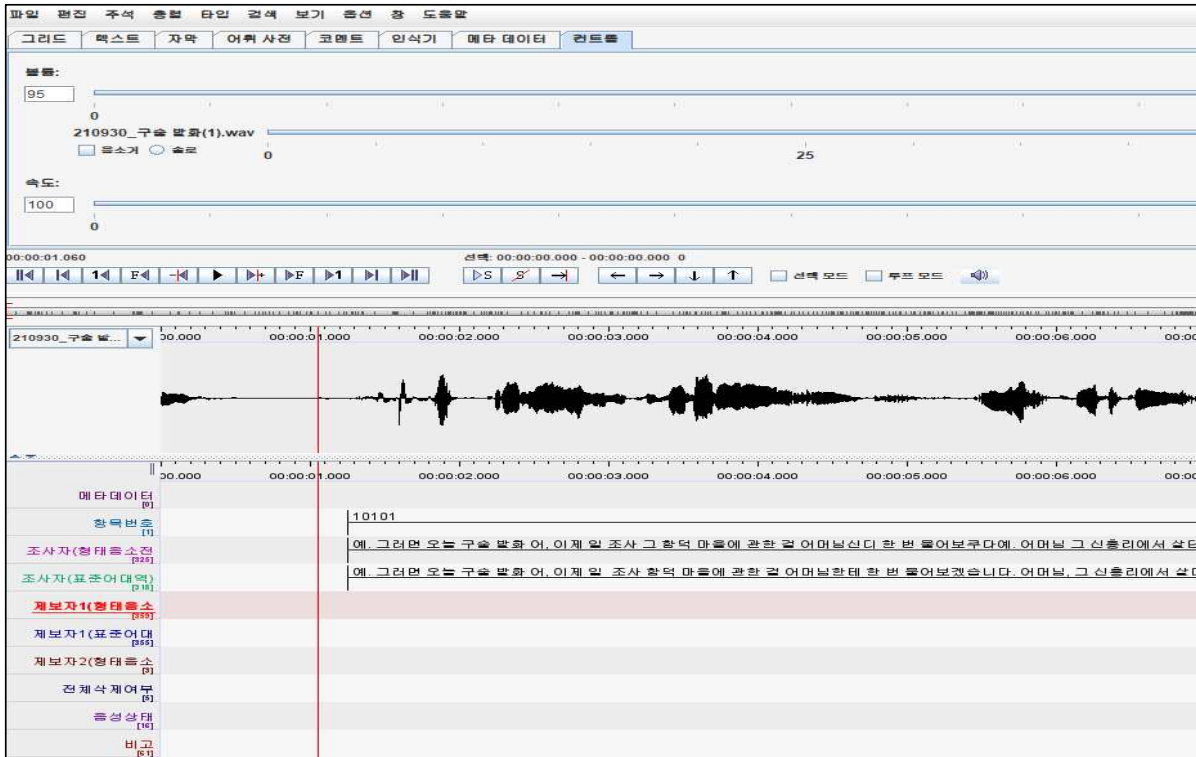
[충렬 - 새로운 충렬 추가]를 선택하여 ‘항목 번호, 조사자(형태음소전사), 조사자(표준어대역), 제보자1(형태음소전사), 제보자1(표준어 대역), (필요시)제보자2(형태음소전사), (필요시)제보자(표준어 대역), 전체삭제여부, 음성상태, 비교’ 충렬을 추가하고 입력 방법은 ‘Korean (South Korea)(System default)’을 설정한다. 그리고 참여자 정보에 제보자의 정보를 주석자 정보에 전사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 엘란(ELAN)의 [층렬 - 층렬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음성 파일마다 층렬을 설정하는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표현 음성 파일을 전사할 때 활용할 'VE.eaf' 파일과 구술발화 음성 파일을 전사할 때 활용할 'UT.eaf' 파일을 하나씩 만들고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⑥ 전사할 층렬에서 전사할 부분을 설정하고(마우스 드래그), 마우스우클릭 한 후에 '여기에 주석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내용을 전사한다.([마우스우클릭-여기에 주석 새로만들기]를 활용하지 않고, [주석-여기에 주석 새로만들기]를 활용하면 첫 번째 층렬에만 경계가 생성된다.)



엘란(Elan)에서의 전사 예시(어휘 및 표현)



엘란(Elan)에서의 전사 예시(구술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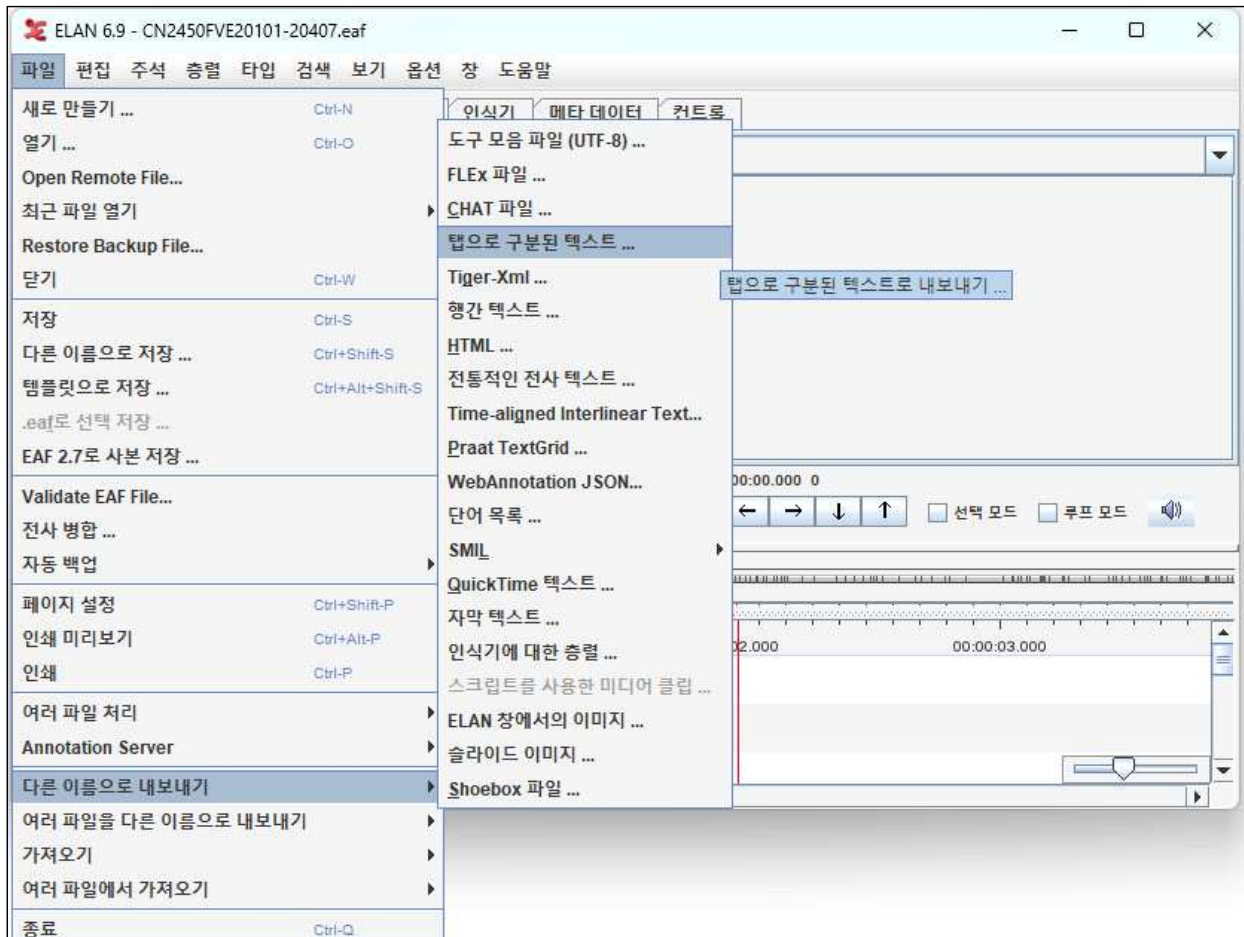
- ※ 전사할 때 분절(segmentation)한 구간을 반복하여 청취하려면 ▶S(Shift+Space)을 선택.
- ※ 전사할 때 음성 구간 앞, 뒤에 200msec 이상의 휴지가 포함되도록 조절해야 함.
- ※ 옛한글 입력 방법을 숙지하여([참조 2]), 아래아 및 쌍아래아를 전사할 때 활용.

⑦ 전사가 완료되거나 수시로 전사 파일을 저장한다. [파일-저장(Ctrl+S)]을 선택하여 저장한다. 엘란(ELAN)의 전사 파일은 .caf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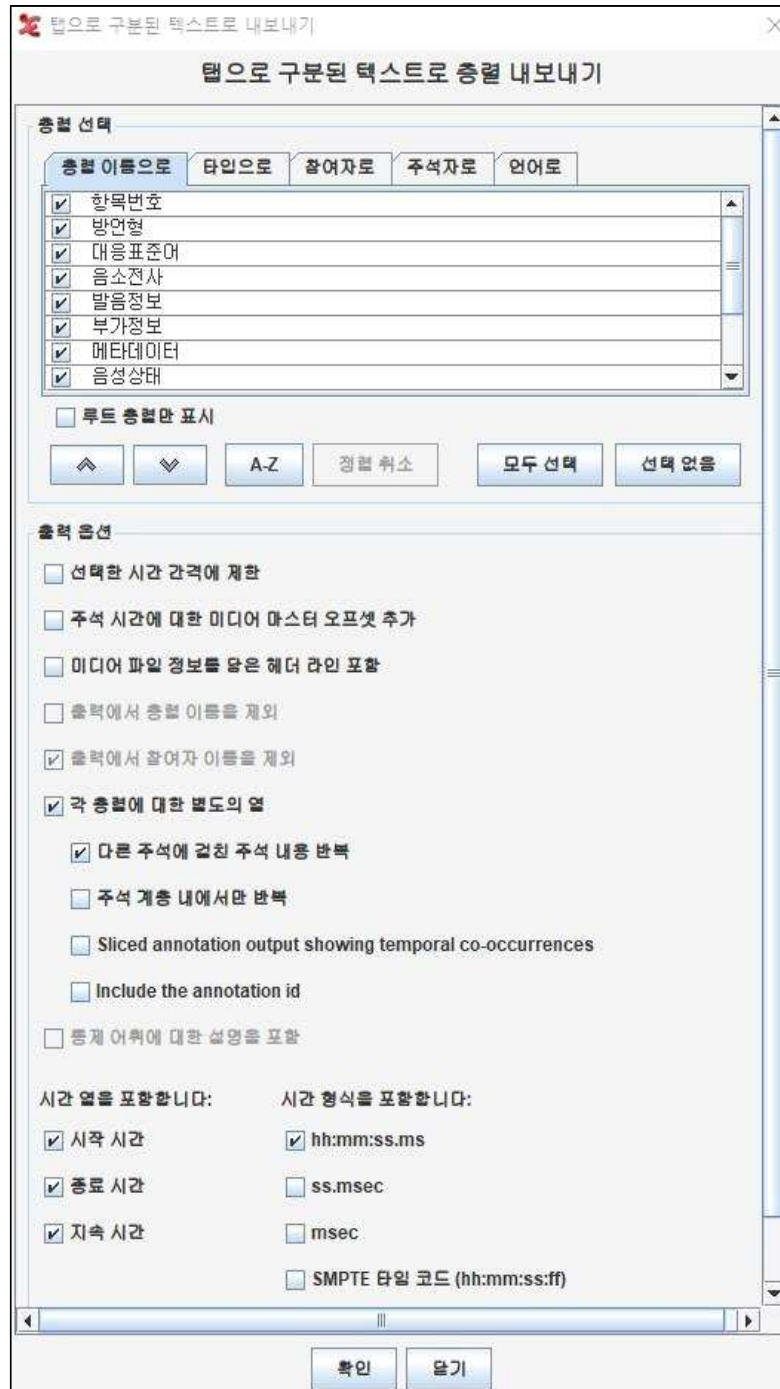
⑧ 전사 완료 후, 어휘·표현 전사 파일은 엑셀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다.

- ※ 어휘·표현 음성 파일에 전사한 정보(항목 번호, 표준어형, 방언형(어절), 방언형(기저형), 발음정보, 사용도/인지도, 부가정보, 개인정보유무, 음성상태, 비고)를 엑셀 파일에 기록.
- ※ 엘란(ELAN)의 기능을 활용하여 탭으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을 생성하고, 엑셀에 기록.

⑨ [파일 - 다른 이름으로 내보내기 - 탭으로 구분된 텍스트...](Ctrl+A) 선택한다.



- ⑩ [각 층렬에 대한 별도의 열]을 선택하고,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지속 시간, 시간 형식 (hh:mm:ss:ms)]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



⑪ 엘란(ELAN)에서 전사한 정보(항목 번호, 표준어형, 방언형(어절), 방언형(기저형), 발음정보, 사용도/인지도, 부가정보, 개인정보여부, 음성상태, 비고)를 확인한다.

파일(F)	편집(E)	서식(O)	보기(V)	도움말(H)	시작 시간 - hh:mm:ss.ms	종료 시간 - hh:mm:ss.ms	지속 시간 - hh:mm:ss.ms	메타데이터	항목번호	표준어형	방언형(어절)	방언형(기저형)
00:00:00.200	00:00:00.750	00:00:00.550	조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 조사연도:2021/조사내용:20101-20201/제보자이름:박성		20101	가마	가메렌	가메	1	소음		
00:00:02.280	00:00:02.843	00:00:00.563			20102	새치	새치엔	새치	2			
00:00:04.362	00:00:04.712	00:00:00.350			20103	이마빼기	이랑세기엔	이랑세기	2			
00:00:05.244	00:00:05.506	00:00:00.262										

전사 파일(.eaf)의 텍스트 파일(.txt) 변환 결과

⑫ 위 정보를 엑셀 파일에 기록한다. 엑셀 결과물 정비 시 ‘메타데이터’ 열은 삭제하고 ‘일련번호’ 열을 추가하여 분절한 음성 파일명을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파일명은 “음성파일명.xlsx”로 한다.

(예: GW2220FVE20101-20205.wav에 대한 전사 정보 파일은 GW2220FVE20101-20205.xlsx로 한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1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지속 시간	메타데이터	항목번호	표준어형	방언형(어)	방언형(기)	발음정보	인지도/사	부가정보	개인정보유음성상태	비고			
2	00:00.2	00:00.8	00:00.6	조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 조사연도:2021/조사내용:20101-20201/제보자이름:박성구/성별:남/출생연도:1931	20101	가마	가메렌	가메		1	소음					
3	00:02.3	00:02.8	00:00.6		20102	새치	새치엔	새치		2						
4	00:04.4	00:04.7	00:00.4		20103	이마빼기	이랑세기엔	이랑세기		2						
5	00:05.2	00:05.5	00:00.3													
6																

엑셀 파일 기록(메타데이터 삭제 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1	일련번호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지속 시간	항목번호	표준어형	방언형(어)	방언형(기)	발음정보	인지도/사	부가정보	개인정보유음성상태	비고			
2	JJ2120VE2	00:02.3	00:02.8	00:00.6	20101	가마	가메렌	가메		1	소음					
3	JJ2120VE2	00:04.4	00:04.7	00:00.4	20102	새치	새치엔	새치		2						
4	JJ2120VE2	00:05.2	00:05.5	00:00.3	20103	이마빼기	이랑세기엔	이랑세기		2						
5																
6																

엑셀 파일 기록(메타데이터 삭제 및 일련번호 삽입)

[붙임] 자료 관리

1) 조사 지역 약호

①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사 지역마다 고유의 지역 약호를 부여한다. 조사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영문자 대문자로 표시한다. 영문자 대문자는 도명(道名)의 약어를 사용한다. 도명의 약어는 여권에 사용하는 약어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대도시의 경우 영문자 MP를 부여한다.

지역	대도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코드	MP	GW	GG	GN	GB	JN	JB	JJ	CN	CB

② 각 도의 시, 군의 약어는 해당 지역의 조사 연도 끝자리 두 자리를 부여한다.

도별	2021 (시범조사)	2022 (1차조사)	2023 (2차조사)	2024 (3차 조사)	2025 (4차 조사)
대도시	대전	-	-	-	-
강원	춘천	춘천	원주	강릉	홍천
경기	고양	고양	수원/화성	의정부	부천
경남	창원	창원	울산/울주	진주	김해
경북	경주	경주	안동	김천	구미
전남	무안/목포	무안/목포	광주/광산	여수	광양
전북	전주/완주	전주/완주	익산	남원	정읍
제주	제주시(해안)	제주시(산간)	서귀포시(해안)	제주(내륙)	제주(해안)
충남	아산	예산	공주	홍성	천안
충북	청주	청주	충주	제천	진천

③ 세대별(20대, 50대, 70대) 표시는 ‘20, 50, 70’을 부여하고, 성별(남, 여) 표시는 ‘M, F’를 부여한다.

④ 어휘·표현 자료는 약어 ‘VE’와 함께 어휘항목별 코드를 부여하고, 구술발화 자료는 약어 ‘UT’와 함께 질문지 항목별 코드를 부여한다.

⑤ 해당 지역에서 조사된 파일은 [보기]와 같이 조사 지역, 조사 연도, 세대, 자료 종류, 항목별 코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보기]

어휘·표현의 경우 ‘도명 및 조사 연도 / 세대 / 자료 종류 / 어휘 항목별 코드’

GW2320FVE20100-20146.wav (강원도 20대 여성 어휘·표현 20100-20146 음성 파일)

GW2320FVE20100-20146.eaf (강원도 20대 여성 어휘·표현 20100-20146 전사 파일)

※ 어휘·표현 보충 조사 항목의 경우 ‘도명 및 조사 연도 / 세대 / 자료 종류 / 어휘 항목별 코드(보충 조사 첫 어휘 항목 번호와 마지막 어휘 항목 번호) / 보충’으로 파일명을 부여한다.

GW2320FVE20130-20417보충.wav (강원도 20대 여성 어휘·표현 보충 조사 음성 파일)

GW2320FVE20130-20417보충.eaf (강원도 20대 여성 어휘·표현 보충 조사 전사 파일)

※ 구술발화의 경우 ‘도명 및 조사 연도 / 세대 / 자료 종류 / 질문지 항목별 코드 / (필요시 파일 번호)’

GW2320FUT10200.wav (강원도 20대 여성 구술발화 2. 일생 의례와 경험 음성 파일)

GW2320FUT10200.eaf (강원도 20대 여성 구술발화 2. 일생 의례와 경험 전사 파일)

※ 구술발화 음성 파일이 1시간이 넘으면 파일 번호를 넣어서 음성 파일을 편집한다. 예를 들어 ‘2. 일생 의례와 경험’의 음성 파일이 100분이면 50분씩 나누어 편집한다.

GW2320FUT10200\_01.wav (강원도 20대 여성 구술발화 2. 일생 의례와 경험 1번째 음성 파일)

GW2320FUT10200\_02.wav (강원도 20대 여성 구술발화 2. 일생 의례와 경험 2번째 음성 파일)

※ 구술발화 음성 파일이 1시간이 넘으면 파일 번호를 넣어서 음성 파일을 편집한다. 예를 들어 ‘2. 일생 의례와 경험’의 음성 파일이 100분이면 50분씩 나누어 편집한다.

※ 구술발화 보충 조사 항목의 경우 도명 및 조사 연도 / 세대 / 자료 종류 / 질문지 항목별 코드 / 보충’으로 파일명을 부여한다.

GW2320FUT10200보충.wav (강원도 20대 여성 구술발화 2. 일생 의례와 경험 보충 음성 파일)

GW2320FUT10200보충.eaf (강원도 20대 여성 구술발화 2. 일생 의례와 경험 보충 전사 파일)

## 2) 파일 관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음성 파일과 전사 파일을 작성하여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에 저장한다.
- ② 조사된 지역어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조사 지점과 세대 그리고 자료 종류별로 고유 폴더 이름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20대 여성 피험자의 어휘·표현을 조사한 녹음 파일이 25개일 경우, 이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폴더 이름은 약어 부여 방법에 따라 “JB2320FVE”가 된다. 이 폴더 안에는 확장자 이름을 “wav”로 갖는 음성 파일 25개와 이들 각각과 동일한 파일명을 갖고 확장자가 “eaf”인 전사 파일 25개가 포함된다.
- ③ 음성 파일과 전사 파일은 같은 폴더에 있어야 자료의 수정이나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같은 번호를 갖는 두 파일은 짝을 지어 동일한 폴더에서 관리한다.
- ④ 음성 전사한 각 파일의 정보가 담긴 정보 파일은 엑셀 문서로 입력하여 “조사지역약어.xlsx”의 이름을 부여한다. 이 정보 파일에는 각각의 폴더에 담긴 파일의 정보를 정리하여 입력한다.

[보기] JB2320FVE.xlsx (전라북도 20대 여성 피험자 어휘·표현의 정보 파일)

## 3) 녹음 파일(wav, eaf 파일) 및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 관리

- ① 음성 파일은 16bit linear PCM으로 저장된 원본 파일을 전사용 파일로 사용하며, 원본 파일은 따로 보관한다.
- ② 원본 음성 파일은 엘란(ELAN)으로 전사한 전사 파일(.eaf 파일)과 함께 짝을 지어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에 보관한다.
- ③ 어휘·표현 파일은 항목별 음성 분절 파일과 항목별 형태음소전사-표준어 대역 파일과 함께 짝을 지어 보관한다.
- ④ 구술발화 파일은 주제별 음성 분절 파일과 주제별 형태음소전사-표준어 대역 파일과 함께 짝을 지어 보관한다.

#### 4) 조사 결과 보고

연구 책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추진한 결과물에 대해 양적, 질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정리가 종료되면 아래의 결과물들을 제출하고 정해진 양식과 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 ① 현지 조사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 전량
- ② 어휘·표현: 원본 음성 파일, 원본 음성 파일에 대한 전사 파일(eaf 파일 & excel 파일), 항목별 음성 분절 파일
- ③ 구술발화: 원본 음성 파일(=주제별 음성 분절 파일), 원본 음성 파일에 대한 전사 파일(=주제별 형태음소 전사-표준어 대역 파일: eaf 파일)
- ④ 조사된 질문지(제보자 조사표 포함: 주제보자 & 보조제보자)
- ⑤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자료 구축 및 활용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별도 서식)
- ⑥ 개인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도 서식)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의 제보자 조사표**

조사자 이름	조사 장소	
조사지	조사 코드	
조사 기간		
<input type="checkbox"/> 주 제보자	<input type="checkbox"/> 보조 제보자(주 제보자와의 관계:                    )	
제보자 이름	(남 . 여)	나이                    세(            년생)
출생지	(농촌 . 어촌 . 광산촌 . 도시)	
거주지	선대 거주지	
생업	선대 생업	
학력	병역(복무지, 기간)	
경력	가족 사항	
제보자 선정 과정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		
<공통 발음정보> ① ‘에 / 애’의 변별 여부: ② ‘으 / 어’의 변별 여부: ③ ‘위, 외’의 발음: ④ 비모음화 실현 여부: ⑤ 격음화 여부:		
녹음기 TASCAM DR-05X	마이크 대경바스컴 CM-1031FC	기록 매체 ELAN 6.9
조사 지점의 개관		
조사 파일명		
※ 아래는 예시입니다. CN2570FVE20101-20115 CN2570FVE20116-20418 CN2570FVE20501-20740 CN2570FVE20801-21723 CN2570FVE21801-24305		※ 아래는 예시입니다. CN2570FUT10100 CN2570FUT10200 CN2570FUT10300 CN2570FUT10400 CN2570FUT10500 CN2570FUT10600 CN2570FUT10700 CN2570FUT10800 CN2570FUT10900

## [붙임 3] 음성 분절화 작업 지침

### I. 분절화 작업 개요

-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웹 환경에 맞는 형식이 필요하다.
- 기존의 조사 및 전사 자료는 연구를 위한 것이어서 개별 어휘 음성을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한 형식이므로, 음성 파일 분절 및 일련번호 부여 작업을 통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 분절 작업은 어휘·표현 부분과 구술발화로 나누어 진행한다.
- ① 어휘·표현 음성 자료는 엘란(ELAN)을 활용하여 1,000항목 내외의 어휘·표현 항목을 분절한다.
- ② 구술발화 음성 자료는 주제별로 분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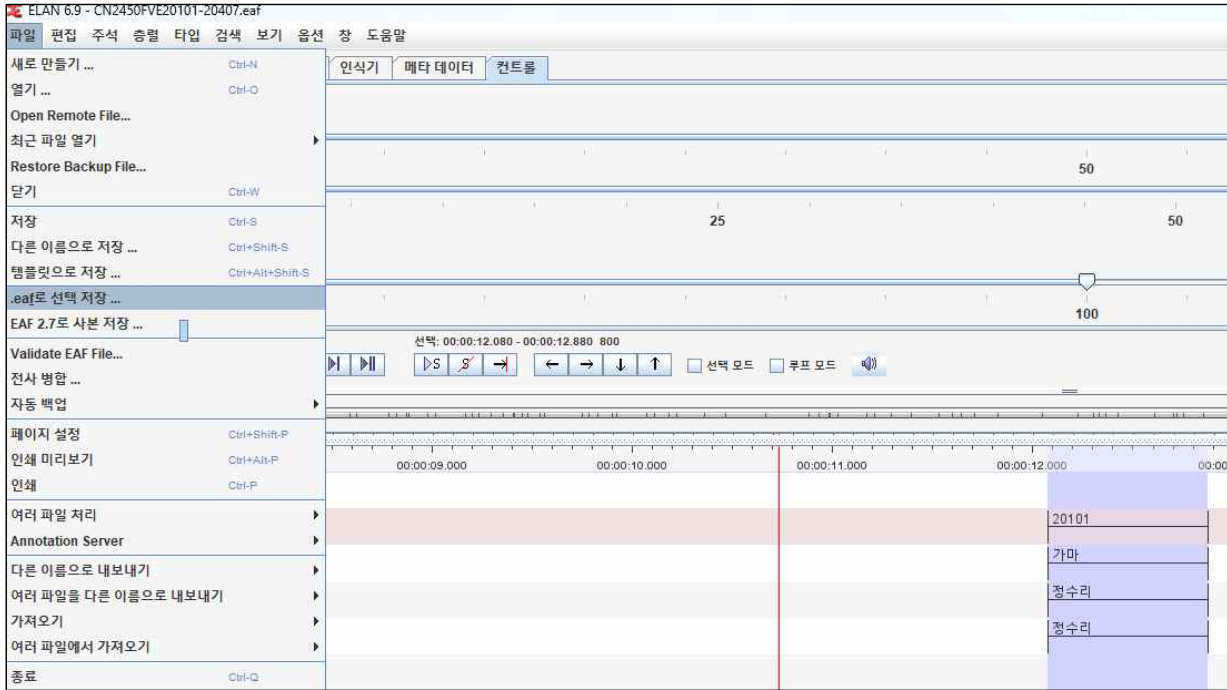
### II. 음성 파일 및 전사 파일 분절하기

#### □ 음성 파일 추출 원칙

- 음성 파일 및 전사 파일 분절은 엘란(ELAN)을 활용한다.
- 음성 파일을 분절할 경우 음성 구간 앞, 뒤에 200msec 이상의 휴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 □ 음성 파일 및 전사 파일 분절 과정

- ① 음성 및 전사 파일 분절은 엘란(ELAN)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② 음성 및 전사 파일을 분절할 폴더명은 영문으로 설정하고, 해당 폴더에 clip\_media.txt 파일을 찾아서 저장한다.
- ③ 구글에서 FFMPEG 파일을 다운 받고, 설치한다.
- ④ 전사 작업을 완료한 후 전사 파일(.eaf 파일)을 연다.
- ⑤ 분절할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파일 - .eaf로 선택 저장]을 선택한다.



파일 분절 작업

⑥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선택한 미디어 클립]을 선택하고, 파일명(일련번호)을 수정하여 저장한다. 분절된 파일 제목은 음성 파일명 작성 지침에 맞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어휘·표현 항목별 코드를 마지막에 붙인다.

⑦ 분절할 부분의 전사 파일명(.eaf 파일명)은 설정할 수 있지만, 음성 파일의 파일명은 ‘기존 음성 파일 이름\_음성구간’으로만 나타난다.

※ ‘GW2320FVE20100-20201’ 음성 파일에서 어휘·표현 항목 ‘20101’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절할 때 .eaf 파일명은 ‘GW2320FVE20101.eaf’로 부여할 수 있지만, 분절된 음성 파일은 자동으로 ‘GW2320FVE20101-20201\_1010\_1650(음성구간).wav’로 생성된다. 따라서 분절된 음성 파일명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 GW2320FVE20101-20201\_1010\_1650.wav → GW2320FVE20101.wav)

⑧ 해당 폴더에 .eaf 파일과 .pfsx 파일을 삭제한다.(명령 프롬프트(cmd)의 del 기능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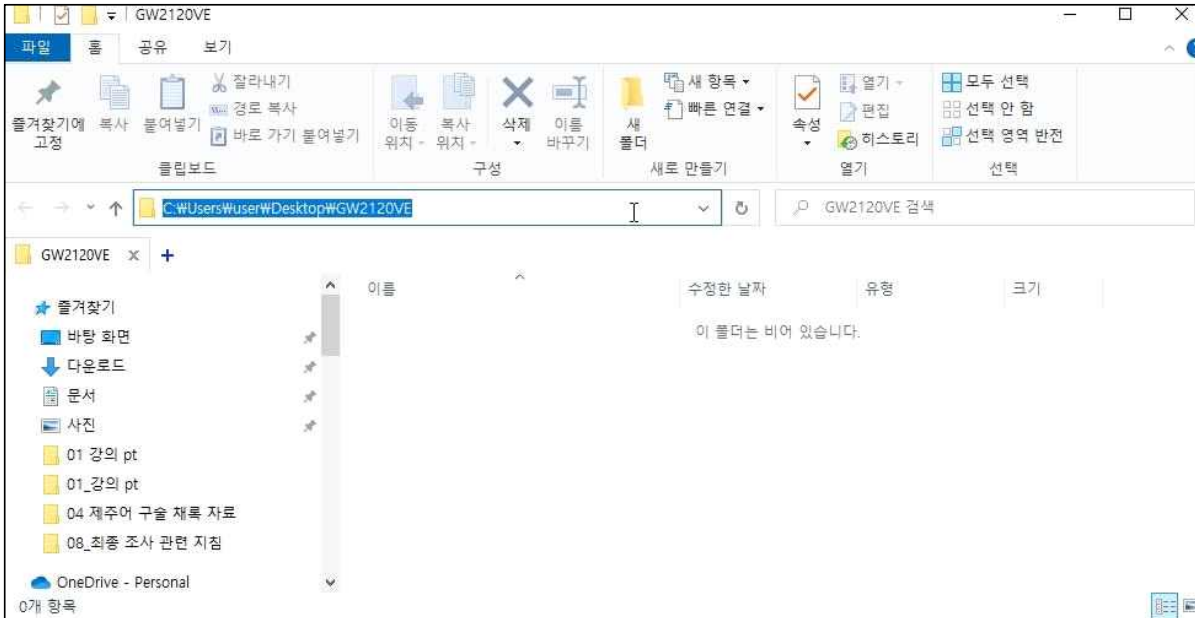
※ “del \*.eaf”을 실행하면 분절된 eaf 파일과 함께 원본 음성 파일에 대한 전사파일(eaf 파일)도 삭제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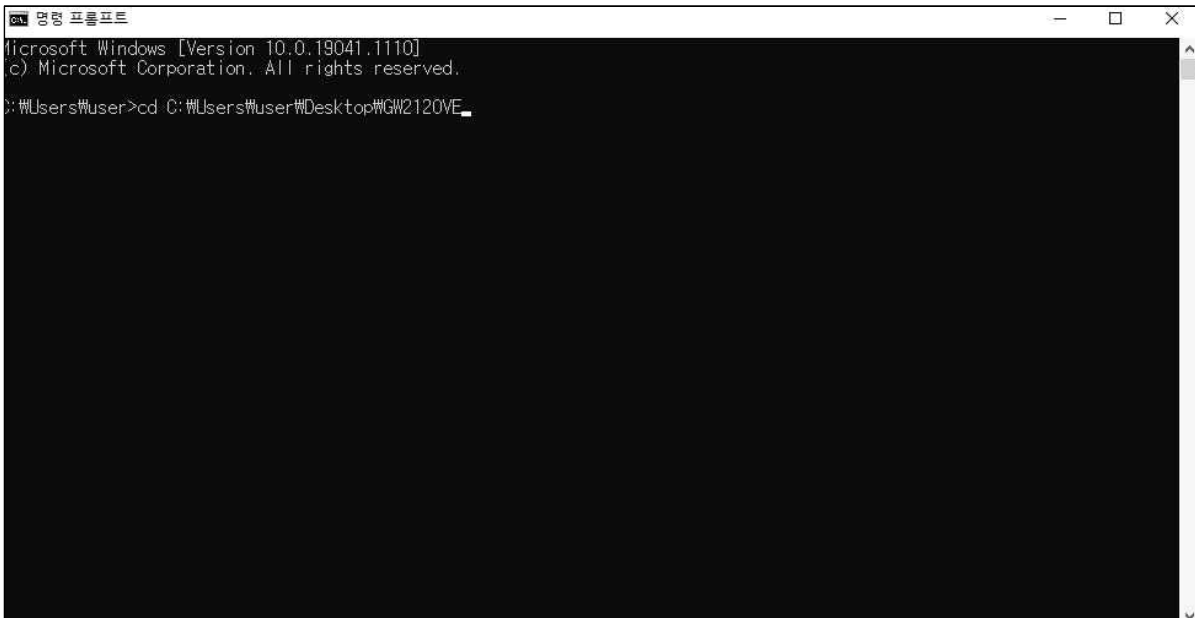
cmd 입력



명령 프롬프트 화면



폴더명 복사(Ctrl+ C)



cd 폴더명(붙이기) 입력(해당 폴더로 이동)

```
명령 프롬프트
Microsoft Windows [Version 10.0.19041.1110]
(c)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C:\Users\User>cd C:\Users\User\Desktop\GW2120VE
C:\Users\User\Desktop\GW2120VE>
```

음성 파일 및 분절 파일 위치로 이동

```
명령 프롬프트
Microsoft Windows [Version 10.0.19041.1110]
(c)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C:\Users\User>cd C:\Users\User\Desktop\GW2120VE
C:\Users\User\Desktop\GW2120VE>del *.eaf
C:\Users\User\Desktop\GW2120VE>del *.pfsx
C:\Users\User\Desktop\GW2120VE>
```

del 기능을 활용하여 eaf 파일 및 pfsx 파일 삭제

### Ⅲ. 음성 파일에 일련번호 부여하기

#### □ 일련번호 구성

- 일련번호는 음성 파일의 파일명이면서, 음성 파일 목록과 음성 파일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 일련번호는 해당 음성이 언제, 어디에서 조사된 것인지, 어떤 항목의 방언형인지, 방언형들끼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 일련번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가. 지역 코드(도)
  - 나. 조사 연도
  - 다. 세대(20대, 50대, 70대)
  - 라. 성별(남, 여)
  - 마. 자료 종류(어휘·표현, 구술발화)
  - 바. 어휘·표현 항목 번호, 구술발화 주제별 항목 번호
  - 사. 필요한 경우: 관련어

#### □ 항목별 세부 설명

##### 가. 지역 코드(도)

- 지역 코드는 도 단위로 배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각 지역 명칭의 두 글자의 초성을 알파벳으로 표기한다.

지역	대도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코드	MP	GW	GG	GN	GB	JN	JB	JJ	CN	CB

##### 나. 조사 연도

-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에서는 각 도의 시 단위 지역을 5차년에 걸쳐 조사할 예정. 조사 연도를 21~25 사이로 부과하여 일련번호 작성에 적용한다.

도별	2021 (시범조사)	2022 (1차조사)	2023 (2차조사)	2024 (3차 조사)	2025 (4차 조사)
대도시	대전	-	-	-	-
강원	춘천	춘천	원주	강릉	홍천
경기	고양	고양	수원/화성	의정부	부천
경남	창원	창원	울산/울주	진주	김해
경북	경주	경주	안동	김천	구미
전남	무안/목포	무안/목포	광주/광산	여수	광양
전북	전주/완주	전주/완주	익산	남원	정읍
제주	제주시(해안)	제주시(산간)	서귀포시(해안)	제주(내륙)	제주(해안)
충남	아산	예산	공주	홍성	천안
충북	청주	청주	충주	제천	진천

다. 세대(20대, 50대, 70대)

-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에서는 세대(20대, 50대, 70대)별로 자료를 조사할 예정이다. 세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20, 50, 70’을 일련번호 작성에 적용한다.

라. 성별(남, 여)

- (다)와 마찬가지로 성별(남, 여)을 표시하기 위하여 ‘M, F’를 일련번호 작성에 적용한다.

마. 자료 종류(어휘·표현, 구술발화)

-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에서는 어휘·표현 항목과 구술발화를 조사할 예정이다. 자료의 종류를 표시하기 위하여 ‘VE, UT’를 일련번호 작성에 적용한다.

바. 어휘·표현 항목 번호, 구술발화 주제별 항목 번호

- 세대별·성별 언어 다양성 조사 보고서에 부여되어 있는 항목 번호를 사용한다.
- 구술발화: 구술발화 파일은 주제별 코드를 부여하여 적용한다.

주제	코드 설정
1. 조사 마을(동네)의 환경과 배경	10100
2. 인생 의례와 경험	10200
3. 생업 활동과 경제 생활	10300
4. 의생활과 외모	10400
5. 식생활	10500
6. 거주 생활	10600
7. 질병과 건강	10700
8. 세시 풍속과 여가 문화	10800
9. 언어 의식/태도	10900

바. 동의어, 이형태

- 동의어, 이형태의 기본 개념

-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자료집에서 하나의 항목 번호에 해당하는 방언형을 두 개 이상 조사한 경우, 해당 방언형끼리의 관계를 밝혀 줄 필요가 있다. 방언형끼리의 관계는 동의어, 이형태로 나뉜다.
- 동의어는 하나의 표준어형에 둘 이상의 방언형이 대응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 이형태는 조사된 방언형들이 서로 개별 어휘가 아니라 이형태 관계인 경우이며, 음운론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의 기저형으로 수렴될 수 있는 것들이다.

- 동의어

- 하나의 표준어형에 대응되는 어휘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어휘를 모두 추출하고 해당 어휘에 ‘A’를 부여한다.
- 각 동의어가 구별될 수 있도록 A 뒤에 숫자 ‘1, 2, 3 …’을 차례로 부여한다.

- 동의어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의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 동의어 예시

예1) 형태가 다른 어휘: 가래떡 - 떡까랑, 가래떡

예2) 형태소 경계의 음운론적 교체에 해당하지 않는 어휘: 송편- 송췌, 송편

예3) 동일 형태이나 성조가 다른 경우: 모내기 - 이중(HH), 이중(HL)

예4) 구형과 신형의 관계에 있는 어휘

○ 이형태

- 하나의 방언 어휘의 음운론적 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방언형이 조사된 경우 각각의 방언형을 추출한다.

예) 꽃 - [꼰], [꼬치]  
 밟다 - [발바], [밥꼬]

- 해당 방언형에 'C'를 부여하고, 각 이형태의 C 번호 뒤에 숫자 '1, 2, 3 ...'을 차례로 부여한다.
- 음운론적 교체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형태를 중복해서 추출하지 않는다.
- 지역어 변이 조사 자료집에서 곡용형, 활용형을 조사한 경우 어휘 항목 뒤에 '-0-1, -0-2 ...'의 번호를 붙여서 구별한다. 이러한 곡용형, 활용형을 포함하여 이형태 관계인 경우에는 모두 'C'를 별도로 부착한다.

예) JB2350FVE20301-C-1 가루고  
 JB2350FVE20301-C-2 가루에다가  
 JB2350FVE20301-C-3 가루덜

- 기저형 판별이 모호하여 동일 기저형의 이형태인지의 여부를 분명히 할 수 없는 것들은 일괄적으로 동의어로 처리한다.

IV. 분절 파일 검수

□ dir 명령어로 파일명 매칭 검사하기

- 분절 파일은 수가 최소 1,000개 이상이므로 육안으로 검사하기가 어렵다.
- 별다른 프로그램 없이 명령 프롬프트(윈도우 검색창에 cmd 입력)를 활용하여 분절된 파일의 폴더에서 dir 명령어로 파일명 매칭 검사가 가능하다.

<관련란 표시>

<기획·연구>

국립국어원 이운영 어문연구과장  
국립국어원 김수현 학예연구관  
국립국어원 공현진 연구원  
국립국어원 김정원 연구원

<연구 참여자>

연구 책임자: 정승철(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김수영(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우봉(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상신(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임석규(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정인호(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연구 보조원: 고은향(제주대학교), 김고은(서울대학교),  
김동은(서울대학교), 김민지(서울대학교),  
김영규(서울대학교), 김유겸(서울대학교),  
김인규(경북대학교), 김주성(해군사관학교),  
김한중(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정순(숭실대학교),  
박주성(서울대학교), 배윤정(서울대학교),  
백은아(전주대학교), 안미화(서울대학교),  
오청진(목포대학교), 윤예진(서울대학교),  
이용진(서울대학교), 이재섭(경북대학교),  
이철희(경북대학교), 이현주(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임홍연(서울대학교), 전진호(서울대학교),  
정성경(목포대학교), 정지인(서울대학교),  
최준호(서울대학교), 허유진(서울대학교),  
현혜림(제주대학교), 홍석우(서울대학교)

---

---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19, 전송 02-2669-9637

인쇄일: 2025년 11월 28일

발행일: 2025년 11월 28일

인 쇄: 서울문화사

---

---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25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국립국어원

2025 - 01 - 38

2025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국립국어원

